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 일본어 복합동사의 어 구조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신 현 속

문학박사 학위논문

# 일본어 복합동사의 어 구조 연구

지도교수 손 동 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신 현 속

# 신현숙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심 문학박사 장 상 언 (인)

위원 문학박사 최 건 식 (인)

위원 문학박사 권 기 수 (인)

위원 문학박사 전 성 엽 (인)

위원 문학박사 손 동 주 (인)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1  |
| 1.1 연구목적 .....                        | 1  |
| 1.2 선행 연구의 고찰 .....                   | 3  |
| 1.3 연구방법 .....                        | 8  |
| 제2장 [수단-결과] 구조 .....                  | 13 |
| 2.1 [수단-결과] 구조란 .....                 | 13 |
| 2.2 [수단-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 13 |
| 2.2.1 전향동사의 의미 특징 .....               | 15 |
| 2.2.2 내부 구조 .....                     | 17 |
| 2.2.2.1 [동작+변화] 구조 .....              | 17 |
| 2.2.2.2 [동작+동작] 구조 .....              | 18 |
| 2.2.3 변화 결과의 유무 .....                 | 23 |
| 2.2.4 카격名詞의 변화 .....                  | 24 |
| 2.2.4.1 카격名詞가 物名詞인 경우 .....           | 24 |
| 2.2.4.2 카격名詞가 人名詞 또는 有性名詞인 경우 .....   | 29 |
| 2.2.4.3 카격名詞가 事柄名詞인 경우 .....          | 34 |
| 2.2.5 수동 표현과의 연관성 .....               | 38 |
| 제3장 [원인-결과] 구조 .....                  | 46 |
| 3.1 [원인-결과] 구조란 .....                 | 46 |
| 3.2 [원인-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 46 |
| 3.2.1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 .....              | 49 |
| 3.2.1.1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 .....  | 49 |
| 3.2.1.2 [원인-결과] 구조 성립의 전제 조건(I) ..... | 54 |

|                                  |           |
|----------------------------------|-----------|
| 3.2.1.3 [원인-결과] 구조 성립의 전제 조건(Ⅱ)  | 58        |
| 3.2.2 파생에 의한 경우                  | 63        |
| 3.2.2.1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있는 경우 | 64        |
| 3.2.2.1.1 파생 과정                  | 64        |
| 3.2.2.1.2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65        |
| 3.2.2.1.2.1 전향동사와의 관계            | 65        |
| 3.2.2.1.2.2 후향동사와의 관계            | 68        |
| 3.2.2.1.3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73        |
| 3.2.2.1.3.1 ㄱㄴ명사가 物名詞인 경우        | 73        |
| 3.2.2.1.3.2 ㄱㄴ명사가 人名詞인 경우        | 74        |
| 3.2.2.1.3.3 ㄱㄴ명사가 事柄名詞인 경우       | 75        |
| 3.2.2.2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없는 경우 | 76        |
| 3.2.2.2.1 자□타 동형 동사의 경우          | 76        |
| 3.2.2.2.2 수동문과 자동사문              | 77        |
| <b>제4장 양태구조</b>                  | <b>82</b> |
| 4.1 양태구조란                        | 82        |
| 4.2 양태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82        |
| 4.2.1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 84        |
| 4.2.1.1 구성요소간의 관계                | 84        |
| 4.2.1.2 의미특징                     | 90        |
| 4.2.1.2.1 부차성분(부사구)과의 관계         | 90        |
| 4.2.1.2.2 동작의 구체성                | 92        |
| 4.2.1.3 결합특성 및 내부구조              | 95        |
| 4.2.2 이동 이외의 경우                  | 98        |
| 4.2.2.1 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 98        |
| 4.2.2.1.1 [타동사+타동사]형의 경우         | 98        |
| 4.2.2.1.2 [자동사+자동사]형의 경우         | 101       |
| 4.2.2.2 무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 103       |



## 제5장 부대상황구조 .....112

|                                 |     |
|---------------------------------|-----|
| 5.1 부대상황구조란 .....               | 112 |
| 5.2 부대상황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 113 |
| 5.2.1 시간과의 관계 .....             | 113 |
| 5.2.2 동작에 수반되는 부대상황 .....       | 115 |
| 5.2.3 이동에 따른 부대상황 .....         | 119 |
| 5.2.3.1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   | 120 |
| 5.2.3.2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 125 |
| 5.2.3.3 양용동사의 경우 .....          | 127 |
| 5.2.3.3.1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 .....     | 127 |
| 5.2.3.3.2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 .....     | 129 |

## 제6장 병렬구조 .....132

|                                         |     |
|-----------------------------------------|-----|
| 6.1 시간관계에 따른 두 종류의 병렬구조 .....           | 132 |
| 6.2 순차적 병렬구조 .....                      | 132 |
| 6.2.1 순차적 병렬구조란 .....                   | 132 |
| 6.2.2 순차적 병렬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 133 |
| 6.2.2.1 ㄱ格名詞에 영향을 주는 동작인 경우 .....       | 133 |
| 6.2.2.2 ㄱ格名詞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작인 경우 .....    | 138 |
| 6.2.2.3 ㄴ格名詞의 위치 변화 및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 | 142 |
| 6.2.2.4 ㄴ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      | 146 |
| 6.2.3 재귀구조에 대하여 .....                   | 154 |
| 6.3 비순차적 병렬구조 .....                     | 160 |
| 6.3.1 비순차적 병렬구조란 .....                  | 160 |
| 6.3.2 비순차적 병렬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 160 |
| 6.3.2.1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유의어인 경우 .....       | 160 |
| 6.3.2.1.1 동작에 초점을 두는 경우 .....           | 160 |
| 6.3.2.1.2 변화 및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경우 .....      | 164 |
| 6.3.2.2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유의어가 아닌 경우 .....    | 166 |

|                                     |     |
|-------------------------------------|-----|
| 제7장 보문구조 .....                      | 171 |
| 7.1 보문구조란 .....                     | 171 |
| 7.2 보문구조의 하위분류 .....                | 172 |
| 7.3 「始動」□「繼續」□「完了」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74 |
| 7.3.1 「始動」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74 |
| 7.3.2 「繼續」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79 |
| 7.3.3 「完了」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83 |
| 7.4 「未遂」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88 |
| 7.5 「再試行」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          | 199 |
| 7.6 「習慣」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           | 203 |
| 제8장 결론 .....                        | 209 |
| 참고문헌 .....                          | 217 |
| 예문출전 .....                          | 223 |



# **A Study on Japanese Complex Verb Constructions**

Shin, Hyun-Suk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Japanese complex verb constructions, dividing them into 6 types according to the meaning relation between the former element(V1) and latter element(V2): the [method-result] constructions, the [cause-effect] constructions, the aspect constructions, the collateral circumstance constructions, the parallel constructions and the complement constructions. Specifically, this analysis shows how the lexical meaning of the main verb performs its semantic role in the complex verb and how it is involved in the contextual situation.

The [method-result] constructions focus on the change of the subject in a transitive sentence, while the [cause-effect] constructions focus on the consequent state of the subject in an intransitive sentence. A typical aspect construction focuses on the action of the intransitive verb and the two verbs are combined in [modifying- modified] relation. A collateral circumstance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the external element of instantaneous time, when showing movement,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e aspect constructions. Though there seems not to be a regular pattern in its internal constructions, the parallel constructions show diverse changing aspects since it includes no other restrictions than the condition that the constituents must contain their original meanings in a before-after time relation. The complement constructions, in particular, are related with a verb's aspect, not irrelevant to the background circumstances of occurrence of the situation even though it is a phrase construction comprised of grammatical re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structural analysis of how the two verbs in the complex verb are combined and what they mean.

# 제 1장 서론

## 1.1 연구목적

[동사+동사]형의 일본어 복합동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하위분류되고 있으나, 문법과 어휘라는 양 요소를 내포한 복합동사의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복합동사는 구성요소가 각각 단순동사로서의 용법을 가진 [어기+어기]로 구성된 경우를 전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동사의 의미만으로는 복합동사 전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항 또는 후항동사가 주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접사적 요소(접두사□접미사)로 결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형태가 다른 두 동사로 결합된 복합동사가, 구조적으로 공통된 의미 특징을 가진다면, 전형적인 어 구조형으로 유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자동사로부터 타동사가, 혹은 타동사로부터 자동사가 파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동사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어 구조형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복합동사가 생성되는 것이고 결합양상 또한 다양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복합동사가 양 구조로 해석되거나,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에 이르기까지 복합동사의 의미 변화로 인하여 구조적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각 어 구조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구조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어 구조의 특징은 보다 명료해질 수가 있다.

전후 시간관계의 성립 여부는 복합동사의 어 구조를 분류하는 기준이자 성립 조건이기도 하다.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사태 성립의 과

정 혹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적이라는 것은 동작 또는 변화의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거나 수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요소가 동시적 관계로 결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사태 성립의 어느 측면을 나타내고자 하는가에 따라 복합동사의 구성요소 및 내부구조는 달라진다. 전후 시간관계 뿐 아니라, 인과관계, 수식관계 등도 어 구조 분류 및 성립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전향동사의 의미 역할이 어 구조 성립의 전제조건이 되거나, 다른 어 구조와 구분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향과 후향의 결합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어 구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결합상의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복합동사의 생성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작 혹은 변화의 양상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복합동사는 변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동작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구성요소의 자□타동성이 관여하기 때문이며, 구문과의 관계는 물론 어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이 ㄱ격名詞인가 ㄴ격名詞인가로 구분할 수 있고, 변화하는 것이 ㄱ격名詞인 경우는 그것이 구체물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토대로 한 복합동사의 내부구조는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이지만, 내부구조만으로는 어 구조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전향 및 후향동사의 자□타동성은 물론 관여하는 명사구, 격 성분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문법관계로 결합한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복합동사 구성요소인 동사의 자□타동성, 의도성 및 아스펙트, 보이스와의 관계가 사태성립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복합동사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에 따라 전형적인 어 구조 형을 유형화하고, 각 어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의 고찰

일본어 복합동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커다란 난점은, 단순동사로서의 의미 특징과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의미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후향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사적으로 보면 후향동사의 의미 용법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합동사 분류에 관해서는 寺村(1969)의 연구가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寺村는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전향 및 후향동사가 자립어로서의 의미를 갖는가]라는 관점에서, (1) [自立V]+[自立V] (2) [自立V]+[付属V] (3) [付属V]+[自立V] (4) [付属V]+[付属V]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의를 가진 [自立V]와 본의를 가지지 않은 [付属V]를 구분하는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長嶋(1976)의 연구는 어느 항의 동사가 격 성분을 취하는가에 따라 I류와 II류로 나누고, [수식과 피수식]이라는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가 대등한 관계인 경우(「泣き叫ぶ」)와 속어동사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동사의 의미와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복합동사를 결합가(혹은 결합능력)<sup>1)</sup>의 관점에서 4분류한 山本(1984)는, [복합동사 구성요소와 격 성분과의 대응관계]라는 통어적인 분류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복합동사 구성요소인 동사의 격 지배 능력을 테스트함으로써 寺村에서의 [付属V]의 접사화 현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격 지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동사가 본의를 잃

1) 적격한 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개개의 동사가 필요로 하는 보어의 수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결합가 이론은,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언어정보처리와도 관련된다.

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분류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다.

한편 影山(1993)는 생성문법의 입장에서, 일본어 복합동사를 어휘부문에서 형성되는 [어휘적 복합동사]와 통어부문에서 형성되는 [통어적 복합동사]로 대별하고 있다. 影山の 분류는 전향동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1) 代用形「そうする」との置換可否
- (2) サ変動詞の使用可否
- (3) 主語尊敬語の可能性
- (4) 受身形の可能性
- (5) 重複構文の可能性

그러나 변화 자동사 특히 「崩れる」「暮れる」 등과 같이 무의지동사의 경우는 위 분류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sup>2)</sup>. 영문법에 기반을 둔 影山の 연구도 일본어 복합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됨으로써, 이후 松本(1998) 등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행하여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휘적 복합동사의 결합특성으로 影山가 제시한 [타동성 조화의 원칙] 및 [우측 주요부의 법칙]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松本가, [주어 일치의 원칙과 의미 구조에서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어휘적 복합동사의 결합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관한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2) 姫野昌子(2001)에서도 통어적 복합동사와 어휘적 복합동사를 구분하는 방법 즉, 影山太郎가 설정한 분류기준이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1) 代用形「そうする」との置換可否 (2) サ変動詞の使用可否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森田 (1978) <sup>3)</sup>는 일본어 복합동사를 의미적 측면에서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제 1단계를 병렬관계라 하여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대등의 관계인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て」의 기능에 따라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動作□作用の順次性 : 「～してから～する / ～になってから～になる」

(2) 因果關係

a. 「～することによって～する」 (手段□方法)

b. 「～することで～することになる」 「～した結果～となる」 (行為の結果)

(3) 因果關係の緊密化

a. 「～すること すなわち～」 (イコールの關係)

b. 「～し かつ～する」 「～したり～したりする」

c. 「～ながら～する」 「～ながら～となる」 (動作の狀態)

森田는 병렬관계에 있는 복합동사의 의미차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して～する」의 의미 관계를 이루면서,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두 동사가 본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이고 있다. 森田의 분석은 「補文關係」를 제외한 나머지 즉, 수단, 원인, 병렬, 양태구조 등이 [병렬 관계] 라는 하나의 의미적 범주에 혼재되어 있다는 난점이 있다.

姫野 (1999) <sup>4)</sup>에서는 森田 (1978) 및 影山 (1993) 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류법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3) 森田良行 (1978) : 第1段階 「並列關係」, 第2段階 「主述□補足の關係」, 第3段階 「具體的意味から抽象的意味へ」, 第4段階 「造語成分への移行」, 第5段階, 「實質的意味から形式的意味へ」 「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 참조.

4) 姫野昌子 (1999) 는 「複合動詞の様相を複雑にしている原因の一つに、ある種の後項動詞が重層的に意味を含んでおり、いくつもの分類におかされて出てくることを挙げられる」 라고 하여, 전향 또는 후향동사의 환언에 의한 분류법을 제시하고 있다. p.20-22 참조.

|                                                                                   | A類 語彙的複合動詞                                                                         | B類 統語的複合動詞                                   |
|-----------------------------------------------------------------------------------|------------------------------------------------------------------------------------|----------------------------------------------|
| (1) 前項、後項<br>二つの動詞による<br>言い換え可能<br>(a) 並列關係<br>繼 起<br>手段□原因<br>付帶狀況<br>並 起<br>類 似 | 流れ着く→流れてから着く<br>焼 け死ぬ→焼 けて死ぬ<br>遊び暮す→遊びながら暮す<br>泣 き叫ぶ→泣 いたり叫 んだり<br>書 き記す→書 いて即ち記す | ×                                            |
| (b) 比喩的關係                                                                         | 書 き殴る→殴 るように書く                                                                     | ×                                            |
| (c) 主述、補足の關係<br>主 述<br><br>補 足                                                    | あり余る→あることが余る<br>出し惜しむ→出すことを惜しむ                                                     | 働 き過ぎる→<br>働 くことが過ぎる<br>歩 き始める→<br>歩 くことを始める |
| (2) 後項動詞<br>言い換え必要                                                                | 投げ込 む→中に投げる                                                                        | 話し合 う→互いに話す                                  |
| (3) 前項動詞<br>言い換え必要                                                                | 打ち切る→途中で切る                                                                         | ×                                            |
| (4) 前項、後項動詞とも<br>言い換え必要                                                           | 落ち着く                                                                               | ×                                            |

그러나 생산성이 큰 복합동사의 후향동사에 관한 姫野의 체계적인 연구는 복합동사 분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 되고 있다.

한편, 石井 (1983a□1983b) 는 金田一 (1950) 및 奥田 (1978) 의 연구 결과를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적용하여 [동작(실현)→변화(결과)] 즉, [실현 형태]→[결과내용]이라는 일반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石井 (2002) 는



[과정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복합동사 어 구조 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의 목적이 [복합동사의 구조적 제한에 따른 생성과 소멸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각 어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A. 過程結果構造 : (1) 他動的過程結果構造, (2) 自動的過程結果構造,  
(3) 再歸的過程結果構造

B. 非過程結果構造 : (4) 樣態限定構造, (5) 狀態限定構造,  
(6) 繼起的並列構造, (7) 非繼起的並列構造

影山 (2002)에서는 「日本語のV1+V2型複合動詞ではV1とV2が様々な意味関係で結びついている。典型的なものは次の5つのタイプに集約される」라고 하여, [V1+V2]형 복합동사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요약하고 있다<sup>5)</sup>.

- (1) 手段 (V1 することによって V2)  
切り倒す, 踏みつぶす, 押し開ける, 擦り取る, 揺り起こす
- (2) 樣態□付帶狀況 (V1 しながら V2)  
探し回る, 尋ね歩く, 転げ落ちる, 忍び寄る, 語り明かす
- (3) 原因 (V1 の結果, V2)  
待ちくたびれる, 歩き疲れる, 酔いつぶれる, 焼けただれる
- (4) 並列 (V1 かつ V2)  
なだめすかす, 忌み嫌う, 恋い慕う, 慣れ親しむ, 恐れおののく
- (5) 補文關係 (V1 という行為 / 出来事を(が) V2)

5) 長嶋善郎 (1976) 森田良行 (1990) 影山太郎 (1993) 由本陽子 (1996) 松本 曜 (1998) 姫野昌子 (1999) 등을 참조로 하고 있음. 影山太郎 (2002) 「概念構造の拡充パターンと有界性」 『日本語文法』 p.31-32 참조.

聞き逃がす, 死に急ぐ, 聞き漏らす, 使いこなす, 焼け残る

이상 수식관계, 의미관계, 결합가, 파생과정, 과정과 결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는 복합동사에 대한 제 연구를, 특히 어 구조와 관련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토대로 다양한 결합양상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의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石井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분석의 관점과 연구목적이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동사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森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유형화하여 명확히 제시한 것은 影山이다. 石井, 森田, 影山, 松本の 연구는 본 연구의 필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松本(1998)를 비롯하여 미처 언급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1.3 연구방법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관한 의미□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장은 [수단-결과] 구조에 관한 분석이다.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는 타동사문에만 존재하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이거나, 구성요소가 타동사라고 해서 모두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사의 종류, 의도성의 유무, 그리고 관여하는 명사구에 따라 대상에의 영향은 물론 변화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은 전향동사의 의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향의 동작이 ㄱ

格名詞의 상태 혹은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작인가를 검토하고, 7格名詞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동작+변화] 구조의 예를 제시하고, [동작+동작] 구조이면서도 [수단-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특징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7格名詞의 종류에 따라 변화 유무 및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작□대상예의 영향□변화]라는 관점에서, 7格名詞가 物名詞인 경우, 人名詞 또는 有性名詞인 경우, 事柄名詞인 경우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수동문과 관련해서는, 수동 표현의 가부가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수동 표현은 가능하나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 3장에서는 [원인-결과] 구조를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와 파생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인과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단-결과] 구조는 타동사문에만, [원인-결과] 구조는 자동사문에만 존재한다. 이는 구성요소 및 내부구조뿐 아니라, 의도성, 타동성과도 관련되므로 양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원인-결과] 구조의 일부는 타동성 조화의 원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립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무엇을 근거로 한 조건인가를 제시하여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한다.

타동사의 자동사화(파생)에 있어서는,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있는 경우는 구성요소간의 타동성 및 자동성, 7格名詞의 종류, 그리고 문중의 付加詞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원인-결과] 관계 성립의 가부를 명확히 한다. 또한 수동문과 자동사문의 비교를 통하여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없는 이유를 밝히고, 그것이 사태 성립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양태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전형적인 양태구조는 구성요소가 모두 동작동사로 결합된 복합동사이며, 대부분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동의 경우,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어떤 관계로 결합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동사 전체가 취하는 격 성분이 어느 항에 의한 것인가를 검토한다. 또한 부사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동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향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양태구조의 의미 특징을 명확히 하며, 결합특성 및 내부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동 이외의 경우는 의지적인 동작과 무의지적인 동작으로 나누어 내부구조 및 결합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부대상황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동시적이면서도 양태구조와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과의 관계는 물론, 복합동사의 전향 또는 후향이 나타내는 부대상황에는 어떤 요소가 관여하는지를 분석한다. 개념구조의 확충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동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와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주체, 내부구조, 복합동사 구성요소, ㄱ格 성분 등이 양태구조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양용동사가 복합동사 구성요소인 경우의 자□타동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 6장은 병렬구조에 관한 분석이다. 구성요소 간의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따라 순차적 병렬구조와 비순차적 병렬구조로 나누어 분석한다. [타동사+타동사]형의 순차적 병렬구조는 대부분 동작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변화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변화가 있을 경우, 그것이 ㄱ格名詞의 변화인가를 검토하고, 전향의 동작이 변화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가를 분석하여 [수단-결과] 구조와 명확히 구분한다. [자동사+자동사]형의 순차

적 병렬구조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양태구조 및 부대상황구조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한 변화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재귀구조]를 하나의 어 구조 형으로 범주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 고찰한다.

유의어로 결합된 비순차적 병렬구조는 동작, 변화 혹은 상태 중,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유의어의 결합이 아닌 경우는 어떤 의미 특징을 가지는가, 또한 동시적 관계인 양태 구조와 구분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 7장에서는 보문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시간적인 국면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동적 사상을 나타내는 동사(동작동사 및 변화동사)를 지속성, 전개과정, 완결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또한 관여하는 명사구가 동사의 어휘적 의미(아스펙트성)와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보문구조의 성립조건은 구성요소가 문법관계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있다. 「未遂」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문법관계 성립의 가부가 결정된다. 문법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복합동사가 나타내는 미 수행에는 의미차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배경적 정보(전제)라는 관점에서 「未遂」의 보문구조를 검토하고, 전향동사 혹은 후향동사의 의미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再試行」을 나타내는 후향동사에는 어떤 의미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결합하는 전향동사의 종류에 따라 어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한 「習慣」을 나타내는 보문구조의 성립에는 어떤 조건이 관여하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제 8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제 7장까지 중점적으로 논한 각 어 구조의 특징을 정리하여 결론을 짓는다.



일본어 복합동사의 어 구조 분석에 제시된 용례는 복합동사의 어휘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동사 사용 빈도가 높은 현대 소설류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하나의 사태에 대한 표현 형식이 다양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전이 명시되지 않은 일부 예문은 <『日本語 基本動詞用法辞典』(2000) 大修館書店>을 참고로 하여 본 대학원 일본인 교수님의 조언을 얻었다.





## 제 2장 [수단-결과] 구조

### 2.1 [수단-결과] 구조란

[수단-결과] 구조라는 것은,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인과관계로 결합된 어 구조로, 「V1することによってV2」라는 의미 관계에 있다. 즉, ㄱ격名詞의 상태 또는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수단□방법을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구조로 타동사문에만 존재한다. 전형적으로는 전향이 [주체동작 동사], 후향이 [주체동작 객체변화동사]로 구성된 [무대타동사+유대타동사] 형으로 [동작+변화]를 나타내는 어 구조이지만, [동작+동작] 구조의 일부도 포함된다.

### 2.2 [수단-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단-결과] 구조(松本□影山에서는 수단 복합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관해 언급한 연구로는 松本(1998)와 影山(2002)를 들 수 있다. 우선 松本가 「前項が後項の手段となる行為を表す手段複合動詞」라 하여 분류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전향이 주체동작을 나타내는 무대타동사, 후향이 주체동작 객체변화를 나타내는 유대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6) 대응하는 자동사를 가진 타동사를 [유대타동사], 대응하는 자동사를 가지지 않은 타동사를 [무대타동사]라 한다. 孫 東周(2005a)는, 「有對他動詞と無對他動詞はカ格名詞の動作とカ格名詞への働きかけがあるという点においては共通しているが、カ格名詞への働きかけによって生じた変化まで表すのか、あるいは動作が他に及ぶ段階まで表すのかに基本的な違いがある。」라고 양자를 구분하면서도, 전형적인 유대타동사 또는 무대타동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カ格名詞와 대상과의 관계], [동작성과 의도성의 유

- 1) 押し倒す、たたき落とす、打ち上げる、押し出す、掃き集める、投げ飛ばす、  
切り抜く、だまし取る、ちぎる、取り除く、焼き付ける、折り曲げる、たた  
き壊す、踏み固める、蹴り崩す、殴り殺す、洗い清める<sup>7)</sup>

松本(1998: 53)는 1)에 대해, 전향은 모두 동작주적 동사이고 후향은 상  
태나 위치변화의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며, 「手段複合動詞と考えられ  
るものは全て、いわゆる他動詞 / 非能格動詞同士の組み合わせとなる」라고 설명하  
고 있다. 의문이 남는 것은 수단 복합동사로 제시된 1)은 모두 [타동사+타  
동사]형임에도 불구하고 「非能格動詞同士の組み合わせ」라고 하는 점이다.

또한 影山(2002)에서 분류한 2)의 수단 복합동사 역시 [무대타동사+  
유대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 2) 切り倒す、踏みつぶす、押し開ける、擦り取る、揺り起こす

松本 및 影山에서 수단 복합동사의 [의미구조]를 도식화하여 상세히 설  
명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예를 통한 분석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石井(1983a□1983b□1992)<sup>8)</sup>는,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입장과  
동일하나 연구목적이 다르며, [수단-결과] 구조를 유형화한 것은 아니  
다.

무], [동사의 종류]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타동사를 분류하고 있다. 한편 佐藤  
琢三(2005)는 [상대타동사] [절대타동사] 등, 寺村秀夫(1982)에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전향동사 중, 「切る」 「取る」는 통상 유대타동사로 분류되나, 石井正彦(2002)에서 언  
급했듯이 전향이 나타내는 객체 변화(「切れる」 / 「取れる」)는 어 구조에 관여하지  
않고, 객체에 대한 주체 동작의 측면만이 기능한다. 또한 후향동사 「殺す」는 형태상  
「死ぬ」와 대응하지는 않지만 주체 동작과 객체 변화를 함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石井正彦(1983a□1983b)에서는 복합동사의 어 구조를 [동작□변화]라는 관점에서, 石  
井(1992)에서는 [결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전향동사의 의미 특징은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과 직접 관련되며, 병렬구조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자.

### 2.2.1 전향동사의 의미 특징

[수단-결과] 구조의 전향동사는 3)의 「絞める」와 같이 ㄱ格名詞의 변화에 대한 ㄴ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으로, ㄱ格名詞에 영향을 주는 수단 혹은 방법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4)에서는 ㄱ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전향동사 「呪う」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작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呪い殺す」와 같은 복합동사는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로 보기 어렵다<sup>9)</sup>.

3) ただ、死んだ奥さんは、スカーフで絞め殺された奥さんだけは、どこにも登場しなかった。(『ホテル□アイリス』p.171)

4) 「というと、どんな殺し方をするのだ」  
「決して不審をいだかれない死、病死をさせるのですから」  
エヌ氏は顔をしかめ、苦笑いをした。  
「冗談じゃない。そんな方法など、ありえない。第一、どうやって病氣にさせるのだ」  
「呪い殺す、とでもしておきましょうか」

(「殺し屋ですよ」『短編小説』p.5)

9) 孫 東周(2005a)도 「変化は現実の時間において生じる」라는 점을 타동원형의 의미 특징의 하나로 들고 있다.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カ格名詞*의 동작이 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 주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5)는 「女」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若者」가 직접 영향을 준 대상은 *カ格名詞* 「敷蒲団」이지 「女」는 아니다. 즉, 「女」의 위치 변화는 간접적인 영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若者が敷蒲団を引張った」와 「女が畳にころがり落ちた」는 각각 별개의 사태이므로, 문맥상으로는 인과관계에 있지만 하나의 [수단-결과] 구조로 나타낼 수는 없다.

- 5) 三人の若者が敷蒲団を引張った。女はあつとい間もなく畳にころがり落ちた。  
(『青の時代』 p.157)

*カ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향동사의 동작이 재귀용법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6a)는 *カ格名詞*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カ格名詞*가 「自分の体を揺すぶる」라는 재귀적 동작을 한 것이다. 6a)와 6b)를 비교해 볼 때, 변화 결과는 같으나 6b)가 직접적이라면 6a)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이라고 해서 *カ格名詞*에의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6a)의 「揺すぶり落とす」는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 있다.

- 6) a. 岩崎はそれを掘り出すと、付着した雪を揺すぶり落とした。  
(『ホワイトアウト』 p.84)  
b. 岩崎はそれを掘り出すと、付着した雪を払い落とした。

이와 같이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カ格名詞*의 상태 혹은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작이어야 한

다. 물리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ㄱ格名詞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전향동사가 재귀용법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 2.2.2 내부구조

### 2.2.2.1 [동작+변화] 구조

대부분의 [수단-결과] 구조는 7) 8)과 같은 [동작+변화] 구조이다. 7)의 전향동사 「揉む」는 ㄱ格名詞 「煙草」를 상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는 [수단-결과] 관계에 있다. 또한 8)의 전향동사 「引く」는 더럽혀진 시트를 벗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수단-결과] 구조는 ㄱ格名詞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 [무대타동사+유대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7) 猪首は慌てたように灰皿で煙草をもみ消すと、机の上に上半身を乗り出した。  
(『ひるの幻よるの夢』 p.54)

8) 汚れたシーツをベッドから引きはがし、バスルームのタオルを新しいものに取り替える。(『アフターダーク』 p.58)

9)~11)은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12)~14)는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동작+변화] 구조의 예이다.

9) 「本當は、みんなが言うほどひどくはなかったのよ。確かに腫れ上がって痣だらけだったけど、濡れたタオルで汚れをきれいに拭き取ったら、はっとするくらい生き生きした目をしてたの。…」(『ホテル□アイリス』 p.135)

10) 村とともに多くの人々を焼き殺したことは罪ではないのか。

(『まほろばの疾風』 p.104)

11) ケー キに立てたろうそくの火は、なつみが吹き消した。

(『あふれた愛』 p.67)

12) 翻訳家は甥のビーチサンダルをそろえ直し、肩についた砂を払い落とし、ペンダントが胸の真ん中にくるよ鎖をいじった。(『ホテル□アイリス』 p.188)

13) 雪の中に深々と突き刺さった剣を敵が引き抜く。(『まほろばの疾風』 p.162)

14) グローブを取り去り、それを拾い上げて、もう一つの電話機の投入口に押し入れる。(『ホワイトアウト』 p.119)

그렇다면 [동작+동작] 구조이면서 [수단-결과] 구조와 같이 ㄱ格名詞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면 어떤 의미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2.2.2.2 [동작+동작] 구조

기본적으로 [동작+동작] 구조는 동작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15)의 「踏み<sub>に</sub>じる」와 같은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은, 전항이 나타내는 동작과 후항이 나타내는 동작을 하나의 행위로 나타내는 복합동사이다. 다시 말하면 ㄱ格名詞의 동작이 ㄱ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7)의 「もみ<sub>消</sub>す」와는 다르게, 복합동사<sup>10)</sup> 자체가 대상의 변화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후향동사 「に<sub>じ</sub>る」는 자타 양용 동사이기 때문에, 주로 「に<sub>じ</sub>出る」 「に<sub>じ</sub>寄る」 등과 같이 ㄱ格名詞의 이동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전향동사로 결합하고 있다.



15) 男が消えない煙草の火を、氣が狂ったように踏みつけはじめた。激し踏みにじ  
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サンダルが地面にあたる音はまった聞こえず、赤い火  
 口にも変化はない。(『迎え火の山』 p.397)

- 15) 'a. \* 煙草を踏むことによってにじる。  
 b. 煙草を踏みにじって消す。

그런데 [동작+동작] 구조이면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捨てる」라는 동사는 「そのままにしておく」라는 방치의 의미 뿐 아니라 「ものを手もとから離す」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16)의 「乗り捨てる」는 [무대자동사+무대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인데, 복합동사 전체로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カ格名詞의 위치 변화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ニ格을 취할 필요가 없는 [방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치의 의미는 17)에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16) タクシーを乗り捨てて横断歩道を渡った。

17) いかなる理由があろうとも、死の淵に瀕した同僚を見捨て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ホワイトアウト』 p.112)

그러나 18)에서는 전향동사 「乗る」가 カ格名詞를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ニ格 명사구로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단순동사 「乗る」는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이지만, 복합동사 전향요소로서의 의미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車は別の場所に乗り捨ててきた。死体の身元をわかりにくくするためもあったし、自分の痕跡を隠したかった。車の中で格闘した時、たぶんオレの毛も何本か

落ちたと思うし、指紋だって付けてしまったかもしれないから」

(『片思い』 p.44)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18 a)와 같이 「乗る」행위가 ㄱ格名詞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방치를 함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18 b)에서 알 수 있다.

18) 'a. 別の場所に捨てようとして乗る。

b. \* 乗ることによって捨てる。

이번에는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19)의 「投げ捨てる」는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인데, 전향동사 「投げる」가 ㄱ格名詞를 二格의 장소에 위치 변화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19)에서 알 수 있다. 후향동사 「捨てる」는 동작에 초점을 둔 무대타동사이지만 복합동사의 후향으로 결합함으로써 복합동사 전체가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 「私も警察でそう言ったんですけど、刑事さんは、おそろ犯人は祖父を他の場所  
所で殺害して、死体を引揚記念公園の斜面に投げ捨てたのではないかと  
言  
うんです。(『蜚氣楼』 p.80)

19) 'a. 捨てるために投げる。

b. 投げることによって捨てる。

분석한 바와 같이 二格 명사구로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동작] 구조에는, 「乗」捨てる」와 같이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投げ捨てる」와 같이 七格名詞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投げ捨てる」와 마찬가지로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인 20)도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払いのける」도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후향동사 「のける」는 「除く」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동작+동작] 구조를 생각해 보자.

- 20) 一センチもない花びらの上の水滴を、彼が指先で払いのけてゆく  
(『あふれた愛』 p.187)

早津(1989a)는 유대타동사 「乾かす」와 무대타동사 「干す」의 의미 특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干す」は、「洗濯物」を物干し竿にかけるなどの動作を行うことを表しているのであって、「洗濯物」の水分がなくなるかどうかは問題にされていない。]11)라고 설명하고 있다.

早津의 설명대로 단독 용법에서의 「干す」는 세탁물을 말리기 위한 동작 등에 초점을 두지만, 「干す」가 복합동사의 후향으로 결합한 21)은 대상물의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즉, 「飲み干す」는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지만, 복합동사 전체가 대상의 변화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22b)에서 알 수가 있다12).

- 21) 浩之はコー ヒー カップを口もとに運んだ。知らぬまに飲み干していたのか、一滴

11) 早津恵美子(1989)「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참조.

12) 影山太郎(2001)는 「壁塗」構文」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も残っていなかった。(『あふれた愛』 p.291)

22) a. 洗濯物をも干したが、まだ濡れている。

b.?? グラスのジュースをも飲み干したが、まだ残っている。

이와 같이 대상이 제거 또는 소멸되는 경우는, 후향동사가 본래 변화의 의미를 갖지 않는 무대타동사라고 하더라도, 복합동사 전체로서는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한편, 「込む」라는 동사는 복합동사의 후향이 되면 본동사의 의미가 변하게 되는데, 影山(1993: 13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3)은 전향동사 「押す」가 이동을 함의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후향동사 「込む」에 의해 ヲ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押し込む」는 「押し込める」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3) 莎織に言い、ふたりを先に満員の車両へ押し込んだ。(『あふれた愛』 p.27)

또한 자□타 양용동사 「去る」를 후향으로 하는 24)의 「取り去る」는 [유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으로 「取りのぞく」「取りずてる」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동작+동작] 구조이면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4) グローブを取り去り、それを拾い上げて、もう一つの電話機の投入口に押し入れる。(=14)

분석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는 [무대타동사+유대타동사]형인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동작+동작] 구조인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 및 [유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에 있어서도 [동작+변화] 구조와

마찬가지로 ㄱ格名詞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를 [동작+변화] 구조로 한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본동사의 의미를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의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복합동사 전체가 취하는 격 성분에서 따라 변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2.3 변화 결과의 유무

[수단-결과] 구조의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수단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은, ㄱ格名詞의 변화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작+변화] 구조라고 하더라도 ㄱ格名詞의 변화 결과를 함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25a)와 같은 문이 성립한다는 것은, ㄱ格名詞가 의도한 변화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변화가 있는 경우는 25b)와 같이 나타내게 되지만, 변화가 없는 25a)의 경우, 나무의 재질이 지나치게 단단하다거나 누르는 힘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합동사 「押し潰す」 자체가 그러한 이유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25a)는, 실은 25c)와 같이 ㄱ格名詞에 대한 ㄱ格名詞의 동작이 의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전향동사가 그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25) a. 小さな木箱を押し潰したが、潰れなかった。  
 b. 木箱が潰れた。  
 c. 小さな木箱を押し潰そうとしたが、潰れなかった。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의미관계를 하나

의 패턴으로 범주화하여 어 구조적 측면을 논한 것으로, ㄱ格名詞의 변화 결과의 유무는 어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 레벨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수단-결과] 구조의 패턴을 취하고 있는 복합동사를 ㄱ格名詞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物名詞인 경우, 人名詞 또는 有性名詞인 경우, 事柄名詞인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 2.2.4 ㄱ格名詞의 변화

[수단-결과] 구조의 구성요소가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ㄱ格名詞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ㄱ格名詞에의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ㄱ格名詞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sup>13)</sup>.

### 2.2.4.1 ㄱ格名詞가 物名詞인 경우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가 취하는 ㄱ格名詞는 物名詞가 대부분이다. 26) 27)에서 전항이 나타내는 동작은 ㄱ格名詞의 ㄱ格名詞에 대한 물리적인 동작으로,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6) 猪首は慌てたように灰皿で煙草をもみ消すと、机の上に上半身を乗り出した。

( = 7 )

27) アケビの蔓で編んだ背負い籠に、切り離した頭と手足を収め、その上から毛

13) 孫 東周 (2006)는 유대타동사에 있어서 ㄱ格名詞에의 영향이 있는 경우 (「影響 1」: ㄱ格名詞の意図によってㄱ格名詞へ働きかける場合, 「影響 2」: ㄱ格名詞の動作によってㄱ格名詞へ働きかける場合, 「影響 3」: ㄱ格名詞への影響が動作によるのではなく 原因による場合)와 없는 경우, 그리고 무대타동사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경우 (「ㄱ格名詞に意志がある場合」とい場合)와 없는 경우로 세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에의 영향]은 孫 東周의 분석 결과에 따르고 있다.



皮を被せると、村に帰る準備は全て整った。(『まほろばの疾風』 p.57)

상태 변화와 마찬가지로, 28a) 29a)에서도 전항이 나타내는 동작은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8a)에서는 당기는 동작을, 29a)에서는 치는 동작을 하여 ㄱ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ㄱ格名詞의 변화가 ㄴ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에 의한 결과라는 것은 28b) 29b)의 수동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28) a. 幸乃が頬に笑みをたたえ、本棚からアルバムを引き抜いた。  
(『あふれた愛』 p.290)

b. 本棚からアルバムが引き抜かれた。

29) a. 彼は、鉢のひとつを、床に叩き落とした。(『あふれた愛』 p.37)

b. 鉢のひとつが、床に叩き落とされた。

ㄴ格名詞가 ㄱ格名詞를 내부로부터 외부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기점 또는 이동후의 착점이 ㄴ格名詞의 존재 위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30)은 기점과 착점이 각각 별개의 장소이다.

30) 一メートル四方ほどの雪をかき分け、漬け物石程度の手頃な岩を見つけ、掘  
り出した。(『ホワイトアウト』 p.215)

그러나 31) 32)는 ㄴ格名詞의 신체의 일부인 「口」「鼻」가 기점이 되고 있으며, 소유의 이동인 33)은 ㄴ格名詞가 착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나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 또는 소유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 31) …西瓜の種子を口からほき出しながら、せわしねげにこうきいた。  
(『青の時代』 p.99)
- 32) 「あんたも見かけによらず強情だね」猪首の刑事が、鼻から煙を吐き出しながら言った。(『ひるの幻 よるの夢』 p.53)
- 33) 悪戦苦闘の末、ついに正志が木刀を奪い取ることに成功した。  
(『迎え火の山』 p.443)

단순동사 「拾う」은 34)와 같이 소유의 이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35)의 전향 「拾う」은 「自分の物にする」라고 하는 소유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코스모스를 모으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모으는 방법으로 「拾う」라는 동작을 한 것이다. 이는 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단순동사인 경우와 [수단-결과] 구조의 전향으로 결합했을 때의 의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4) 学校へ行く途中、千円札を拾った。
- 35) この事態をどう受け入れたらいいのか迷いながら、わたしは部屋中に散らばったコスモスを拾い集めた。(『完璧な病室』 p.82)

カ格名詞를 이동시키기 위해 ガ格名詞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36)의 「担ぎ込む」, 37)의 「持ち出す」가 그것인데, 위치 변화에 대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 36)의 전향동사 「担ぐ」는 어깨 등에 짊어지는 동작을, 37)의 전향동사 「持つ」는 「手の中に入れて保って」 혹은 「手に取って」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 36) 「そうらしい。この人も病院に担ぎこまれたが、たいした負傷ではなかったらし

い」(『砂の器』 p.171)

37) それでも足りなく、ほかの椅子を持ち出して、横に並べた。

(『砂の器』 p.118)

「担ぐ」「持つ」뿐 아니라 무대타동사 「運ぶ」도 이동 동작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38)의 후향동사 「込む」, 39)의 후향동사 「入れる」에 의해 복합동사 전체가 ㄴ格 명사구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도착 지점을 알 수 있게 된다.

38) 大人になってからも、バイトに行(朝)の電車の中で何度も倒れ駅員室に運びこ  
まれた。(『恋愛中毒』 p.135)

39) 色白の若い職員がおしめの入った段ボール箱をベッドの下に運び入れる。

(『完璧な病室』 p.88)

그런데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라고 하더라도, 40)과 같이 전향동사가 직접적인 수단 즉, 동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差し出す」의 전향 「差す」는 「前へ」라는 방향의 의미로, 「突き出す」의 전향 「突く」는 「出す」동작을 강조하는 의미로 결합하고 있다.

40) 三好が写真を差し出した。女性は反射的に顔をそむけるようにして、視線だけを写真の上に注いだ。

「小さな写真ですから、手に取って見てくれませんか」

三好はぶっきらぼうに言って、写真をいっそ突き出した。

(『伊香保殺人事件』 p.142)

40)의 「差し出す」「突き出す」를 41a)와 같이 수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에 의한 7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지만, 41b)와 같이 「～して～する」라는 의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향동사가 본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1) a. 写真が差し出された。 / 写真が突き出された。

b. \* 写真を差しして出した。 / \* 写真を突いて出した。

이와 같이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가 취하는 7格名詞가 物名詞인 경우는, 전향동사의 물리적인 동작에 의한 7格名詞의 상태 혹은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본의를 갖지 못하면 「V1することによってV2する」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물리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7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2)는 カ格名詞가 7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7格名詞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더구나 전향동사 「踏む」 동작에 의해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접촉에 의한 결과이지 カ格名詞의 의도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42) 二人の愁嘆場を尻目に、刑事連中が留置場のドアを出たとき、廊下をドタドタ踏み鳴らして署長がやってきた。(『伊香保殺人事件』 p.51)

43)에서도 「鳴る」라는 행위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7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43) タイプライターで床を打ち鳴らし、教室の生徒に知らせる。

(『密やかな結晶』 p.243)

또한 44a)는 「麻の紐」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저절로 낡게 변한 상태를 나타낸 경우로, 가격명사의 동작이 카격명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카격명사의 변화에 대한 가격명사의 의도는 없다는 것을 44b)에서 알 수 있다.

44) a. 落ち着いた頃を見計らって彼は、麻の紐をほどいた。それはすっかり使い古  
され、ささくれてしまっていた。(『余白の愛』 p.197)

b. \* 彼は麻の紐を使い古そうとした。

이와 같이 가격명사의 물리적인 동작이 카격명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있으나, 카격명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카격명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격명사가 물명사인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명사의 의지적인 동작이 카격명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카격명사의 상태 변화 혹은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2.2.4.2 카격명사가 人名詞 또는 有性名詞인 경우

人名詞가 카격을 취하게 되면 물리적인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물명사의 경우처럼 다양하지가 않다. 45)는 카격명사가 무의지적인 물명사와 같이 취급된 경우이다. 이에 비해 46)에서는 「風間さん」이 「ぼく」를 밖으로 밀어낸 경우이기에는 하나 카격명사 「ぼく」의 동작성은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45) 「おまえには日浦の気持ちなんか何もわからないんだ」哲朗は寢室のドアを開け、理沙子を中に向かって突き飛ばした。彼女は絨毯の敷かれた床に倒れ込んだ。(『片想い』 p.119)
- 46) 風間さんはぼくを外に押し出すと、「ごめんなさいね」ともう一度言い、玄関の扉を閉めてしまった。しばらくは門の前で待っていた。風間さんはなかなか玄関から出て来なかった。…ぼくは言われた通り、家へ戻った。

(『奇跡の人』 p.70)

대상이 人名詞인 경우는 물리적인 동작에 의하지 않고도 위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즉, ㄱ格名詞의 사고, 지적 활동이 관여하기 때문에, ㄴ格名詞는 언어행위라든가 몸짓, 손짓 등으로 대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7)~49)는 人名詞의 의지성과 동작성이 관여하므로, 타동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태 성립의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孫(2005: 164) 14)의 분류에 따르면, 47)은 [강제2], 48)은 [설득]의 의미를, 49)는 「横山さん」이 방문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의 의미를 갖게 된다.

- 47) 克己が守ってやってたんだよ、高校の時からさあ。十七やそこらで店に出てるなんて聞くと、軽い女だって見られたりするじゃないか。それで、おかしい野郎たちに結構言い寄せられたりしてたみたいだったから」

(『奇跡の人』 p.343)

14) 孫 東周 (2005a) 「第5章 使役構文」 참조.

[強制2]: 使役主体가被使役者の意志を無視してある動作をするように仕向ける場合として、被使役者の意志よりは使役主体の意圖が強い場合.

[説得]: 被使役者に行爲に対する意圖はないが、使役主体가被使役者にある動作をするように唆して行爲を實現させる場合.

[許諾]: 使役主体가初めから意圖をもって被使役者にある行爲をさせ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被使役者の要請によって使役主体가承認した場合.



- 48) 「梶川さんは最近、携帯電話を所持するようになって、緊急の場合など、お得意さんから、いつでも連絡がつくようにしていました。現に、梶川さんはそのとき、多田さんに名刺らしき物を渡していたそうですから。多田さんはその電話番号を『X』に伝えたと思います。『X』はとにかく舞鶴へ飛んで、市内か付近からその番号にダイヤルし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して『X』は梶川さんを街へ誘い出した。…」(『蜃気楼』p.313)
- 49) どうぞ、とよくは言って、横山さんを招き入れた。(『奇跡の人』p.212)

가격名詞의 언어 행위는 위치 변화뿐 아니라, 50) 51)과 같이 ㄱ격名詞로 하여금 사고 또는 판단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설득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50) だが今週、退院が決まると 彼女自身がマンションに帰ると言い出し、反対する両親も説き伏せた。(『あふれた愛』p.64)
- 51) 「すんません、兄貴。…俺があとでみっちり言い含めておきますから、勘弁してくだせえーって、どうしたんです、兄貴、ぼうとしちまって」  
(『邂逅の森』p.269)

ㄱ격名詞의 사고, 지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人名詞와 有性名詞에는 차이가 있다. 52) 53)은 어느 경우도 가격名詞가 ㄱ격名詞에 직접 물리적인 동작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52)에서 기자들이 현장 밖으로 내몰린 것은 언어 또는 문서 등에 의한 지시의 결과로 [설득]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 53)은 가격名詞가 산등성이에 잠복하여 뭔가의 방법으로 「アオシ」를 내몰아서 강제로 위치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追う」<sup>15)</sup>라는 동사가 대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距離をおいた対象を目指して、それにとどこうと後から急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

- 52) それに、警視庁 詰めの各社記者が五六人ついてきていた。もっとも 記者の方は、現場からかなり離れたところに追っ払われていた。(『砂の器』 p.18)
- 53) アオシシが逃げる前に岩場の上に位置する尾根筋に回り込み、上から谷底に向かって追い落として仕留める。(『邂逅の森』 p.8)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54)는 조난을 당하여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男」를 무리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格名詞가 발밑의 눈을 파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 54) 呼びかけたが、男は何の反応も見せなかった。…男の額に手を當てた。寒風吹きさぶ中だというのに、火のついたメタのように熱かった。…熱のせいで足を滑らせ、沢へと滑落したに違いない。富樫がウイスキーを口に含ませてやる間に、吉岡が男の足元の雪を掘り進めていった。かき出すそばから、風に乗って新たな雪が回り込んでくる。
- …どう呼びかけても、男は体を震わせる以外に反応がない。富樫が男の体を揺すろうとすると、たまりかねたように吉岡が立ち上がった。
- 「時間の無駄だ。担いで行くぞ」(『ホワイトアウト』 p.22)

행위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54 a)에서 알 수 있듯이 전향동사의

---

15) 斎藤倫明(2002)는, 「語構成論から見た語「追う」の意味形成」에서, 「追う」와 유의어 「追い掛ける」 「追っ掛ける」와의 비교를 통하여, 어구성론의 입장에서 어 「追う」의 의미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형성되는가를 논하고 있다.

동작이 이동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 54 b)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전향동사 「掘る」 동작에 의해 변화하는 것은 「雪」 이기 때문이다. 즉, 전향의 동작은 ㄱ格名詞 「雪」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는 있지만, 후향동사 「進める」가 나타내는 것은 ㄱ格名詞의 변화가 아니라 ㄴ格名詞 「吉岡」의 이동이다. 따라서 ㄱ格名詞를 취하는 전향동사 「掘る」가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후향동사가 ㄱ格名詞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구성요소 간에 [수단-결과] 구조와 같은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54) 'a. 前へ進めるために雪を掘る。  
b.? 雪を掘ることによって前へ進める。

전후 시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掘る」 동작이 선행하고 「進める」라는 이동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54'a)와 같은 「V1してV2する」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동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이동하는 동안에 「掘る」 동작이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4'b)와 같이 「V1しながらV2する」 즉, 동시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전향동사 「掘る」가 「進める」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태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전향과 후향은 동시적이면서도 대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합동사 「掘り進める」는 타동적 행위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ㄴ格名詞의 이동에 목적이 있으며, 긴박한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대상황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54)" a. 雪を掘って前へ進める。  
b. 雪を掘りながら前へ進める。

이와 같이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는 동사의 의미, 행위의 목적, 격 성분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문맥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동사가 그러하듯이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구조들 간에 자리매김하는 「掘り進める」와 같은 복합동사가 존재함으로써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4.3 カ格名詞が 事柄名詞인 경우

[수단-결과] 구조의 전향동사는 物名詞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カ格名詞가 추상적인 事柄名詞인 경우는 의미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V1することによってV2する」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6)</sup>.

「噛み砕く」는 통상 55)와 같이 物名詞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56a)에서는 「難しい事を分かりやすくする」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森田 (1978)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て」형의 삽입 뿐 아니라 수동 표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56b) 56c)에서 알 수가 있다.

55) わたしはキュウリのサンドイッチを左側の歯でそと噛み砕いた。

56) a. その数字をかみくだぐのに、少し時間がかかった。

(『完璧な病室』 p.25)

b. \* 彼女はその数字をかんでくだった。

c. \* その数字が彼女にかみくだかれた。

16) 연어론에서는 「連語の内部に存在している単語のあいだのむすびつき方」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奥田靖雄 (1983)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참조.

형태상으로는 [동작+변화] 구조라 할 수 있는 「叩きつぶ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7)에서는 본의를 가지고 있으나, ㄱ格名詞가 事柄名詞인 58)에서는 복합동사 전체가 「完全に負かす」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전향동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57) 蠅を叩きつぶした。

58) ( おれが警察庁長官になったら、暴力団を叩きつぶすのだが— )

浅見がそ思ったとき、目の前のト男が彼をけたてて立ち上がった。

( 『伊香保殺人事件』 p.107 )

즉, 物名詞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事柄名詞를 ㄱ格으로 취하게 되면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표정이나 감정 따위를 억제한다는 의미의 59)라든가, 일상적인 평온함을 깨뜨려버렸다는 의미로 사용된 60)과 같은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59) 男は最大の努力を払って、憤怒と殺意を押し殺している。

( 『伊香保殺人事件』 p.276 )

60) ほんとに嬉しそうで、幸せそうだった。空は抜けるような青空で、誰もが笑っていた。だが、教会の事務室から駆け戻ってきた真壁さんのお父さんの言葉が、すべてを、打ち砕いてしまった。おねえちゃんはブーケを投げ捨てて救急病院に向かい、ウェディングドレスのまま、真壁さんを見送った。

( 『101回目のプロポーズ』 p.16 )

61)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직접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을, 62)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61) 無念の中で死んでいった仲間の心を鎮め、彷徨いつづけている彼らの魂を神の国へと送り届けること。(『まほろばの疾風』 p.200)

62) 子どもを幼稚園に送り届けた。

「取<sup>レ</sup>寄せる」「手繰<sup>レ</sup>寄せる」등이 物名詞나 人名詞에 대한 물리적인 동작의 경우는,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나, 63)에서는 기억 등을 [더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유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64)의 경우, 가<sup>カ</sup>格名詞 「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여행할 권리 혹은 자격을 획득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63) わたしはこの一連の記憶をぼんやりとたぐり寄せた。(『完璧な病室』 p.21)

64) とにか<sup>レ</sup>く愛人一号美代子が行くはずだった旅を、私は自分の力で奪い取ったのだから。(『恋愛中毒』 p.71)

65)는 맹장염이 원인이 되어 그것을 방치하여 초래하게 된 결과인 「腹膜炎」이 가<sup>カ</sup>格을 취하고 있다. 전향동사 「引<sup>ク</sup>」는 본의를 잃고 있으며, 가<sup>カ</sup>格名詞 자신의 신체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재귀용법으로 볼 수가 있다.

65) 盲腸炎が悪化し、腹膜炎を引き起こしたらしい。(『あふれた愛』 p.204)

또한 66)에서는 가<sup>カ</sup>格名詞가 강한 의지로 가<sup>カ</sup>格名詞를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가<sup>カ</sup>格名詞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データ」 자체에도 아무런 변



화가 없다.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カ格名詞 자신의 지적 상태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67)도 カ格名詞의 사고에 변화를 갖게 된 것으로 무의지적인 사태가 성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66) 富樫は吉岡の披露してくれた土木に関するデータを、必死になって思い起こした。(『ホワイトアウト』 p.190)

67) その明瞭な輪郭は網膜にはりつき、いくら走っても近づいてこないような錯覺を呼び起こした。(『完璧な病室』 p.85)

松本(1998: 65)는 「書き取る」「読み取る」「聞き取る」의 경우, 후향동사 「取る」는 <言語的情報を捕らえること> 즉 물체의 획득에 비유한 것<sup>17)</sup>이며, 전향동사가 수단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68)은 松本の 설명대로 「書く」라는 행위에 의한 언어적 정보의 획득을 나타내고 있다. 무형의 음성을 유형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후향이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カ格名詞에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カ格名詞의 「書く」동작은 カ格名詞 「声」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의미상으로는 「V1することによってV2する」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68) そして、よや<声>を取り戻して、恐る恐る喋っている元心因性失声症患者的の危うい<声>を、一つ残らず書き取ってゆ<Y>の指について想像した。

(『余白の愛』 p.41)

17) 지각 또는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유 뿐 아니라, 이동을 나타내는 후향동사와 결합한 복합동사 「読み進む」「読み通す」「見下ろす」「言い落とす」와 같이, 공간 개념으로 의미 확대되기도 한다.

「見る」「聞く」「読む」등도,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물체의 획득에 비유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カ格名詞*의 사고 혹은 지적 판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내면적인 [재귀용법]<sup>18)</sup>이 관여된다고 볼 수가 있다. 69)는 메모에 적힌 내용을 간파한 경우이다.

69) 甥は翻訳家にメモを差し出したが、すばや横目でわたしはそれを読み取った。(『ホテル□アイリス』p.188)

이와 같이 *事柄名詞*가 *ヲ*격을 취하게 되면 복합동사의 의미 또한 추상화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합동사의 형태만으로 [수단-결과] 구조를 논하기는 어렵다.

## 2.2.5 수동 표현과의 연관성

수동 표현의 가부가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カ格名詞*의 변화가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에는 70 b)와 같은 수동 표현이 가능하다.

70) 「…ここは夜の勤めの女の人が多いもので、夜中に腹痛なんかおこして、叩き起こされることが多くて、それでこっちから頼んだようなものです。…」  
(『蜃気楼』p.239)

18) 仁田義雄(1982a)는 「<再帰>とは、動作主から出た働きかけが結局は動作主自身に戻って来ることによって、動作が完結するといった現象を言う」と 설명하고 있다. 재귀용법이 대상에의 영향은 있으나 *カ格名詞*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타동성이 약한 타동사의 경우는 대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カ格名詞* 자신의 지적 판단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론으로 말하자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재귀용법]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70) 'a. 夜の勤めの女の人が私を叩き起こした。

b. 私は夜の勤めの女の人に叩き起こされた。

그러나 카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양태구조 즉, 후향동사가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71)과 같은 수동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72)와 같이 가格名詞의 의지와 무관한 사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私」의 입장에서 수동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71) 隣のテーブルは女が三人男が二人の五人グループだった。ずいぶん前から飲んでいらしく、つまみは食べ散らかされ、皆わけの分からないことを言って小突きあっては馬鹿笑いをしている。(『恋愛中毒』p.224)

72) まだおぼつかない足取りで階段を降りはじめた時、次の下り電車がホームに滑り込んで来た。私がのろのろしているうちにドアから吐き出された乗客達がどっと階段に押し寄せて来て、私はまた肩を突き飛ばされる。

(『恋愛中毒』p.136)

일본어에 있어서는 자연 현상이나 物名詞의 자연 상태 변화를 수동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73a) 74a)는 자연 현상으로 가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73b) 74b)에서 알 수 있듯이 타동사문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格名詞에 카格名詞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의인 용법화한 가格名詞가 카格名詞에 영향을 준 결과로서의 위치 이동인 것이다. 따라서 73b) 74b)의 「吹き寄せる」「打ち上げる」를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는 없다.

73) a. 桜の花びらが風に吹き寄せられ、足もとにたまってゆく。

(『あふれた愛』 p.173)

b. 風が桜の花びらを(足もとに)吹き寄せた。

74) a. …浜辺で異変が起こった。大量の魚の死骸が打ち上げられたのだ。

(『ホテル□アイリス』 p.191)

b. 大波が魚の死骸を浜辺に打ち上げた。

物名詞의 위치 혹은 상태 변화 뿐 아니라, 75)와 같이 형용사문에 가까운 가격名詞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수동 표현은 가능하나 대응하는 타동사문을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75) 深紅は吉住が硬い仮面をかぶっていると言ったが、杉園も同じようなものだ。

彼の仮面はジョークと虚勢で塗り固められている。(『栄光一途』 p.125)

가격名詞의 변화가 원인에 의한 경우도 있다. 「引き寄せる」의 경우, [수단-결과] 구조인 76)의 전향동사는 가격名詞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나, 77a)는 「絵」가 원인이 되어 사태가 성립한 경우이다. 77b)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名詞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준 동작주는 없으며 가격名詞의 의도성도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77b)의 「引き寄せる」도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가 없다.

76) 甥は空になった皿を奥へやり、まだ手をつけていない新しい皿を手前に引き寄せた。(『ホテル□アイリス』 p.170)

77) a. 私は美しい少女の絵に、しぜんと引き寄せられた。

b. 少女の絵が私を引き寄せた。

더구나 カ格名詞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78a)에 대응하는 타동사 문 78b)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78) a. 私は大きな無力感に押しつぶされ、力な運轉席のドアを開けた。

(『恋愛中毒』 p.99)

b. ? 無力感が私を押しつぶした。

カ格名詞의 변화가 カ格名詞의 무의지적인 동작에 의한 경우는 79a)와 같이 「～てしまう」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복합동사의 전향은 무의지적인 동사라야만 가능하다. 79b)의 「滑り落とす」는 [수단-결과]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80)의 「滑り落とす」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滑り落とす」「叩き落とす」는 79c) 79d)와 같이 수동문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나, 79c)의 전향동사는 무의지적인 동작인데 비해 79d)의 전향동사는 의지적인 동작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79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향동사 「叩く」가 무의지적인 동작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手が滑って」와 같은 부사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叩き落とす」와 같은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79) a. 手が滑って、鏡を落としてしまった。

b. うっかりと鏡を滑り落としてしまった。

c. 私は妹に鏡を滑り落とされてしまった。

d. 私は妹に鏡を叩き落とされてしまった。

e.? 手が滑って、鏡を叩き落としてしまった。

80) 薫は、滑り台のてっぺんにしゃがみこんで缶ビールを飲み、尚人は、薫が滑り



落とすビール空き缶を下で受け止める。(『101回目のプロポーズ』 p.231)

실제로 무의지적인 동작 혹은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79a)와 같이 「～てしまう」의 형식을 취한 타동사문도 있지만, 81) 82)와 같이 변화 결과에 초점을 둔 자동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81) 林が途切れ、小さな沢へと続緩い斜面を駆け下っていた時、下生えに足が絡まり、前のめりに転倒してしまった。勢いのついた身体が、ごろごろと斜面を転がり落ちていく。(『まほろばの疾風』 p.19)
- 82) 学校から帰ってすぐ、祖父の右腹に埋め込まれた管の消毒と、その先の袋にたまった体液を捨てるのがわたしの役目だった。母がそう命令した。管に触るのは怖かった。少しでも乱暴にするとすっぽり抜け落ち、その穴からただれた内臓が噴き出てきそうな気がしたからだ。(『ホテル□アイリス』 p.13)

이와 같이 수동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를 모두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는 없다. 孫(2005a: 25)의 설명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孫은, ㄱ格名詞의 변화가 자연 현상이나 부주의에 의한 경우 혹은 원인에 의한 경우에 대해, 「ㄱ格名詞의 変化を意圖したㄱ格名詞の動作ではなく、ㄱ格名詞の変化結果によるㄱ格名詞の動作と原因であるので、ㄱ格名詞に変化が生じてはじめて文として成り立つわけであ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ㄱ格名詞의 변화가 ㄱ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만이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수동 표현의 가부가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2]에서 언급했듯이, 松本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만을



수단 복합동사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手段複合動詞と考えられるものは全て、いわゆる他動詞 / 非能格動詞同士の組み合わせとな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능격동사]<sup>19)</sup>라는 것은, 「走る、歩む、踊る、さわる」 등과 같이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자동사이다. カ格名詞가 스스로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능격동사+비능격동사]로 결합된 83)이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착점 「二格」을 취하고는 있지만 전향동사는 이동의 양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0)</sup>.

83) チカちゃんがお母さんに駆け寄った。(『奇跡の人』p.116)

물론 후항이 カ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나타낼 경우, 전항을 위치 변화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양태로 볼 것인가라는 점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치 이동과 관련하여 [제 4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V1してV2する」라는 형식을 취하는 복합동사 중, 특히 「V1することによってV2する」관계인 경우를 [수단-결과] 구조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의미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4) [수단-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및 성립 조건

- (1) カ格名詞의 변화가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만이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19) 影山太郎 (1993)의 『文法と語形成』第2章 참조.

20) 松本 曜 (1998)는 「滑り降り」「駆け降り」「舞い降り」등을 「前項が後項の様態□付常状況を表すもの」로 분류하고 있다.

(2)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작이어야 하며, *カ格名詞*의 상태 혹은 위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3) 내부구조

① 전형적으로는 [무대타동사+유대타동사]형의 [동작+변화] 구조이다. (예) 7) 「もみ消す」 / 29) 「叩き落とす」

② 대상이 제거 또는 소멸되는 경우는, [동작+동작] 구조라도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는 단순동사의 의미와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의미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 : 19) 「投げ捨てる」

b. [유대타동사+무대타동사]형 : 24) 「取り去る」

(4) *カ格名詞*의 변화

① 物名詞인 경우 : 물리적인 동작에 의한 상태 또는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예) 27) 「切り離す」 / 35) 「拾い集める」

② 人名詞인 경우 : 물리적인 동작에 의하지 않고도 위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 행위 등으로 *カ格名詞*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人名詞의 의지성과 동작성이 관여하므로 사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 47) 「言い寄せる」 (강제2) / 48) 「誘い出す」 (설득) /

49) 「招き入れる」 (허락)

③ 事柄名詞인 경우 : 복합동사의 의미변화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히 복합동사만을 제시하거나 개념구조만으로 [수단-결과]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5) 수동 표현의 가부가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이 될 수는 없다.

A. カ格名詞의 변화가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

예) 70) 「叩き起こされる」

B. カ格名詞의 변화가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경우

① 자연 현상 : 74a) 「打ち上げられる」

② 속성 : 75) 「塗り固められる」

③ 원인 : 77a) 「引き寄せられる」

④ 심리상태 : 78a) 「押しつぶされる」

⑤ 무의지적 동작 : 79c) 「滑り落とされる」



## 제 3장 [원인-결과] 구조

### 3.1 [원인-결과] 구조란

[원인-결과] 구조란 1)의 「喋り疲れる」와 같이, 전향동사가 カ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나타내는 구조이다. 타동성 조화의 원칙<sup>21)</sup>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사문에만 존재한다.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와 파생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 1) 誰もが黙って、高津の狂乱を挑めていた。喋り疲れた高津も、虚しくなったのか、肩で息をしながら、沈黙した。(『蜃気楼』p.332)

### 3.2 [원인-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影山(2001)는 일영 대조 연구를 통하여, 두 종류의 [결과 구문]에 대해

- 21) 影山太郎(1993)는 복합동사 결합의 가부는 외항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타동성 조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타동성 조화의 원칙이란, 복합동사는 외항을 취하는 동사끼리 결합이 가능하고(타동사+비 능격 자동사), 외항을 취하지 않는 비 대격 자동사는 비 대격 자동사만으로 구성된다. 비 능격 자동사는 의미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동작주를 주어로 취하며, 비 대격 자동사는 의도성이 없는, 수동적으로 사태에 관여되는 대상을 주어로 취하는 자동사이다. x가 외항 y가 내항을 나타낸다.

- a. 他動詞: (x < y)
- b. 非能格自動詞: (x < >)
- c. 非對格自動詞: < y >

影山太郎는 이러한 원칙이 모든 복합동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1) 보문 관계의 통어적 복합동사, 2) 「打ち上げる」「舞い上がる」에서 파생된 「打ち上がる」「舞い上げる」, 3) 「上がる」와 같이 타동사(「運び上がる」) 비 능격 자동사(「駆け上がる」) 비 대격 자동사(「浮かび上がる」)와 자유로이 결합하는 경우, 4) 「去る」와 같이 項構造가 아닌 意味構造에서 복합하는 경우. 影山太郎(1993)第3章 참조.

논하고 있다. 즉, 주동사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본래적인 결과 구문과, 의미구조의 합성에 의한 파생적인 결과 구문으로 나누고, [원인-결과] 복합동사를 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sup>22)</sup>.

松本(1998)는 影山에서 주장하고 있는 [타동성 조화의 원칙]의 문제점 즉, 비 대격 자동사와 비 능격 자동사를 구분하는 기준<sup>23)</sup>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휘적 복합동사 중 타동성 조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부의 복합동사에 관해서는, 「주어 일치의 원칙과 의미 구조에서의 제약」<sup>24)</sup>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松本(1998: 55)는 본 연구에서의 [원인-결과] 구조를 「後項が状態変化を表し、前項がそれを引き起こす原因となる出来事を表す複合動詞」라 하여, [동작주적] [비 동작주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2)와 같이 분류하고, 주어 일치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이러한 복합동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후향동사가 비 동작주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sup>25)</sup>.

22) 본래적인 결과 구문은, 1)과 같이 일본어와 영어 모두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러나 파생적인 결과 구문은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는 성립하지만 일본어에는 영어식의 개념 합성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신에 복합동사라는 표현형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a. The antique vase shattered into a million pieces.

a'. 骨董物の花瓶が粉みじんに壊れた。

2) a. He drank himself into a stupor.

a'. \*彼は(身体を)グデングデンに飲んだ。

影山太郎(2001)『動詞の意味と構文』第6章 結果構文 참조.

23) (1) N-V 複合名詞の可能性 (2) 数量詞の解釈 (3) 格助詞の脱落 (4) 「動詞名詞+する」における格 (5) 総称的 PRO 主語の可能性 (6) 間接受身の可能性 (7) 使役受身の可能性 (8) 命令形の可能性 など.

24) 松本 曜(1998)通例、二つの動詞の主語として実現する項が同一物を指す、というもので、主語になるものであれば外項同士(あるいは内項同士)である必要はない。この点で他動性調和の原則より緩い制約である。これに、意味構造に課せられた意味的諸条件が重なって各タイプの複合動詞が制約される。

25) 影山太郎(2002)는, 松本 曜(1998)의 분석—주요부(V2)의 의미구조를 토대로 하여, V2에 내재하는 수단이나 양태의 의미 성분에 V1의 의미구조를 보충한다—에 대해, 의미를 중시한 나머지 통어 구조와의 대응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차성분의



- 2) a. 非動作主的+非動作主的 : 降り積もる, おぼれ死ぬ, 焼け死ぬ, 抜け落ちる, あふれ落ちる, 焼け付く
- b. 動作主的+非動作主的 : 泣きぬれる, 泣き沈む, 飲みつぶれる, 食いつぶれる, 働きくたびれる, 走りくたびれる, 走り疲れる, 立ち疲れる, 読み疲れる, 聞き知る, 寝違える
- c. 非動作主的+動作主的 : \*疲れ座る, \*転び叫ぶ, \*白け帰る,  
\*恐れ去る
- d. 動作主的+動作主的 : \*聞き帰る, \*見向かう, \*見逃げる,  
\*食べ叫ぶ

影山(200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2a)에서 「降り積もる」<sup>26)</sup> 「あふれ落ちる」 등은 자연 상태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을 뿐 [원인-결과] 구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눈이 내려 저절로 쌓이게 된 자연 현상일 경우,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왜 쌓여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2b)와 같은 [원인-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에는 동작성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走る」와 같이 力格名詞의 의지성도 관여하고 있다.

森田(1978: 77)의 논고를 참고로 한 姫野<sup>27)</sup>는 병렬관계의 하위분류로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타동사+타동사] 혹은 [자동사+자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외의 뚜렷한 차이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충과 [항의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구조는, V2 개념구조의 부차성분을 보충하거나 항의 위치에 V1의 개념구조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복합동사의 전향동사가 원인, 후향동사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여 「歩き疲れる」 「溺れ死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6) 影山太郎(2002)는 「松本(1998)が挙げている結果複合動詞の例はほとんどが不自然であるか(例「働きくたびれる」)、あるいは原因-結果の意味に該当しない(例「降り積も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27) 姫野昌子(1999)第2章 複合動詞の結合パターン 참조.



- 3) 手段□原因 : 縫いつける → 縫って(縫うことにより)つける  
 焼け死ぬ → 焼けて(焼けることにより)死ぬ

이와 같이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동사에 관해서는 주로 影山과 松本에서 논하고 있으며, [원인-결과] 구조가 [타동성 조화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논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원인-결과] 구조의 패턴은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으며,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는 물론, 파생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에 대해서도 影山과 松本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와 파생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1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

#### 3.2.1.1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

어떤 복합동사를 [원인-결과] 구조로 볼 것인가는 [제 2장]에서 분석한 [수단-결과] 구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우선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는 각각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에서의 복합동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수단-결과] 구조인 4a) 「押し倒す」의 전항 「押す」는, カ格名詞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으로, 후항 「倒す」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sup>28)</sup>, 영향을 받은 カ格名詞의 변화 결과는 4b)와 같이 대응하는 자동사가 나타낸다. 따라서 [수단-결과] 구조는 타동사문에서만 존재하며, [타동사+타동사]로 구성된 [동작+변화] 구조이다.

28) 石井正彦(1983a) 「現代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における一観点」 참조.

4) a. 子どもが雪だるまを押し倒した。

b. 雪だるまが倒れた。

반면, [원인-결과] 구조의 기본적인 패턴은 姫野 (1999)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이다. 그러나 [원인-결과] 구조에는 「待ちくたびれる」와 같은 [타동사+자동사] 형과 「泣きはらす」와 같은 [자동사+타동사]형이 있다. 「泣きはらす」에 대해서는 [3.2.1.3]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우선 [타동사+자동사]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원인-결과] 구조인 5)의 「待ちくたびれる」는 전항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타동사문의 ㄱ格名詞와 무관한 가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 ヒロがまた呼んだ。これ以上長く、ここにとどまることはできそうもなかった。二人は待ちくたびれているし、いつまた雪が降りだすかもしれないし、閉館時間がきて扉が閉ざされるかもしれなかった。(『余白の愛』 p.156)

「待つ」라는 동사는 6a)와 같이 ㄱ格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ㄱ格名詞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ㄱ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부대상황과 더불어 가格名詞가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6b)와 같이 가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본동사 「待つ」는 6a)와 같이 ㄱ格을 취하지만, 복합동사 「待ちくたびれる」는 6c)와 같이 ㄱ格을 취하지 않는다<sup>29)</sup>는 점에서, [원인-결과] 구조

29) 影山太郎 (2002) 의 설명에 따르면, 원인 항 부분에 V1의 개념 구조가 대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자동사문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항이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후항에는 반드시 자동사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타동사+자동사]로 구성된 「待ち<sub>く</sub>た<sub>び</sub>れる」는, 전항이 *カ格名詞*의 동작(행위)을 나타내고 후항이 동작에 의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변화] 구조이다<sup>30)</sup>.

이와 같이 [원인-결과] 구조의 전항은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대상(*カ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カ格名詞*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단-결과] 구조의 전항과 차이가 있다.

- 6) a. 太郎が次郎を待った。  
b. 太郎が待ち<sub>く</sub>た<sub>び</sub>れた。  
c. \* 太郎が次郎を待ち<sub>く</sub>た<sub>び</sub>れた。

관여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는 구분될 수 있다. [수단-결과] 구조는 7)~9)와 같이 *物名詞*, *人名詞*, *事柄名詞* 등, 어느 경우이든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인-결과] 구조는 10) 11)과 같이 오로지 *人名詞* 혹은 *人名詞*의 신체의 일부분만이 관여하고 있다. 즉,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는 *人名詞*에만 관여하는 복합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7) a. 太郎が木の枝を切り落とした。  
b. 木の枝が落ちた。

30) [변화]와 [상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孫 東周(2005a)의 『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를 참조.

- 8) a. 母は花子を揺り起こした。  
b. 花子が起きた。
- 9) a. テーブルの汚れを拭き取った。  
b. 汚れが取れた。
- 10) 広場の宴はまだ続いていたが、人の姿はだいぶ減っていた。残っている者も  
酔い潰れている者が大半。(『おほろばの疾風』 p.133)
- 11) 梶川優子は祖父の名誉に関わると言わんばかりに、泣き腫れた目で今峰を睨  
んだ。(『蜃気楼』 p.54)

분석한 바와 같이 [수단-결과] 구조는 가격名詞의 카격名詞에의 영향과 카격名詞의 변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원인-결과] 구조는 가격名詞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수단-결과] 구조는 하나의 사태를 타동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고, [원인-결과] 구조는 자동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단 또는 원인으로 구분되는 복합동사의 구조는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의 차이이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표현한 것인가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타동사+타동사]로 구성된 타동사문의 복합동사라고 하더라도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2)의 전항 「履く」는 「着る」「浴びる」등과 함께 재귀동사로 분류된다. 「履き潰す」의 경우, 전항이 나타내는 가격名詞의 동작이 카격名詞 「トレーニングシューズ」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격名詞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3)의 전항 「使う」<sup>31)</sup>역시

31) 森田良行(1984)는 「使う」의 용법을 [(1)手段□方法□道具□労働力として一時的に利用する場合と (2)材料□原料□素材などとして消費する場合]로 분류하고 있다. 「タオルを使う」의 경우, 카격을 취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변화의 대상은 아니다. (1)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タオル」의 기능 혹은 능력을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カ格名詞 「タオル」를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아님을 14)와 15)에서 알 수가 있다. 「乗 りつぶす」등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履く」「使う」「乗る」와 같은 행위의 반복이, 「潰す」「古す」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12) 髪の毛を落とさないように帽子をかぶり 女性會員が履き潰して捨てたのを絵津子が拾ってきたというトレーニングシューズを履いてきた。

(『栄光一途』 p.376-377)

- 13) それから自分の着ていた毛玉だらけのセーターを脱ぎ、使い古したタオルのようにくるくると丸めてバッグに押し込むと まるではかな〈破れやすいものをまとうように、ゆっくりと新しいセーターに腕を通した。(『密やかな結晶』 p.40-41)

- 14) ? トレーニングシューズを履き潰そう。

- 15) ? タオルを使い古そう。

12) 13)은, 카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수단-결과] 구조와 구별되나, 결과적으로 상태 변화한 것은 카格名詞라는 점에서 [원인-결과] 구조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타동사+타동사]형의 복합동사로 [동작+변화] 구조이면서도, [수단-결과] 구조로도 [원인-결과] 구조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합동사는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로 간주할 수가 있다. 타동사와 자동사가 타동성 및 자동성이라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동사 역시 구조적인 연속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2.1.2 [원인-결과] 구조 성립의 전제 조건 ( I )

影山 ( 2004 ) 는 복합동사 전향과 후향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에 있어서 병렬, 양태, 보문 구조는 「 $t_1=t_2$ 」, 수단 및 원인 복합동사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 $t_1 \square t_2$ 」로 나타내고 있다<sup>32)</sup>. 즉 병렬, 양태, 보문 구조의 시간적인 관계가 거의(완전히) 동시적임에 비해, 수단 및 원인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다소간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sup>33)</sup>. 그러나 「 $t_1 \square t_2$ 」라는 시간적인 전후 관계만으로는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의 뚜렷한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影山에 덧붙여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수단-결과] 구조 16)의 「押し倒す」에 비해 [원인-결과] 구조 17)의 「焼け死ぬ」가 시간적인 폭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6) a. 雪だるまを押したら10分後に倒れた。  
b.? 雪だるまを押したら30分後に倒れた。  
c.?? 雪だるまを押したら1時間後に倒れた。
- 17) a. 人が焼けて10分後に死んだ。  
b. 人が焼けて30分後に死んだ。  
c. 人が焼けて1時間後に死んだ。

그렇다면 시간적인 전후 관계 외에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없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원인

32) 影山太郎 ( 2004 ) 第11章 「複合動詞と句動詞」 참조.

33) 「木を切り倒した」と言うとき、「切る」とい行為が「倒す」とい行為の直接的な手段でなければならない。ある日、切れ目を入れておいた木が、数日たってから倒れたとしても、「切り倒した」とは言えない。「切り倒す」はあくまで一体の行為である。



「결과」 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와 더불어 [과잉], 즉 「過ぎる」라고 하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과정이 의미상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원인-결과] 구조 성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過ぎる」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電車が三ノ宮駅を(通り)過ぎた」의 경우는 통과를 의미하지만, 「花子は昼御飯を食べ過ぎた」의 경우는 [과잉]을 의미한다. [원인-결과] 구조에서의 「過ぎる」는 후자의 경우로서, 시간적인 관계 뿐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도 관계된다<sup>34)</sup>. 물론 18) 19)와 같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인-결과] 구조는 변화 유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潰れる」「疲れる」「死ぬ」와 같은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복합동사이다.

- 18) お酒に弱いからすぐに酔っ払うはずなのに、先生の前ではいくら飲んでも全然酔っていない。
- 19) a. 5分しか歩いてないのに、もう疲れちゃった。  
b. 2時間も歩いたが、ちっとも疲れていない。

20)은 언어 행위의 대상인 カ格名詞의 태도 변화에 관계없이, 「喋る」라는 행위 또는 활동량의 과잉에 의해 カ格名詞 자신이 「疲れる」라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 경우이다. 지쳐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친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은, 단순히 「喋る」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매개로 행위의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전향동사 「喋る」가 「過ぎる」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過ぎる」

34) 継続活動の行き過ぎとは、具体的には時間的な過剰、または、繰返し可能な行為の場合には頻度の過剰という意味に反映される。影山太郎・由本陽子(1997)『語形成と概念構造』참조.

라는 내재적인 조건이 동작과 상태를 하나의 사태로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결과]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한 21a)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맥에서 복합동사 「喋りくたびれる」는 부자연스럽다. 만약 21b)를 자연스러운 문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ひと息に」라는 한정된 범위내의 활동량의 과잉으로 보아야할 것인데,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20) 誰もが黙って、高津の狂乱を挑めていた。喋り疲れた高津も、虚しくなったのか、肩で息をしながら、沈黙した。(=1)

21) a. ミツルはひと息に喋ったのでくたびれたのでしょうか。(『グロテスク』p.145)

b.? ミツルはひと息に喋りくたびれたのでしょうか。

「走り疲れる」「歩き疲れる」등과 같이 전항이 자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뿐 아니라, 22)와 같이 전항이 カ格名詞의 무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동사+자동사]로 구성된 「泣き疲れる」역시 [동작+변화] 구조이다.

22) どのくらい時間がたっただろう。泣き疲れて眠ってしまっていた私は、何かいい匂いに目を覚ました。(『恋愛中毒』p.291)

[자동사+자동사]로 구성된 또 다른 경우를 보자. [원인-결과] 구조의 전항은 20)과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人が死んでいる」의 경우, 당연히 「死ぬ」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만약 カ格名詞의 죽

음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殺された」와 같은 수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3)과 같이 전□후항이 모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凍える」라고 하는 1차적인 상태 변화가 「死ぬ」라고 하는 2차적인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焼く死ぬ」「溺れ死ぬ」「酔い潰れる」「焼けただれる」「酔い痴れる」등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결과] 구조는 [자동사+자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변화+변화] 구조라는 점에서 20) 22)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원인-결과] 구조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 [마이너스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23) どちらにしても、ようやく春の曙きが聞こえはじめた。凍え死ぬかも知れないという恐怖からやっと解放される。(『まほろばの疾風』p.429)

한편 松本(1998)에서는 24)의 「抜け落ちる」를 [비 동작주적+비 동작주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원인 복합동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25b)와 같이 [원인-결과]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力格名詞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抜け落ちる」는 石井(2002)에서의 [자동적 과정 결과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V1してV2する」관계인 병렬 구조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前歯が抜け落ちた口を開いて下卑た笑いをあげていた梅蔵が、真顔に戻って言う。(『邂逅の森』p.140)

- 25) a. 前歯が抜けて落ちた。

- b.? 前歯が抜けたから落ちた。

### 3.2.1.3 [원인-결과] 구조 성립의 전제 조건 (II)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동사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자동사+타동사]형에 대해 생각해 보자. 石井 (2002) 는 「目を泣きはらす」라는 복합동사에 대해, [타동적 과정 결과 구조]로 분류하면서, 전향동사 「泣く」는 자동사로서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타동성을 발휘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세한 분석은 없다. 影山 (2002) 도 특수한 경우라 하여 예를 들며, 「泣く」라는 행위를 「目から涙を出す」 즉, 26)과 같이 의미를 분해한다면 사역 사상과 변화 사상이 공통항(EYES)에 의해 이어진다는 대응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5)</sup>.

26) xが目を泣きはらす ( \* 目を泣く 目をはらす )

目をはらす : [x]CAUSE [x BECOME [x'sEYESBE AT-SWOLLEN]]

↑ 泣く [x GIVE-OFF TEARS FROM x's EYES]

목적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납득할 수가 있지만, カ格名詞가 「目から涙を出す」라는 행위만으로는 「泣きはらす」라는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泣く」라는 행위는 의도성이 있는 특수한 경우<sup>36)</sup>를 제외하고는 人名詞의 무의지적인 감정의 표출로서, 눈물과 함께 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눈을 문지르는 「擦る」<sup>37)</sup>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동작이 동반되는 것이다.

35) 使役事象の主語が文全体の主語に、結果事象の主語が文の目的語になる。『動詞意味論』p.92

36) 孫 東周 (2005a) 第3章 自動詞構文 참조.

同じ動詞であっても感情的な行為を表す動詞はカ格名詞の意図による動作の場合と カ格名詞によって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非意図的な動作の場合がある.

a. 私はさき階段から転んだが、痛くないのに先生に治療してもらおうと思ってわざと泣いた.

b. 遺族は悲しみのあまり涙を流して泣いている.

다시 말하면 「泣きはらす」라는 복합동사는 「泣く」라는 동사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カ格名詞*의 무의지적인 행위 즉, 「涙を出しながら目をこする」라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27)과 같이 [3.2.1.2]에서 제시된 「過ぎる」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カ格名詞*의 무의지적인 동작에 의한 (신체의 일부분인) *ヲ格名詞*의 상태 변화<sup>38)</sup>라는 점에서 일종의 재귀 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27) 泣きすぎたから目をはらしてしまった。

따라서 「泣きはらす」는 복합동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과정, 즉 [의지동사의 무의지동사화]로 설명할 수가 있다. 다음은 소설속의 한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39)</sup>.

28) たくさん泣いた翌朝は目が腫れるとよく言うが、私は、ただ泣くだけでは目は腫れず、泣いた時に目をこする事が涙腺を腫れ上がらせる、という話を固く信じていた。だから、床についてからも天井を見つめ、ただ涙の流れるにまか

37) 타동사 「擦る」를 의지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母はたわしてなべをこすった」의 경우는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으나, 「彼は扉で車をこすってしまった」의 경우라면, *カ格名詞*의 동작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의지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38) 孫 東周 (2005a) *ヲ格名詞*의 변화に対する意図のない*カ格名詞*による*ヲ格名詞*への影響であるので、動詞は無意志動詞であるか、あるいは意志動詞が無意志動詞化されてしまう。動詞を意志動詞から無意志動詞化するには「ふと 自然に、思わず、つい、うっかり たまたま 偶然に」などのように無意志動詞の意味を与える副詞句や、動詞に「～てしまう」形をつけて表す。

第2章 他動詞構文 참조.

39) 필자의 개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過ぎる」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泣く」라는 행위에는 「こする」라는 무의지적인 동작이 수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せ、一切ぬぐう事をしなかった。完璧とまではいえないが、とりあえず、この方法は成功したようだった。朝起きて鏡を見ると、涙で顔じゅうガビガビになってはいたが、肝心の目は充血するにとどまっていた。

(『愛される理由』 p.131)

위와 같은 잠재적 과정은 사역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孫 (2005: 130) 40)은, 「~に(を)させると/させれば」라는 형식을 취하는 사역문의 의미를 [판단]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使役主体は話し手や聞き手のように特定の誰かが使役主体である可能性もあるが、それよりもし誰かが被使役者にそのような動作をさせるのであれば、という考えから出た発想として、その事態に対する話し手の判断を使役という形式を借りて婉曲に表している表現であろう。話し手が被使役者から直接聞いた話であるとか、あるいは今までの動作をみて話し手が自信をもって表す表現である。」

29)는 사역주체가 피 사역자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 사역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든가 피 사역자의 생각 등을 화자가 판단하여 표현한다는 잠재적인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9) 大江町には酒吞童子の大江山しかないように思われがちだが、元伊勢内宮皇大神社などの名所旧跡が少なくない。若い明美などにはびんとこないけれど、町の年寄りたちにいわせれば、戦友歌碑はその中でも特筆すべきものだろう。(『蜃気楼』 p.12 )

---

40) 孫 東周 (2005a) 第5章 使役構文 참조.



「泣きはらす」의 결과는 반드시 「目」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 수식 성분인 30)과 같이 「顔」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泣きはらす」는 26)의 「xが目を泣きはらす」와 같이 의미 분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0) 31)과 같이 ㄱ格을 취하지 않는 연체 수식성분으로 사용되거나, 32)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에 사용되고 있다. [3.2.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인 복합동사는 자동사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30)과 31)을 비교해 보면, 형태상으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결과적인 지적 의미는 같은 [원인-결과] 구조이다. 차이점을 말한다면, 30)이 후향동사로 「はらす」라는 타동사를 취한 것은, 「目をこする」라는 무의지적이면서도 재귀적인 용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31)은 오로지 상태 변화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はれる」라는 자동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경우 모두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30)이 [자동사+타동사] 형인데 비해, 31)은 [자동사+자동사] 형이라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

- 30) 無視しようかとも思った。泣きはらした顔で先生の奥さんになど会いたくない。  
(『恋愛中毒』p.294)
- 31) 梶川優子は祖父の名誉に関わると言わんばかりに、泣き腫れた目で今峰を睨んだ。(=11))
- 32) やがて、大勢の弟子にかこまれた夏子が歩いてきた。彼女は、浜口が誰か氣がつかぬままに、腰を折って目礼し、通り過ぎていった。彼女の目は泣きはらしたように、まっ赤だった。(『京都茶道家元殺人事件』p.145)

이와 같이 하나의 사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후향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향동사가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에 따라 복합동사의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지는 동사의 파생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3) [원인-결과]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및 성립 조건(직접 복합)

- (1) 전향동사가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나타내는 어 구조이다.
- (2) 자동사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ㄱ格名詞의 행위는 재귀용법에 한한다.
- (3) 전향동사가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ㄱ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는 후향동사가 나타내는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이다.
- (4) 성립 조건
  - ① 「過ぎる」라는 전제 조건은 동작과 변화를 하나의 사태로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② 「泣きはらす」의 경우, [의지동사의 무의지동사화] 및 [재귀용법]을 전제로 성립된다.
- (5)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은 人名詞 또는 人名詞의 신체 일부분에 한정된다.
- (6) 내부 구조
  - ① [동작+변화] 구조
    - a. [자동사+타동사]형 : 30) 「泣きはらす」
    - b. [타동사+자동사]형 : 5) 「待ちくたびれる」
    - c. [자동사+자동사]형 : 20) 「喋り疲れる」 / 22) 「泣き疲れる」
  - ② [변화+변화] 구조 : [자동사+자동사]형 23) 「凍え死ぬ」

### 3.2.2 파생에 의한 경우

복합동사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전항의 목적어가 후항의 주어에 해당하는, 즉 전항의 주어와 후항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주어 불일치 형) 34a)와 같은 복합동사도 있다. 松本(1998: 57)은 34a)를 타동사의 자동사화라는 파생<sup>41)</sup>에 따라 생성된 [원인-결과] 구조로 분류하고 있으며, 34b)와 같이 대응하는 복합타동사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2)</sup>.

- 34) a. 打ち上がる、持ち上がる、吸い上がる、吹き上がる、つり下がる、折り曲がる、吹き飛ばす、積み重なる、覆いかぶさる、突き刺さる、引きちぎれる、張り付く、焼き付く、吸い付く、巻き付く、踏み固まる、焼き上がる、炊き上がる、ちぎれる、擦り切れる、擦りむける、突き出る
- b. 打ち上げる、持ち上げる、吸い上げる、吹き上げる、つり下げる、折り曲げる、吹き飛ばす、積み重ねる、覆いかぶせる、突き刺す、引きちぎる、張り付ける、焼き付ける、吸い付ける、巻き付ける、踏み固める、焼き上げる、炊き上げる、ちぎ取る、擦り切る、擦りむく、突き出す

동사를 형태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전항의 주어와 후항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항이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복합동사 전체가 格名詞를 취하는 자동사로서 하나의 사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影山の [타동성 조화의 원칙]이라는 입장보다는, 松本の [주어 일치 원칙]이라는 입장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41) 西尾寅彌(1954)의 「動詞の派生について」 참조.

42) 이에 대해, 影山太郎(1993□1996)는 逆成 혹은 접사라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각되므로, 일단은 34a)를 [원인-결과] 구조로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松本가 [원인-결과] 구조로 분류한 34a)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34a)의 복합동사를 모두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자동사로 볼 수 있는가이다. 둘째는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34a)를 [원인-결과]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셋째로는 복합타동사형 ([타동사+타동사])이 존재하더라도 대응하는 복합자동사형 ([타동사+자동사])이 없는 경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2.1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있는 경우

#### 3.2.2.1.1 파생 과정

[3.2.2]에서 제시한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西尾 (1982)가 분류<sup>43)</sup>한 바와 같이 34a)는 복합동사의 후향동사만이 자동사화 하여 34b)와 자□타 대응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34a)의 후향동사는 모두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자동사일까?

奥律 (1967)는 「自□他的 対応と音韻転形」과 관련하여, 자□타 대응하는 동사에 기본적인 음형을 부여하여 각각 他動化, 自動化, 両極化<sup>44)</sup>으

43) 西尾寅彌 (1982) 「自動詞と他動詞」-対応するものとなないもの- 참조.

「おちいる/ おといれる」「たちなおる/ たてなおす」등과 같이 복합동사 전체가 자□타 대응하는 경우와 「あてはめる/ あてはまる」「入れかえる/ 入れかわる」등과 같이 후향요소만이 자동사화 하여 자□타 대응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松本는 후자의 경우를 원인 결과 구조로 간주하고 있다.

44) 奥律敬一郎 (1967) 「自動化□他動化および両極化転形」참조.

i. (自動詞からの) 「他動化」(Transitivization)  
ii. (他動詞からの) 「自動化」(Intransitivization)  
iii. (自□他への) 「両極化」(Polarization)

로 분류하고 있다. 奥律의 설명에 따르면 34a)의 후향동사는 대부분 「-ar-」를 「自動詞辞」로 하는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자동사이다(自動化轉形). 그러나 「飛ぶ」「切れる」「出る」등은 「他動化轉形」, 「付く」「取れる」는 「兩極化轉形」에 속하는 동사라고 생각된다. 후향동사만이 자동사화한 34a)의 복합동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후향동사의 파생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4a)의 복합동사를 모두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자동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影山(1993□1996)가 逆成이라든가 접사라는 이견을 제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 3.2.2.1.2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2.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 복합동사는 [타동사+자동사] [자동사+타동사] [자동사+자동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변화] [변화+변화] 라는 구조적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34a)의 복합자동사는 [타동사+자동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그 구조는 보다 단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34a)의 복합자동사 중,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석해 보자.

##### 3.2.2.1.2.1 전향동사와의 관계

34a)에서 「上がる」를 후향으로 하는 복합자동사는 전향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上がる」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sup>45)</sup>. 35)는 지진

45) 姫野昌子(1999): 「あがる」の基本的な意味は、下方から上方への移動である。漢字をあてる



의 힘에 의해 집의 토대가 위쪽으로 들어 올려진 자연 발생적인 사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의 「持ち上がる」는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カ格名詞*가 변화한 원인은 전항 「持つ」가 아니라, 「地震で」라는 付加詞<sup>46)</sup>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항 「持つ」는 「上がる」라는 자동사와 결합함으로써, 동사 본래의 타동성을 잃고 있으므로 西尾(1982)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항과 후항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도 생각된다<sup>47)</sup>.

35) 地震で家の土台が10センチも持ち上がった。

36)의 「持ち上がる」도 원인 복합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カ格名詞*가 人名詞의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발목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재귀적인 동작을 하는 것으로, 전항 「持つ」는 동작의 양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36) 足首が上に持ち上がりにくく、前に持っていこうとする時に注意しないと爪先が床に引っかかってしまう。(『奇跡の人』p.23)

후항동사 「上がる」가 「焼く」「炊く」등의 전항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완료] 혹은 [완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sup>48)</sup>. 따라서 「焼き上がる」「炊き上がる」

と「上がる」、「拳がる」、「揚がる」、「騰がる」等となる。後項動詞として働く時は、前項動詞の意味特徴によって意味・用法が分化していく。

46) 仁田義雄(2004)는 원인의 상황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災難で」「衝撃で」등과 같이 사태 발생의 원인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47) 西尾寅彌(1982)「これが2語の連合ではなくて、一個の複合動詞である以上、別に異とす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まゝ要素の自他性を取り立てて問題とすることは必ずしも不自然なわけであろう。」



る」와 같은 복합자동사는, 35)와 반대로 전향은 본의를 갖고 있지만 후향 동사가 접미사적 요소로 의미 변화한 경우이므로, [원인-결과] 구조로 볼 수 없는 [동작+접미사] 구조가 된다.

이번에는 34a) 중, 「付く」를 후향으로 하는 복합자동사가 전향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姫野(1999: 107)는 「～付く」라는 복합동사에 대한 분석에서, 「張り付く」「焼き付く」「巻き付く」등은 대상에의 접촉 또는 밀착을 의미하는 복합동사인데, 타동사인 전향동사가 「付く」와 결합함으로써 자동사로 되고, 격조사 「に」를 취하게 된 것이므로, 전향은 부작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37)은 머리카락이 목 부분에 감겨 붙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전향 「巻きく」는 姫野의 설명대로 부작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7) 皺の目立つ首に髪が巻き付き、ぬめっと光る口紅が頬にまではみ出していた。(『ホテル□アイリス』p.6)

그러나 「焼き付く」의 경우는 어떠한가. 38)은 カ格名詞의 뇌리에 「裸体」가 잔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전향 「焼く」는 37)의 전향 「巻きく」와 같은 부작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38)의 「焼き付く」는, 마치 「焼く」라는 행위의 결과 잔상이 머릿속에 새겨진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37) 38)은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48) 姫野昌子(1999)는, 「これらの語は、人が仕事や作業をすつか'終了し、その結果目の前に期待どおりのもか'完成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라고 하며, 「ご飯を炊く → ご飯が炊きあがる」에서 알 수 있듯이, カ格名詞가 결과를 나타내는 [생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8) それでも数分前に見たばかりの裸体は残像として焼き付いていた。

(『あかね空』 p.79)

39)는 유도 경기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人名詞의 신체의 일부분인 왼쪽 발바닥이 상대의 왼쪽 무릎에 달라붙어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의 「吸い付く」<sup>49)</sup>는 마치 흡입한 듯한 강한 접촉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전향 「吸う」를 후향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9) 明らかに神戸は隙を突かれて、志織の技をかわし遅れている。志織の左足の裏が神戸の左膝に吸いついた。志織はそのまま左足を跳ね上げる。

(『栄光一途』 p.215)

분석한 바와 같이 35)~39)의 복합자동사는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합하는 전향동사에 따라 본동사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비유적 표현에 사용되기 때문이며, 자연 발생적인 사태인 경우에는 문중의 付加詞가 원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3.2.2.1.2.2 후향동사와의 관계

[3.2.2.1.2.1]과는 반대로 「吹く」를 전향으로 하는 복합자동사는 후향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吹く」는 40)과 같이 자□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타 동형 동사이다<sup>50)</sup>.

49) 姫野昌子(1999)는, 「赤ん坊が母親の乳房に吸いつく」라는 예를 제시하면서, 「「つく」が本来「接触」を意義素の中に持つ前項動詞と結合した場合は、「離れまい/離すまい」という主体の強い意志や執着心から来る接着度の強さを示すことにな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40) a. 笛を吹く/ \* 笛が吹く

b. 風が吹く/ \* 風を吹く

이러한 자□타 동형 동사 「吹く」가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34a)의 「吹き飛ばす」가 과연 [타동사+자동사]로 구성된 복합자동사인지를 생각해 보자. 41)은 [수단-결과] 구조로서, 전향 「吹く」는 ㄱ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ㄴ格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이 ㄱ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후향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의 「吹く」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태 성립의 과정과 결과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42)와, 「코치라는 신선한 직업」이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43)에서도, 전향 「吹く」는 타동사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51)</sup>.

41) ケー キに立てたろうそくの火は、なつみが吹き消した。(『あふれた愛』 p.67)

42) 「それに私が南のホーチミン市の隅々で見たのは枯葉剤の後遺症だけじゃなくて、足が地雷で吹き飛ばされた人や、実戦で腕や下半身を失くした人たちよ。市場であなたがインタビューしていた周りにも四、五人はいたわ」

(『30年の物語』 p.161)

43) コーチという仕事は新鮮で、長かったりハビリの疲れを吹き飛ばしてくれた。

50) 奥律敬一郎 (1967)에서도 「ヒラク」「トシル」「マス」와 함께 兩極化轉形으로 분류하고 있다.

- i. 対応する自□他に夫々特徴素のあるもの
- ii. 逆にどちらにも特徴素のないもの
- iii. 自□他全 同形のもの

51) 孫 東周 (2005a) 第2章 他動詞構文

ㄱ格名詞에의 영향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닌가를 ㄴ格名詞의 동작성의 유무 및 의도성의 유무에 따라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ㄱ格名詞의 변화 결과와 관련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참조.

(『栄光一途』 p.58)

그러나 후향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의 전향 「吹く」는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44)의 경우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笑顔」이며, 전향 「吹く」는 피곤함이 사라지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으로, 본의도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의 전향 「吹く」도 カ格名詞가 사라지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44) それに、あなたの笑顔を見れば、どんな疲れもすくにふき飛んでしまいます。

(『奇跡の人』 p.7)

45) この三週間、鬱屈していたものがすべて吹き飛んでいく。

(『栄光一途』 p.447)

이와 같이 松本가 원인 복합동사로 분류한 「吹き飛ぶ」의 전향 「吹く」는 자□타 동형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타동사로,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자동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吹き飛ぶ」는 [타동사+자동사]형이 아니라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이며, [원인-결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松本에서는 구체적인 예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34a)의 「突<sub>レ</sub>刺<sub>ル</sub>さる」와 「突<sub>レ</sub>出<sub>ル</sub>る」에 대해서도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자. 우선 「突<sub>レ</sub>」가 타동사 「刺す」와 결합한 46)은 [수단-결과] 구조로, 전향 「突<sub>レ</sub>」는 カ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수단-결과] 구조라고 하더라도, 47)의 전향 「突<sub>レ</sub>」는 カ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カ格名詞를 =格名詞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동작이라는 점에서 46)과 차이가

있다. 즉, 구조는 동일하지만, 복합동사가 어떤 명사구를 취하느냐에 따라 의미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어쨌든 「突く」가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본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6) 首を絞めたのか、ハサミで突き刺したのか、毒を飲ませたのかは知らないが、その瞬間、彼の指がどんなふうに優美に動いたかを想像することはできる。  
(『ホテル□アイリス』 p.133)

- 47) こちらにまった気づく様子もなく、黙々と銃座作りに励んでいた小太郎は、二股に削り終えた枝を雪に突き刺すと、その上に銃身を載せて照準を覗きはじめた。(『邂逅の森』 p.200-201)

「突く」가 자동사 「刺さる」와 결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48)은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인데, 전향동사 「突く」는 자동사와 결합함에 따라, 동사 본래의 타동성을 잃고 「刺さる」라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태 발생의 원인은 우연한 사고이지 전향 「突く」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원인-결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49) 50)의 「突き刺さる」를 보면 전향 「突く」가 원인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49)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50)은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인지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 48) 「奥さんのほうは外傷がひどいのです。背中にガラス片などが多数突き刺さっていて、その中の一つが心臓に達していました。助け出された時点で、すでに大量の出血があったのです。…」(『秘密』 p.19)

- 49) 元秀と背後の連中の無数の視線が突き刺さり、痛い。(『GO』 p.160)



- 50) 昼間、ほんの少し外へ出ただけで、日差しが身体中に突き刺さり、めまいがした。(『ホテル□アイリス』 p.142)

이번에는 「突く」가 타동사 「出す」 및 자동사 「出る」와 결합한 경우를 보자. 타동사와 결합한 51)의 전향 「突く」는 본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사 「出る」와 결합한 52a)의 전향 「突く」는 「岩場」가 붙쑥 튀어 나온 상태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52b)에서 알 수 있으므로, 52c)와 같이 전향 「突く」가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51) 彼がひじを突き出し、ぼくの腰の辺りをつついてきた。(『奇跡の人』 p.267)

- 52) a. 小さ海に突き出た岩場の上に腰掛け、絵を描いていた。  
(『ホテル□アイリス』 p.195)

b. 岩場が突いた形として出た。

c.\* 岩場が突いたから出た。

이와 같이, 전향동사 「吹く」 및 「突く」가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본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상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34a)의 「吹き飛ぶ」「突き刺さる」「突き出る」등은,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곧, 후향동사가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에 따라 전향의 의미는 물론 복합동사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자동사에 있어서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구성요소간의 타동성 및 자동성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지만, 사태 성립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복합동사 구성요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중의 付加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2.2.1.3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3.2.2.1.2]에서는 34a)의 복합자동사 중,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원인-결과] 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 복합자동사에 대해 생각해 보자. [3.2.1]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 복합동사는 「過ぎる」라는 과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人名詞 또는 人名詞의 신체의 일부분만이 カ格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파생에 의한 34a)의 복합자동사도 이러한 조건하에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 3.2.2.1.3.1 カ格名詞가 物名詞인 경우

53) 54)는, 오랜 시간 스침이 반복됨에 따라 「木綿」 또는 「洋服」가 닳아 떨어질 정도의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カ格名詞가 物名詞이기 때문에 「擦る」의 동작 주체는 「木綿」 또는 「洋服」의 소유주로서, 「擦る」라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인 「木綿」 또는 「洋服」의 상태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sup>52)</sup>.

孫 (2005 : 57)의 설명과 같이, 대상에의 영향이 カ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5)와 같이 의지형이나 「～たい」형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カ格名詞가 物名詞라고 하더라도 人名詞의 소유물이므로 人名詞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과, 56)과 같이 「過ぎる」라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 복합동사와도

52) 孫 東周 (2005a) カ格名詞にカ格名詞への影響に対する意志がないのでカ格名詞が影響を及ぼすとしてもそれは動作の結果によって生じた現象である。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복합자동사 「擦り切れる」는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원인 복합동사로 볼 수 있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53) ほころびはつき当てしてあるが、木綿が擦り切れそうだった。

(『あかね空』 p.163)

54) 富治が身に着けているのと同じ、もとは軍の払い下げと思いきボロボロに擦り切れた洋服を纏い、ゲートルを巻いた足を投げだした小柄な老人が、…。

(『邂逅の森』 p.135)

55) a. \* 木綿を擦って切ろう。

b. \* 老人が洋服を擦って切りたがっている。

56) 洋服が擦りすぎたから切れた。

#### 3.2.2.1.3.2 カ格名詞が 人名詞인 경우

人名詞가 카格을 취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를 보자. 57a)는 카格名詞가 「覆う」라는 행위를 한 결과 「かぶさる」라는 상태 변화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카格名詞가 人名詞라는 점에서는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와 같으나, 「過ぎる」라는 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57b)에서 알 수 있듯이 「覆いかぶさる」는 카格名詞를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覆いかぶさる」는 [수단-결과] 구조 「覆いかぶせる」로부터 파생된 복합자동사이기 때문에 전향동사 「覆う」의 타동성은 인정되지만, 카格名詞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카格名詞의 상태 변화라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둔 재귀용법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로 간주되며, 「擦り切れる」와 마찬가지로 [동작+변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 57) a. 志織が神戸の組手を切って覆いかぶさる。(『栄光一途』 p.212)  
 b. 志織が(神戸の組手を切って)覆いかぶさる。

### 3.2.2.1.3.3 가格名詞가 事柄名詞인 경우

58) 59)는 추상적인 事柄名詞가 가格을 취하고 있으나, 전항과 후항의 의미가 명확하고 「過ぎる」라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58) 物哀しい風情の入口ロビーは、通りすぎて行った強国の、植民地化政策に与した残滓なのだろう。さまざまな異文化が擦り切れて溶け合い、なぜかわからぬけだるい威厳を醸しだしていた。(『30年の物語』 p.144-145)  
 59) 「期待しないが支持する」、つまり「あそこまで威勢よく『ともかくも改革を』と言うならやらせればいいじゃない」といった程度の人がほとんどで、あるいは既成の政治に対する何とない不満が積み重なった結果としての高支持率なのでしょう。(『諸君!』 p.29)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松本가 제시한 34a)의 복합 자동사 중,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원인-결과] 관계 성립의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 동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格名詞가 物名詞 또는 事柄名詞인 경우는 「過ぎる」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人名詞인 경우는 [재귀 용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이 人名詞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복합자동사의 구성요소가 [타동사+자동사]이기 때문에 [동작+변화]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 3.2.2.2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없는 경우

[3.2.2]에서 의문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복합타동사형이 존재하더라도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파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松本(1998: 58)는 어떤 경우에 [수단-결과] 구조인 복합동사의 자동사화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갖고, 「切る」「たたく」「殴る」「投げる」「蹴る」「取る」를 전향으로 하는 복합동사, 「倒す」「壊す」「落とす」를 후향으로 하는 복합동사 중에는 자동사화한 경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자세한 분석은 없다.

[3.2.2.1.1]에서도 말했듯이, 타동사의 자동사화에 대한 가능 여부는 奥津(1967)의 분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松本에서 제시한 후향동사 「倒す」「壊す」「落とす」뿐만 아니라, 「崩す」「潰す」「砕く」「破る」「開く(ヒラク)」등도 자동사화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동사는 모두 兩極化轉形에 속하는 동사인데, 우선 자□타 동형동사 「開く(ヒラク)」에 대해 생각해 보자.

#### 3.2.2.2.1 자□타 동형 동사의 경우

[3.2.2.1.2.2]에서는 자□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타 동형동사 「吹く」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ヒラク」역시 60)과 같이 자□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타 동형 동사이다. 「ヒラク」가 복합동사의 전향인 경우는 「開き直る」와 같이 자동사와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후향을 「ヒラク」로 하는 복합동사는 『日本語逆引き辞典』<sup>53)</sup>에 의하면 「言い開く」「申し開く」「押し開く」「おっ開く」「見開く」「切り開く」등 6語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나 [타동사+타동사]형으로, 복합동사의 후향으로서

53) 北原保雄(1992) 『日本語逆引き辞典』大修館書店 p.277-278 참조.

의 「ヒラク」는 타동사로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a. 太郎が扉をヒラク。

b. 扉がヒラク。

「押し開く」의 후향동사 「開く」는 형태상으로 보아서는 「あく」인지 「ヒラク」인지 알 수가 없다. 61)의 「押し開く」는 「押し開ける」라는 [수단-결과] 구조의 복합동사로부터 파생된 복합자동사 「押しあく」가 아니라, 「押しヒラク」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동사 「アケル」와 자동사 「あく」는 대응하지만, 복합타동사 「押しアケル」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 「押しあく」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3.2.2.2]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61) 私が低姿勢に出たせいか、美代子は寛大なそぶりをみせた。彼女に続いて階段を下り、重そうな黒い扉を押し開くとそこには普通のスナックがあった。

(『恋愛中毒』 p.146)

#### 3.2.2.2 수동문과 자동사문

복합타동사형이 존재하더라도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파생되지 않는 경우 즉, [수단-결과] 구조인 복합동사의 자동사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분석해 보자. 影山<sup>54)</sup>는 「日英対照」연구에서 「小結は横綱を押し倒した」의 경우, 「小結が横綱を押す」라는 <행위>의 부분은 日英語에 공통하고 있지만,

54) a. The *komusubi* pushed the *yokozuna* down.

b. 小結は横綱を押し倒した。

影山太郎(2001)第6章 結果構文 참조.



<변화 결과>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일본어의 복합동사는 「小結が横綱を押して、小結が横綱を倒す」와 같이, 두 개의 타동사가 조합되어 있는데, 만약 후향동사를 자동사 「倒れる」로 교체하면 「\*押し倒れる」와 같이 비문이 되어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押し倒れる」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우선 하나의 복합동사에 두 개의 주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성립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가格格名詞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横綱」를 가格格名詞로 취할 경우에는 사태가 성립하게 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押し倒される」라는 수동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5)</sup>. 실제의 예를 들어보자.

62a)의 「投げ落とす」는 가格格名詞 「死体」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이다. 만약 사체를 가格格으로 취하고자할 경우에는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62b)와 같이 수동문으로 나타내게 된다. 가령 광장에 사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과 나뭇잎이 저절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가格格名詞의 상태 변화가 어떤 과정에 의한 결과인가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후자는 오로지 현재의 상태 자체만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물론 나뭇잎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떨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수동문으로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사문이 상태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데 반해, 의도적인 행위의 과정과 변화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수동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62) a. 死体と現場の状況から、犯人は殺害後、死体を広場の先の斜面に投げ落

55) 孫 東周 (2005a) 第8章 自動詞と受身文 참조.

「変化が他の働きかけによる場合には変化結果だけを表す自動詞文はいうまでもなくそれを間接受動文で表すこともできない」



としたと考えられる。(『蜃気楼』p.48)

b. 死体が犯人に投げ落とされた。

「落とす」「壊す」「倒す」「砕く」「潰す」등은,  $\text{カ格名詞}$ 의 變化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ext{カ格名詞}$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향동사와 결합하고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전향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복합자동사가 파생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押し倒す」「踏み潰す」 등과 같은 수단 복합동사는 63) 64)와 같이 행위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두는 수동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63) 「…顎を手で突き上げられて…押し倒された…ああ…気分が悪い…痛え…」  
(『栄光一途』p.326)

64) 殺しても死なないような奴とはいえ、雪崩とい圧倒的な自然の暴力の前では、理由もな踏み潰される蟻に等しい。(『邂逅の森』p.237)

[수단-결과] 구조 「積み重ねる」를 수동태로 나타낸 수동문과 복합자동사로 표현한 자동사문을 비교해 보자. 65)는 「積み重ねる」의 대상인  $\text{カ格名詞}$ , 즉 수동문의  $\text{カ格名詞}$  「クルマ」가 어떤 과정에 의해 쌓여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66)은 사태의 성립이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text{カ格名詞}$ 의 상태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복합자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text{カ格名詞}$ 의 상태 변화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리고 사태 성립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둘 것인가 결과 자체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수동문으로 나타내거나 자동사문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5) 「中庭に面した石造りの倉で、ひたすら食器を磨き続けるの。仕事はただそれだけ。他には何にもない。真ん中に細長い机があって、その両側にずらっと召使たちが腰掛けているの。それぞれの前には、その日一日分のノルマが積み重ねられているわ。…」(『密やかな結晶』 p.175)
- 66) 病室には昨日と何も変わらない時間だけが毎日毎日積み重なっていく  
(『奇跡の人』 p.24)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수단-결과] 구조인 복합동사의 자동사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開く(ヒラク)」 「落とす」 「壊す」 「倒す」 「砕く」 「潰す」 등을 후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사는 ㄱ格名詞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ㄱ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향동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전향이 변화의 수단 혹은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를 수동문으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상태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복합자동사가 파생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태의 성립이 자연 발생적인 경우라면 ㄱ格名詞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자동사문으로 나타내지만,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라면 사태가 성립하게 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수동문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67) 파생에 의한 복합자동사의 의미□구조적 특징
- (1)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결합하는 전향 또는 후향동사에 따라 본동사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문중의 付加詞가 사태 성립의 원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2)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① 「過ぎる」 및 [재귀 용법]을 전제로 하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예) 53) 「擦り切れる」 / 57a) 「覆いかぶさる」)
- ②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 (3) 복합타동사에 대응하는 복합자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사태 성립이 자연발생적인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가의 차이에 있다.



## 제 4장 양태구조

### 4.1 양태구조란

양태구조의 복합동사는 동작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성요소 간에 [수식□피 수식]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지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향동사가 후향동사의 양태를 나타내므로, 「V1しながら V2」라는 의미 관계에 있으며 자동사문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동이 아닌 경우는 전향 또는 후향이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유적인 경우는 「V1するかのようにしながらV2」 또는 「V2するかのようにしながらV1」이라는 의미관계에 있으며,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에 공존한다.

전형적인 양태구조는 1)과 같이 「~ながら」라는 조건하에 성립된 동시적인 관계이며, 양태구조의 주동사(피 수식요소)는 의지성의 유무 및 자□타동성에 관계없이 동작동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sup>56)</sup>.

- 1) 低く(掠れた)口笛を吹きながら、それでも用心深く(壕を這い出た)数秒後、鋭い射撃音が響いて、彼の若い体は炸裂した。即死だった。

(『30年の物語』 p.282)

### 4.2 양태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松本(1998: 53)는 「前項が後項の様態□付帯状況を表すもの」라 하여 분

56) 松本 曜(1998)는 「咲き誇る」「咲き乱れる」등도 비유적 양태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あたたかもV2するかのように咲いている」와 같이 양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비유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류한 복합동사의 결합 특성으로 의지성의 유무를 들고 있는데, 2) 3)과 같이 모두 이동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에 한정되어 있다.

- 2) a. 意志的 + 意志的 : 駆け登る、駆け降りる、舞い降りる、滑り降りる
- b. 意志的 + 中立的 : 駆け上がる、飛び上がる、飛び出る、這い出る、歩き回る
- 3) a. 非意志的 + 非意志的 : 流れ落ちる、舞い落ちる、滑り落ちる
- b. 非意志的 + 中立的 : 流れ出る、浮き上がる、舞い上がる、吹き回る

또한 影山 (2002: 32) 에서 「様態□付帯状況 (V1しながらV2)」로 분류한 복합동사는 4)와 같다. 「語り明かす」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동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이다.

- 4) 探し回る、尋ね歩く、転げ落ちる、忍び寄る、語り明かす

결국 이동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는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松本와 影山는 양 구조를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石井 (2002) 에서도 부대상황구조의 일부를 [상태한정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 4장] [제 5장]에서는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히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4.2.1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 4.2.1.1 구성요소간의 관계

양태구조의 전향과 후향이 어떤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격 성분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양태구조에는 의지적인 이동과 무의지적인 이동이 있다. 즉, 이동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점으로부터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동 주체의 의지성의 유무에 따라 복합동사가 취하는 격 성분은 달라진다. 의지적인 이동의 경우는 기점으로 「カラ」 격은 물론 「ク」 격도 취할 수가 있다. 5)는 「カラ」 격을, 6)은 「ク」 격을 취하고 있는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이동으로, 전향동사 「這う」 「飛ぶ」는, 5) 6)에서 알 수 있듯이 「～しながら」 「～ようにしながら」와 같은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5) 獸たちが立ち去ってからしばらくして、麻織りの質素な衣を身につけ、新しい命を腕に抱いた女が産屋から這い出てきた。(『まほろばの疾風』 p.7)

6) 主任はどなった。若い刑事の一人が部屋を飛び出して地図を借りに行った。  
(『砂の器』 p.46)

5) 女が産屋から這いながら出る。

6) 刑事の一人が部屋を飛ぶようにしながら出る。

7)과 같은 신체상의 변화라든가 8)과 같은 자연 현상 등, 이동 주체에 의지성이 없는 경우는 기점으로 「カラ」 격만을 취하고 있으며, 전향동사 「噴く」 「滑る」는 후향이 나타내는 이동의 양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는 무의지적인 物名詞의 이동이지만 기점으로 「ク」 격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의인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sup>57)</sup>.

- 7) 盆地の夏は暑い。身体中から汗が噴き出したが、井戸水は冷えていて心地よかった。(『あかね空』 p.19)
- 8) 搬入口は、ダム of 巨大なスロープから滑り落ちてきた雪に埋まり、今は扉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ホワイトアウト』 p.193)
- 9) 海岸の海水浴の人たちの顔が見わけられるところまで来ると、ひとたび誠の手に委ねられ、又たちまち彼の手をのがれ去ったこの気紛れな宝物は、すでに視界の外に没した。(『青の時代』 p.14)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지성의 유무가 격 성분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의지적인 이동 10)은 물론, 무의지적인 이동 11)도 7格을 취하고 있다. 전향동사는 각각 「滑るようにしながら」 「舞うようにしながら」 와 같은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 10) 薫は、滑り台の斜面を、ゆっくりと滑り降りていく。  
(『101回目のプロポーズ』 p.233)
- 11) 風ではこりが空中を舞い上がっている。

물론 착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의지성의 유무가 격 성분을 좌우하지 않는다. 12) 13)은 人名詞의 의지적인 이동이며, 14)는 무의지적인 物名詞의 이동이다. 13)의 후향동사 「帰る」는, 「行く」 「来る」 「着く」 등과 마찬가지로 통상 착점을 함의하는 이동 동사이기 때문에, 굳이 착점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착점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전향동사 「駆ける」 「泳ぐ」 「すべる」 역시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

57) 三宅知宏(1996)에서도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名も知らぬ遠き島より疏れよるやしの実ひとつ。ふるさとの岸を離れてなればそも波にいくつき」

12) 富樫はドアを開けて監視小屋を飛び出した。下りのリフトに駆け乗った。

(『ホワイトアウト』 p.115)

13) 彼は残った全財産の風呂敷包を頭に結びつけ、東京灣を突っ切ってK町へ  
泳ぎかえったということだ。(『青の時代』 p.12)

14) 紅葉が部屋の中にすべり込んだ。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동사로는, 5)~14)의 전향동사 「這う」「飛ぶ」「駆ける」「泳ぐ」「滑る」 외에도, 「舞う」「転げる」「走る」「歩く」「流れる」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동사<sup>58)</sup>는 이동의 경로에 초점을 둔 동사이기 때문에, 기점 혹은 착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15) 16)에서 알 수 있다.

15) a. 犯人は列車から飛びおりた。

b. \* 犯人は列車から飛んだ。

c. 犯人は列車からおりた。

16) a. 彼は下りのリフトに駆け乗った。

b. \* 彼は下りのリフトに駆けた。

c. 彼は下りのリフトに乗った。

이동의 경로에 있어서도, 양태를 나타내는 전향동사가 이동을 함의하는 17)에서는 어느 항이 취하는 격 성분인지 애매할 수도 있으나, 전향동사가 이동을 함의하지 않는 18)을 보면 후향동사가 취하는 격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8) 影山太郎□由本陽子(1997)에서도 이러한 동사를 「移動の様態に関する動詞」로 분류하고 있다.

- 17) a. 子どもが坂道を駆け上がっている。  
 b. 子どもが坂道を駆けている。  
 c. 子どもが坂道を上がっている。
- 18) a. 腰まで埋まりながら雪の中をもがき歩いた。  
 b.? 腰まで埋まりながら雪の中をもがいた。  
 c. 腰まで埋まりながら雪の中を歩いた。

이처럼 양태구조의 복합동사 전체가 취하는 격 성분이 어느 항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구성요소인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어떤 관계로 결합된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이다. 분석한 바와 같이,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전향동사는 수식 성분이며, 기점, 경로, 착점을 취하는 후향동사가 주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태구조의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는 [수식+피수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sup>59)</sup>.

한편, 影山 (2002)는 복합동사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V1の項が統語的に具現されるかどうかである」라고 하여, [어휘개념구조]를 확충하는 과정<sup>60)</sup>의 하나로 「副次成分の補充」과 「項の補充」이라는 분석법을 제안하고 있다<sup>61)</sup>. 전자의 예로 19a)를, 후자의 예로 19b)를 들고 있는데,

59) 長嶋善郎 (1976)은 [동사+동사]로 구성된 복합동사를 구성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2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木によじのぼる」와 같이 「修飾要素+被修飾要素」인 경우를 I類, 「(本を)読み通す」와 같이 「被修飾要素+修飾要素」인 경우를 II類로 구분하고 있는데, 양태구조는 I類에 속하는 복합동사라 할 수 있다. 「複合動詞の構造」참조.

60) 影山太郎 (2002)는, 개념구조를 확충하는 과정으로 영어 특유의 「概念合成」, 보편적인 「概念補充」, 일본어 특유의 「クローン形成」이라는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61) a. 副次成分の補充: V2の概念構造における意味述語の副次成分に埋め込<sub>め</sub>めたV1の概念構造からは、項の受け継<sub>ぎ</sub>ぎは起<sub>き</sub>こらない。  
 b. 項の補充: V2の概念構造において項の位置に補充されたV1の概念構造からは、項の受け継<sub>ぎ</sub>ぎが起<sub>き</sub>こる。

19a)의 「ニ」격 명사구는 후향동사의 향으로 「流れる」가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19b)의 「ヲ」격 명사구는 전향동사가 취하는 향으로 「本を探す」 전체가 이동시의 부대상황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19) a. 川が向こ岸に流れ着く。(副次成分の補充)

b. 本を探し回る。(項の補充)

즉, 양태구조 19a)와 부대상황구조 19b)는 어느 향이 취하는 격 성분인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법이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태구조라고 하더라도 19b)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의지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양태구조의 복합동사 「～落ちる」의 경우를 보자.

森田(1984: 132)<sup>62)</sup>는, 「落ちる」라는 동사에 대해 상 방향에서 하 방향으로의 이동일 경우, 「他の力によってなされる、意志に反した作用。何かを伝わったり、移動の経路はない。一挙に下まで、急速に、一直線に移動す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落ちる」는 상 방향으로부터 하 방향으로의 무의지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순간 동사로, 20)과 같이 기점 또는 착점을 취할 수가 있다.

20) a. 涙が目から落ちた。

이러한 분석법이 제시된 것은, 松本 曜의 「意味構造との写像関係から全体の項構造を導くとする考え方」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松本 曜(1998)가 影山太郎(1993)의 「複合動詞全体の項構造が意味構造に言及せずに決定される」라는 설에 대해, 「複合動詞の項構造を、二つの動詞の項構造から派生させずに、複合動詞の持つ複合的な意味構造からの写像によって規定する」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2) 森田良行(1984)『基礎日本語1』참조.



b. 紙が床に落ちた。

21) 22)는 가格名詞의 무의지적인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복합동사 「滴り落ちる」가 21)에서는 「カラ」격을, 22)에서는 「ヲ」격을 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지적인 이동인 경우는 기점으로 「カラ」격은 물론 「ヲ」격도 취할 수가 있으나, 이동 주체에 의지성이 없는 경우는 기점으로 「カラ」격 만을 취할 수가 있다.

따라서 21)의 「額から」는 후향동사 「落ちる」가 취하는 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影山가 제시한 「副次成分の補充」에 해당된다. 반면 22)의 「壁を」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므로 전향동사 「滴る」가 취하는 항이라는 것을 22)에서 알 수가 있으며, 「項の補充」에 해당된다. 수식 관계로 말하자면, 21)은 「滴る」가, 22)는 「壁を滴る」가 후향동사 「落ちる」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다.

21) 汗が額から滴り落ちてくる。(『栄光一途』 p.334)

22) 地中から沁み出た水が、ところどころでひび割れた壁を滴り落ち、通路の端で小さな水たまりを作っていた。(『ホワイトアウト』 p.181)

22) 'a. 水が壁を滴って、通路の端で小さな水たまりを作っていた。

b. \* 水が壁を落ちて、通路の端で小さな水たまりを作っていた。

23) 24)도 「滴り落ちる」와 마찬가지로 양태구조이며, 「斜面を転がる」, 「頬の上を伝う」가 각각 후향동사 「落ちる」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項の補充」에 해당된다.

23) 林が途切れ、小さな沢へと続(緩い斜面を駆け下っていた時、下生えに足が



絡まり、前のめりに転倒してしまった。勢いのついた身体が、ごろごろと斜面を  
転がり落ちていく。（『まほろばの疾風』 p.19）

24) 照れ臭そうに笑った頬の上を涙が伝い落ちた。（『蜃気楼』 p.269）

이와 같이 양태 구조의 복합동사라고 하더라도 (「本を探し回る」와 같은 부대상황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項の補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후술하는 부대상황구조 「出迎える」는 후향동사가 격성분을 취하는 「副次成分の補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影山가 제시한 개념 구조의 확충 방식, 즉 「副次成分の補充」과 「項の補充」만으로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를 구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 진다.

#### 4.2.1.2 의미특징

[4.2.1.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념구조의 확충 방식만으로는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양구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4.2.1.2.1 부차성분(부사구)과의 관계

양태구조에는 의지적인 이동과 무의지적인 이동이 있는데,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이동에는 어떤 이유 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양태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의지적인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복합동사 자체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양태구조는 이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복합동사 「～回る」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가 있다.

25)는 가格名詞가 有性名詞이기 때문에 이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나, 26) 27)은 이동의 목적을 문중의 부차성분(부사구)이 나타내고 있다. 즉 26)에서는 「事件で」, 27)에서는 「取材に」가 그것이다. 28)의 가格名詞는 25)와 같은 有性名詞이며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차성분은 없으나, 「瘦せグマ」가 「冬眠せずにいつまでもうろつき回っている」라는 표현에서 「餌を求めて」 등의 이동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25) 犬の転げ回る緑の庭には小さくて美しいプールまである。

(『恋愛中毒』 p.70)

26) 前の晩、どんなに遅くても、また事件で走りまわっていても、六時になると、一度は必ず目がさめるのだ。(『砂の器』 p.356)

27) …いわゆる『ブランドライター』たちは、他の連中が浮かれている時でも、赤字覚悟で取材に飛び回り、じっくりと自分の企画を練った上で粘り強く営業活動を続けていた人間ばかりだった。(『迎え火の山』 p.77)

28) そのせいか、通常よりひと月も早く越冬穴に潜り込んでしまうクマガいたかと思うと、冬眠せずにいつまでもうろつき回っている瘦せグマもいたくらいだ。

(『邂逅の森』 p.334)

양태구조의 복합동사는 이동의 목적 뿐 아니라, 이동 주체의 이동시의 상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29)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 주체 「父子四人」은 차에 탄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부사구 「車ごと」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9) a. また、岸壁から車ごと海に飛び込んだ父子四人の悲劇も記憶に新しい。

(『伊香保殺人事件』 p.125)

b. 父子四人が(車に乗っている状態で)海に飛び込んだ。

이와 같이 양태구조는 이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동의 이유□ 목적 뿐 아니라 이동 주체의 이동시의 상태를 복합동사의 구성요소가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1.2.2 동작의 구체성

양태구조로 볼 수 있는가는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구체성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歩く」라는 동작은 「一步一步踏みしめて進む」 등과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나 전향동사가 이동을 함의한다고 하더라도, 동작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는 양태구조로 간주하기 어렵다.

어떤 지점 혹은 장소를 통과함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로 「歩き通す」「擦り抜ける」「走り抜ける」「通り過ぎる」「通り抜ける」「通り越す」등이 있다. 양태구조 30)의 전향동사 「走る」는 「両足を素早く動かして移動する」와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30) 「ええ、そうよ」と声を返して、由佳はステップを踏むようにリズムをつけて踊り場を走り抜けた。(『伊香保殺人事件』 p.63)

그러나 31) 32)의 전향동사 「通る」는 통과한다는 이동의 의미는 내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31) 32)에서 알 수 있듯이, 「V1しながらV2」 또는 「V1ようにしながらV2」라는 의미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通り過ぎる」 「通り抜ける」은 양태구조로 간주할 수가 없다.

- 31) 背広姿の男が、彼女の前を通り過ぎ、自動券売機の前へ進んでゆく。  
(『あふれた愛』 p.176)
- 32) 長い列を作っているエコノミーのカウンターを通り抜け、先生はビジネスクラスのカウンターへ向かった。(『恋愛中毒』 p.164)
- 30) '踊り場を走りながら抜けた。
- 31) ' ? 彼女の前を通りながら過ぎる。
- 32) ' ? エコノミーのカウンターを通るようにしながら抜ける。

「走り抜ける」와 마찬가지로 33)의 「すり抜ける」도 양태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전향동사 「擦る」은 좁은 장소나 군중 속을 「ぶつからないよう体をかわしながら」라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중의 부사구 「狭い廊下だったし」가 그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 33) 瞬間、関川は、顔を横に振って、彼のそばをすり抜けた。狭い廊下だったし、とっさに引き返すこともできなかった。(『砂の器』 p.139)

전향동사가 이동을 함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34)의 「苦しんで手足を動かしながら」라든가, 35)의 「相手が気づかないうちにそっと」와 같이 비유적 양태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 34) 腰まで埋まりながら雪の中をもがき歩いた結果が、ひと眠りをして、体のいたるところで痛みとなって目覚めかけていた。(『ホワイトアウト』 p.322)

35) だが実際には、自分のすぐ近くまで忍び寄ってき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栄光一途』 p.350)

「駆け巡る」는 「駆け回る」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를 뛰어다닌다는 의미인데, 36)과 같이 カ格名詞가 有性名詞인 경우는 전향동사가 「はや<走る」라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나, 37)과 같이 カ格名詞가 事柄名詞인 경우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등이 작용하게 된다.

36) 猪が山野を駆け巡っている。

37) グァーッという咆哮が霧を裂き、森中を駆け巡った。(『邂逅の森』 p.117)

즉, 같은 형태의 복합동사라고 하더라도 カ格名詞의 종류에 따라 복합동사의 의미가 변화하여, 구조적으로도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38)의 ヲ격 명사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므로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39)의 ヲ격 명사는 어떤 난관, 시련과 같은 추상적인 벽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경우의 「乗り越える」는 [극복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전향동사의 동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양태구조라고 볼 수도 없다.

38) その中を、彼は五人の男たちとともに鉄条網の張り巡らされたフェンスを乗り越え、工場の北側に位置する第二倉庫の裏まで走り、そして今、積み上げられた資料の物陰で息を殺しうずくまっていた。

(『ホワイトアウト』 p.42)

39) 近いうち、多分今年中にも壁にぶち当た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それをいかに乗り越えていか。(『栄光一途』 p.86)

물론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40)의 「立ち寄る」와 같이 전향동사의 본의가 희박해져서 후향 동작을 강조하는 접사적 기능을 하거나, 41)의 「登り結める」와 같이 후향동사가 접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는 양태구조로 볼 수 없다.

40) 偶然に立ち寄った銀行で強盗事件に巻き込まれて、犯人に射殺されたのだ。

(『完璧な病室』 p.20)

41) つづらに折れながらも、稜線を目指して南東の方角に向かって登り結めてゆく途中、空に高く昇った月から降り注ぐ月光に、登山者は真正面から相對することになる。(『迎え火の山』 p.116)

이와 같이 양태구조로 간주할 수 있는 복합동사는 「V1しながらV2」 또는 「V1ようにしながらV2」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전향동사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전향동사가 이동을 함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동을 함의하지 않은 경우도 「～と」「～ように」와 같은 비유적 양태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유적 양태에 대해서는 [4.2.2]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 4.2.1.3 결합특성 및 내부구조

의지적인 이동의 경우는 42)와 같이 [의지동사+의지동사], 무의지적인 이동의 경우는 43)과 같이 [무의지동사+무의지동사]로 결합되어 있다. 어느 경우나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이다.

42) もどかしくなり、階段を駆け上がった。六階に着くと、さすがに息が上がり、足



がふらつく。(『あふれた愛』 p.30)

- 43) 夜汽車の暗い窓から紙を散らしていく女。闇の中に紙片がばらばらになって舞いあがり、線路にこぼれていくさまが目につかんだ。(『砂の器』 p.304)

「忍ぶ」라는 동사는 본래 「こらえる」「かくす」를 의미하는 타동사이다. 그런데 복합동사의 전항으로 결합한 44)에서는 자동사적으로 사용되어 「相手が気づかないうちにそと」라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忍び出る」는 복합자동사가 된다.

- 44) 彼は廊下に忍び出た。(『砂の器』 p.139)

또한 「練る」라는 동사는 타동사 용법과 자동사 용법을 가진 양용동사인데, 45)의 전항동사 「練る」는 「行列を整えて歩く」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양용동사 「にじる」도 46)에서는 「膝をおしつけるようにして、じりじりと動く」라는 자동사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練り歩く」「にじ寄り」는 복합자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5) その二月には日本軍が海南島を占領したので、ささやかな旗行列がK町を練り歩いた。(『青の時代』 p.38)

- 46) 文枝のそばへ膝でにじり寄った富治は、伸ばしかけた手を慌てて引っ込めた  
(『邂逅の森』 p.354)

이와 같이 본동사가 타동사 또는 양용동사인 경우라도 양태구조의 전항 요소로 결합하게 되면, 자동사로 기능하게 되므로, 양태구조는 자동사로만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전향동사는 格名詞의 이동이 의지적이든 무의지적이든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데<sup>63)</sup>, 어떤 후향동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복합동사의 내부구조는 달라진다. 이동의 경로에 초점을 두는 후향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동작+동작] 구조가 되며, 기점 또는 착점에 초점을 두는 후향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동작+변화] 구조가 된다. 즉, 47)의 「～ている」 형이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미 완료상, 48a) 48b)가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sup>64)</sup>.

47) 野球の選手たちがグラウンドを走り回っている。

48) a. ねこが階段から転げ落ちている

b. ボールが教室に飛び込んでいる。

이동을 나타내는 양태구조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9)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의 양태구조

(1) 의지적인 이동과 무의지적인 이동이 있으며 이동주체에 제한이 없다. ( 예: 5) 「這い出る」 / 7) 「噴き出す」 )

(2)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는 [수식+피수식] 의 관계이다.

(3) 이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복합동사의 전향 또는 후향이 이동의 목적 및 이동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4) [의지동사+의지동사] 또는 [무의지동사+무의지동사]로 결합되어 있다. ( 예: 42) 「駆け上がる」 / 43) 「舞い上がる」 )

63) 松本 曜 ( 1998 ) 는, 「前項動詞で表された動作が繰り返し起こり、その繰り返しが、後項動詞で表された移動の全体にわたって行われる」 라고 설명하고 있다.

64) 影山太郎□由本陽子 ( 1997 ) 에서는 「30分で」 「30分間」 과 같은 시간과의 관계로 테스트하고 있다.

(5)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자동사이다.

(6) 내부구조

① [동작+동작] 구조 : 10) 「滑<sup>リ</sup>降<sup>り</sup>る」(경로)

② [동작+변화] 구조 : 8) 「滑<sup>リ</sup>落<sup>ち</sup>る」(기점)

12) 「驅<sup>け</sup>乗<sup>る</sup>」(착점)

(7) 「V1しながらV2」 또는 「V1ようにしながらV2」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전향동사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4.2.2 이동 이외의 경우

[4.2.1]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이유는, 동시적 관계인 부대상황구조와 구분되는 의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동 이외의 양태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의지적인 동작과 무의지적인 동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4.2.2.1 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 4.2.2.1.1 [타동사+타동사]형의 경우

「食べ散らかす」는 「食<sup>い</sup>散<sup>ら</sup>す」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지저분하게 흘리며 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50)에서는 후향동사 「散<sup>ら</sup>かす」가 구체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50) 母は食べ散らかしたテーブルの上に煙を吐き出し、おばさんは油のついた指をなめた。(『ホテル□アイリス』p.51)

그러나 [타동사+타동사]형의 대부분은 비유적으로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51)은 전향동사가 「見る」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몰래 보는 동작을 마치 물건을 훔치듯 한 양태에 비유한 것이다. 비유적이라고 하더라도 「他人に気づかれないようにしながら」와 같이 동시적이라는 조건이 따르게 되며 전향동사가 후향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盗み見る」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52)는 눈치를 살피듯 힐끗 엿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1) 周囲の乗客も、知らないふりをしているか、気まずそうな表情で母子の姿を盗みみている。(『あふれた愛』p.10)

52) 寿司を食べ、酒を少しずつ飲みながら私は創路功二郎の横顔を窺い見た。  
(『恋愛中毒』p.77)

보는 동작 뿐 아니라 마시는 동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53)의 전향동사 「むさぼる」는 마시는 동작의 양태를 [마치 탐하듯이 게걸스럽게]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52)와 마찬가지로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53) 差配に軽くあたまを下げた永吉は、井戸桶を両手に抱えてむさぼり飲んだ。  
(『あかね空』p.11)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글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54)는 후향동사가 「あたかもなぐるかのように」라는 의미로 전향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盗み見る」의 주동사는 후향동사인 데 비해, 「書き殴る」의 주동사는 전향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유적 양태에 있어서는 [타동성 조화의 원칙]은 지켜

지고 있으나, [우측 주요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54) 太郎はノートの裏に自分の名前を書き殴った。

그런데 「書き殴る」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55)에서는 전향동사가 후향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殴り書く」는 기존의 복합동사인 54)의 「書き殴る」와는 반대로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복합명사 「殴り書き」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65)</sup>. 54) 55)도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55) 青い封筒の中央には「花塚正嗣殿」と崩れた文字が殴り書かれている。  
(『栄光一途』 p.390)

동작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경우, 통상 56)과 같이 부사구 「～ように」로 나타내게 되는데, 양태구조의 복합동사에서는 「盗み見る」「書き殴る」와 같이 전향동사 또는 후향동사가 그러한 의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踏み出した瞬間、顔までが粗目まじりの雪の中に埋まった。泳ぐようにかき分け、何とか雪の上に顔を出した。(『ホワイトアウト』 p.143)

복합동사의 전향요소로 결합하여 본의가 희박해 지게 되면 상당히 추상

65) 石井正彦(1984)에 의하면, 복합동사에 대응하는 복합명사형은 전향과 후향이 역순으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복합명사형에 있어서는 후향이 주동사이기 때문이다.

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데 57)과 같은 경우이다. 「叩き売る」는 「叩くよに売る」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혹은 선전을 목적으로 헐값으로 마구 팔아치운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비유의 정도가 보다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7) どうせなら華々しく喧嘩してあんなアパートマン叩き売ろうと思った。

(『30年の物語』 p.212)

반면, 58)은 후향동사 「飛ばす」가 추상화된 경우이다. 「書き飛ばす」는 일부분을 빠뜨리고 쓰거나, 문장이나 원고 등을 다듬지 않고 빨리 쓰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58)은 후자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변화] 구조이다

58) あちこちに書き飛ばした雑文をまとめて本にし、それが書店に平積みされるようになった。(『恋愛中毒』 p.43)

분석한 바와 같이 [타동사+타동사]형의 양태구조는 대부분 양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작+동작] 구조이거나 [동작+변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을 나타내는 양태구조는 전향이 양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동 이외의 경우에는 전향 또는 후향이 양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사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 4.2.2.1.2 [자동사+자동사]형의 경우

[4.2.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양태구조는 결합 특성의



로, 의지적인 이동일 경우는 [의지동사+의지동사], 무의지적인 이동일 경우는 [무의지동사+무의지동사]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동 외에 동작의 양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그러한 결합상의 제한이 없다. [자동사+자동사]형인 59)는 전향동사가 의지동사, 후향동사가 무의지동사로 구성된 [동작+변화] 구조이다. 「踊り狂う」는 가格名詞 「モレ」의 춤추는 동작이 강하고 민첩하다는 것을 후향동사 「狂う」가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59) 顔の前を一閃した切っ先が、着ている衣を切り裂いた。津波のような歓聲がある。剣を打ち鳴らし、踊り狂うモレ。(『まほろばの疾風』 p.219)

60) 61)은 전□후향이 모두 의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60)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가格名詞가 기듯이 납죽 엎드려 있는 자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자세 변화의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전형적인 양태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61)의 후향동사 「起きる」는 자세 변화 동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튀듯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적인 동작의 측면을 「跳ねる」에 비유한 것이다.

60) 大の大人が朝から庭ではいつくばってれば、子供でなくても、何かを落としたと思うだろう。(『奇跡の人』 p.115)

61) 突然、彼は地を放り出して跳ね起きた。(『砂の器』 p.42)

이와 같이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자동사]형의 양태구조는 극히 드물다. 자동사가 나타내는 의지적인 동작은 주로 이동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지적인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타동

사+타동사]형과 [자동사+자동사]형이 각각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에 존재하는데,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동작+동작] 또는 [동작+변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 4.2.2.2 무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자동사가 나타내는 의지적인 동작은 주로 이동과 관련되지만, 무의지적인 동작은 대부분 감정 표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감정을 나타내는 무의지적 동작<sup>66)</sup>의 양태 표현은 주로 양태부사에 의하며, 복합동사 전향 또는 후향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 「笑う」의 경우를 보자. 『日本語逆引き辞典』(1992)에 의하면, 「笑う」를 후향으로 하는 복합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笑う」를 전향으로 하는 복합동사는 약 38語정도이다<sup>67)</sup>. 적지 않은 수이지만, 복합동사 「笑い~」는 크게 4종류로 의미 분류할 수 있다.

(A) 후향동사가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경우 :

「笑い流す」「笑い上げる」「笑いあう」「笑い捨てる」「笑い飛ばす」「笑いほうむる」「笑いかける」「笑いぐずす」「笑いぐずれる」 등.

(B) 병렬구조인 경우 :

① 「嘲笑する」 : 「笑いあざける」「笑いあなずる」「笑いつける」 등.

② 「笑って大騒ぎする」 : 「笑いさわぐ」「笑いどよむ」「笑い消す」 등.

(C) 보문구조인 경우 : 「笑い止む」

66) 孫 東周 (2005a)에서는 무대자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유대자동사가 나타내는 동작과 다르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의도성의 유무와 관련하여 감정동사 「泣く」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의지성의 유무만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67) 『日本国語大辞典』(1981)에 의한 것이다.

(D) 양태구조인 경우 :

①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 「笑い込む」 「笑い寄る」

② 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 :

「笑い入る」 「笑いこける」 「笑いころげる」 「笑いころぶ」

③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 : 「笑いさざめく」

이와 같이 양태구조로 분류되는 「笑い~」 중, 이동을 나타내는 두 경우 즉, 「笑い込む」(「笑いながら入<sub>レ</sub>込む」)와 「笑い寄る」(「笑いながら近づ<sub>ク</sub>」)를 제외하면, [D②]와 [D③]으로 분류된 5語 정도가 「笑<sub>ウ</sub>」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D②]의 복합동사 4語는 유의어로 간주할 수 있는 [동작+동작] 구조이다. 「笑い転げる」를 예로 든다면, 62)에서 알 수 있듯이 후향동사 「転げる」는 몸을 격하게 움직이면서 심하게 웃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62) 私たちは肩をぶつけ合って笑い転げた。(『30年の物語』p.28)

「笑いさざめく」의 경우, [D③]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63)에서 알 수 있듯이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어 대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3) …二十組ほどの若いカップルがぎっしりと並び、好奇心丸出しの人の好きそうな顔で、私を挑めて笑いさざめいていた。(『30年の物語』p.149)

이와 같이 「笑<sub>ウ</sub>」를 구성요소로 하는 양태구조의 복합동사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양태부사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일본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64)의 「にたにたと」는 기분 나쁘게 히죽거리는 경우에, 65)의 「ニヤニヤ」는 능글맞게 놀리듯 히죽거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양태부사이다.

64) 檻に入った動物でも見るように、にたにたと笑う戸塚の顔がガラス越しに迫る。

(『ホワイトアウト』 p.63)

65) 三好刑事はニヤニヤ笑って、急に表情を引き締めると、須美子の目をまっすぐ視き込んで言った。(『伊香保殺人事件』 p.39)

또한 66)은 거리낌 없이 큰소리로 꺄꺄거리는 양태를, 반대로 67)은 소리 죽여 킁킁거리는 양태를 표현하고 있다<sup>68)</sup>.

66) 何が可笑しいのかげらげらわらいながら助手席に乗込んでくる。

(『恋愛中毒』 p.112)

67) 私は自分の部屋の粗末なベランダで夕焼けを眺め、一人ですすすと笑った。

(『恋愛中毒』 p.118)

물론 양태 구조의 복합동사 「笑い転げる」가 같은 문맥에서 양태부사 「身を振りながら」「カラカラと」등을 동반하게 되면, 68)과 같이 사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68) やは剥き出しになった両腕で、自分を抱きかかえるようにして、身を振りながら、カラカラと笑い転げていた。(『まほろばの疾風』 p.21)

---

68) 보다 구체적으로는 仁田義雄(2004)를 참조.

「笑」을 구성요소로 하는 복합동사에 비해서는 「泣」을 구성요소로 하는 복합동사의 양태 표현이 비교적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69)는 [동작+동작] 구조로, 전향동사가 목메어 격하게 우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 69) 阿仁の鉾山で、小太郎と同様にむせび泣いていた慎之介の面影が蘇った。  
(『邂逅の森』 p.289)

「噎」도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70b)에서 알 수 있듯이, 「泣」 동작이 행하여지는 동안 계속적으로 코를 훌쩍거리는 동작이 동반되는 [타동사+자동사]형이지만, 복합동사 전체로는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4.2.2.1.2]에서 분석한 「踊」와 마찬가지로 [의지동사+무의지동사]이지만, 「踊」는 의지적인 동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동작+변화] 구조인데 비해, 「噎」는 무의지적인 동작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동작+동작] 구조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71)은 物名詞를 의인화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 70) a. ついに彼女は誠の机の上に顔を伏せて噎泣いた。  
(『青の時代』 p.147)  
b. 小きぎみにすすりあげるようにしながら泣く  
71) 窓がなく、すすり泣くような音を立てて換気扇が回っていたのを、ぼくは今も覚えている。(『奇跡の人』 p.28)

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72)는 숨을 몰아쉬며 어깨를 떨고 우는 양태를, 73)은 소동을 피우듯 큰 소리로 울부짖는 양태를 각각의 후향동사가 나타내고 있다.

- 72) それにも増して、これほど悲痛な声で泣きじゃくるとは、いったいどうしたことなのか…。(『邂逅の森』 p.169)
- 73) 面倒だったのは、母親が何度も電話をしてきて「どうして帰って来ないのか」と電話口で泣きわめくことぐらいだった。(『恋愛中毒』 p.289)

한편 74)는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우는 경우인데, 후향동사 「崩れる」가 추상적으로 의미 변화하여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 74) 私が言い返したとたん、母はまた大袈裟な声をたてて泣き崩れた。  
(『恋愛中毒』 p.248)

「苦しむ」「悲しむ」등은 工藤(1997)<sup>69)</sup>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적 전개성은 있지만, 외적운동동사(「食べる」「歩く」「読む」등)와는 구분되는, 人名詞의 내적 사상을 나타내는 「内的情態動詞」이다. 75)의 전향동사는 「苦しむ」라는 내적 괴로움을 동적 양태로 나타내고 있다. 즉, 내적인 감정, 감각은 직접 체험에 의한 것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動き」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외부로 표출한 것이 전향동사이며, 고통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もがき苦しむ」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 75) もがき苦しむマリの姿を、私は詳細に思い描くことができます。  
(『ホテル□アイリス』 p.157)

69) 工藤真由美(1997)는 「アスペクト対立の有無」라는 관점에서, (A) 外的運動動詞 (B) 内的情態動詞 (C) 情態動詞로 3분류하고 있다.



76)에서도 전향동사는 구체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ため息しながら悲しむ」를 의미한다. 「もがき苦しむ」와 마찬가지로 [동작+동작] 구조이다.

76) そうしたら、靈は醜くなった自分の姿に氣がつき、大いに嘆き悲しむだろう。  
(『まほろばの疾風』 p.28)

有性名詞의 무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77)은 바둥거리는 동작의 정도가 거세고 난폭하다는 것을 전향동사 「暴れる」에 비유하고 있다. 75)의 「もがき苦しむ」는 전향동사 「もがき」가 수식성분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후향동사 「もがく」가 주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7) おそらくは去年の秋、余所者が仕掛けたくぐり罠に掛かり、暴れもがいているうちに、鋼鉄のワイヤーで足首が切断されてしまったのだ。  
(『邂逅の森』 p.118)

감정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78)은 노발대발하는 양태를 후향동사 「狂う」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고 있다는 것은 부사구 「たがが外れたように」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8) たがが外れたように怒り狂った富治からしたたかに打ち据えられた鉄蔵と爲吉は、それぞれ前歯が数本ずつ折れ、鼻が潰されただけで、命に別状はなかった。(『邂逅の森』 p.176)

人名詞의 감정을 나타내는 「怒る」와 같은 동사가 자연 현상에 비유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79)가 그것이다. 79) 80)은 급변하는 기상 변화가, 거세고 격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9) 空が怒り狂っている時に子どもを産み落とした意味を、彼女は知らず知らず考えていた。(『おほろばの疾風』 p.7)

80) 短期帰国の予定が、母の三回にわたる入退院で延びに延び、その間、異常気象でパリに荒れ狂った大暴風雨。(『30年の物語』 p.198)

의지적인 동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무의지적 동작에 있어서도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人名詞의 내적 감정은 「笑う」「泣く」와 같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苦しむ」「悲しむ」와 같이 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태구조는 그러한 감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무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양태구조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를 전형으로 하고 있다.

이동 이외의 양태구조를 의지적인 동작과 무의지적인 동작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1) 이동 이외의 동작을 나타내는 양태구조

##### (1) 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① [타동사+타동사]형의 대부분은 비유적으로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대상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굳이 두 동사가 수식관계로 결합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② 자동사가 나타내는 의지적인 동작은 주로 이동과 관련되므로

[자동사+자동사]형의 양태구조는 극히 드물다.

- ③ 동작의 양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의지성의 유무에 따른 결합상의 제한이 없다.

(2) 무의지적인 동작의 경우

- ① 무의지적인 동작은 대부분 내적인 감정 표현과 관련된다.
- ② 감정동사를 복합동사 구성요소로 하는 양태구조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 ③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함으로써 내적 감정의 정도를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비유적인 경우는 물론, 「笑い転げる」와 같이 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우측 주요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본 장에서 분석한 양태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의지성의 유무에 따른 양태 구조의 제 양상 〉

| 의지<br>유무    | 동사      | 구성<br>요소        | 내부구조    | 양태       | 의미관계                                        | 복합동사  | 구문               | 비<br>고 |
|-------------|---------|-----------------|---------|----------|---------------------------------------------|-------|------------------|--------|
| 의<br>지      | 이동      | 자동사<br>+<br>자동사 | 동작 + 동작 | 전향       | V1しながらV2                                    | 走り回る  | 자<br>동<br>사<br>문 | -      |
|             |         |                 | 동작 + 변화 | 전향       |                                             | 這い出る  |                  |        |
|             |         |                 | 동작 + 동작 | 전향       | V1するかの<br>ようにV2する<br>□<br>V2するかの<br>ようにV1する | 滑り降りる |                  |        |
|             | 자동      | 자동사<br>+<br>자동사 | 동작 + 변화 | 후향       |                                             | 踊り狂う  |                  |        |
|             |         |                 | 동작 + 동작 | 전향       |                                             | 盗み見る  | 타<br>동<br>사<br>문 | 비<br>유 |
|             |         |                 | 동작 + 동작 | 후향       |                                             | 書き殴る  |                  |        |
| 무<br>의<br>지 | 이동      | 자동사<br>+<br>자동사 | 동작 + 동작 | 전향       | V2しながらV1                                    | 舞い上がる | 자<br>동<br>사<br>문 | -      |
|             | 동작 + 변화 |                 | 후향      | 怒り狂う     |                                             |       |                  |        |
|             | 동작 + 동작 |                 | 후향      | 笑い転げる    |                                             |       |                  |        |
|             | 동작 + 동작 |                 | 전향      | V1しながらV2 | もがき苦しむ                                      |       |                  |        |
|             | 타 + 자   |                 | 동작 + 동작 | 전향       | V1しながらV2                                    | 噉り泣く  |                  |        |
|             | 감정      | 자동사<br>+<br>자동사 | 동작 + 동작 | 전향       | V1しながらV2                                    | 噉り泣く  |                  |        |
|             |         |                 | 동작 + 동작 | 전향       |                                             | 噉り泣く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내부구조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 또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후향동사가 나타내는 변화는 格名詞의 변화가 아니라, 이동의 기점 혹은 착점을 나타내는 경우이거나 비유적인 경우이다. 비유적인 경우를 제외 한다면, [타동사+자동사]형은 「噉り立く」 정도인데, 이 경우도 복합자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태구조의 복합동사는 자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초점을 두는 어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 제 5장 부대상황구조

### 5.1 부대상황구조란

전향동사 또는 후향동사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구조이다. 부대상황이란 주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따른 주변적 상황, 즉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행위의 목적, 또는 동작 시에 수반되는 주체의 상태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대상황은 1)의 「群れをなして」와 같이 문중의 부차성분인 부사구가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대상황구조에서는 2)와 같이 복합동사의 구성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 1) ピシャッ とかなり大きな音で飛びはねる池の真鯉や、野鴨が群れをなして遊び騒ぐ声。(『30年の物語』 p.117)
- 2) プラハでは街中の公園で、子供たちが群れ遊ぶ同じ場所で、リスたちも一緒に群れ遊んでいたのを憶い出した。(『30年の物語』 p.114)

부대상황구조의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는 동시적이며, 「V1しながらV2」 혹은 「V1していながらV2」, 「V1するためにV2」라는 의미관계에 있다. 구성요소 간에 [수식□피수식]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태구조와 구분된다.

## 5.2 부대상황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5.2.1 시간과의 관계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는 동시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우선 양태구조에서의 시간이라는 요소는 전□후항의 의미관계에만 고려되는 사항일 뿐, 구성요소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부대상황구조는, 「なげき明かす」「語り明かす」「遊び暮す」에서 알 수 있듯이, 후항동사에 시간의 흐름이 내포된 복합동사로, 외적인 요소와 동작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은 전항이 나타내는 동작과 후항이 나타내는 시간의 경과 즉, 「(夜を)明かす」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태로, 「なげきながら夜を明かした」를 의미한다. 양태구조와 구분되는 점은, 행위와 시간이 독립적인 事象이므로, 「なげく」라는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3) みんなはその殺人事件のことでまんじりともせずになげき明かした。

또한, 양태구조 4)는 전항의 「笑う」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후항이 나타내는 동작의 양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비유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동사와 후항동사는 동작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대상황구조의 구성요소를 보면, 동작성이 없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주 성분이 되고, 반복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동사가 부차성분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양태구조가 동작만을 나타낸 것인데 비해, 부대상황구조는 동작과 시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자는 동작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 4) …こんなにあったのかと思うほどに様々な食べ物が供されて、酔いの回った人々が、柵戸も俘囚も区別なく、そこここで笑い転げている。

(『おぼろばの疾風』 p.126)

「なげき明かす」의 주동사는 후향동사 「明かす」인데, ㄱ格을 취하고 있는 것은 ㄱ格名詞가 ㄱ格名詞 「夜」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3차원적 공간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의 타동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70)</sup>. 전향동사 「なげく」는 양용동사이지만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なげき明かす」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변화] 구조이다.

한편, 시간을 지배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ㄱ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만은 아니다. 5)는 ㄱ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이지만, 6) 7)은 ㄱ格名詞의 의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우이다. 5)의 경우에 있어서도 ㄱ格名詞의 의도는 밤을 새는 것이라기보다 술을 마시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5) 今夜は飲み明かそう。  
6) 明日からテストなのに飲み明かしてしまった。  
7) 友だちと話をしあっている間、日が暮れた。

부대상황구조의 복합동사 「～明かす」가, 밤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예상 밖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遊んで日々を過す」를 의미하는 8)의 「遊び暮す」도, 통상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생활 패턴을 표현하고 있다. 후향동사 「暮す」는 [(시간을)보내다]를 의미

70) 웨슬리 □M□야코브센(1989)은, 「廊下を走る」와 「廊下で走る」에 대해, 장소를 나타내는「で」가 단지 이동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반해,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데도 「を」가 사용될 때는, 그 장소를 전면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동작주가 대상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타동원형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의 관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것이다.

하지만, 뭔가 뚜렷이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시간만 보낸다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미지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遊び暮す」는 [자동사+타동사]로 구성된 복합타동사로 [동작+동작] 구조이다.

8) 父から譲り受けた莫大な遺産で遊び暮す。

이와 같이 부대상황구조는 복합동사 구성요소가 시간이라는 외적인 요소와 직접 관련되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두는 어 구조이다. 구성요소가 양용동사인 경우라도 복합동사 전체로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부대상황구조는 시간적 요소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대상황구조의 주동사가 동작동사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5.2.2 동작에 수반되는 부대상황

문중의 부차성분이 9)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동시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遊び待つ」라든가 「こすり歩く」와 같이 하나의 복합동사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태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차성분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관계이어야 하는데, 9)의 「遊ぶ」와 「待つ」는 각각 별개의 사태이기 때문에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9) 私たちは少し離れた場所で、けんけんばあやだるまさんがころんだをして遊びながら待った。小さな棒きれを拾い、それで柵をからからとこすりながら歩いたりもした。(『流しのしたの骨』 p.6)

그렇다면 부대상황구조의 경우는 어떠할까? [5.2.1]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시간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과 동작이 하나의 사태로 간주되어 복합동사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적인 관계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는 「～していながら」 또는 「～の状態で」와 같이, カ格名詞가 어떤 상태에서 동작을 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게 된다. 10)에서 문중의 부사구 「顔を伏せて」는 カ格名詞가 어떤 자세, 상태에서 울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대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차성분을 복합동사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10) ついに彼女は誠の机の上に顔を伏せて啜り泣いた。(『青の時代』p.147)

「待つ」를 전향으로 하는 11a)는 カ格名詞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カ格名詞를 기다리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의 몸을 숨긴 상태에서(잠복하여) カ格名詞를 기다리는 경우라는 것을 11b)에서 알 수 있으며, 후향동사가 부대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11) a. その初夏の日は多分、帰り道に五年生の猛者が待ち伏せているという噂が飛んでいたの、次兄が護衛かたがた一緒に帰ってくれたのである。

(『青の時代』p.17)

b. 五年生の猛者が僕らを待ち伏せている。

또한 12)의 「待ちかまえる」는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라는 것을 후향동사가 나타내고 있으며, 13)의 「待ち受ける」역시 カ格名詞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로, 의미상으로는 12)와 같다고 볼 수 있다.

- 12) 髪の薄い男が涼しげな表情で待ちかまえていた。(『ホワイトアウト』 p.63)
- 13) タクシーで自宅に戻ると、思いがけなく無鶴東署の刑事が二人、優子の帰りを待ち受けていた。(『蜃気楼』 p.93)

14) 15)는 가격名詞가 어떤 심리상태에서 「待つ」 동작을 행하는가를 후향동사가 나타내고 있다. 14)는 가격名詞가 하루 밤낮을 애태우며 실험 결과를 기다린 경우인데, 후향동사 「こがれる」는 자동사이지만, 「待つ」와 결합함으로써 복합동사 전체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즉, 후향동사가 품사를 결정하지만, 복합동사의 자□타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향동사가 심리상태를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작 + 동작] 구조이다. 또한 15)는 어떤 기대를 갖고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작 + 동작] 구조인데, [타동사 + 타동사]형이라는 점이 14)와는 다르다.

- 14) この液体に還元した血痕を、杭人血色素という血清を使用して試験管の中に入れると、丸いような白い輪が出るのだ。これで、はっきりと人血と決定できるのである。今西が待ちこがれた一昼夜が過ぎた。(『砂の器』 p.321)
- 15) 「やがて川部智康や羽田典佳が待ち望む夏が来るんですよ」  
(『栄光一途』 p.484)

한편 16)은 자연 변화 현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경우이고, 17)은 事柄名詞인 [함정]이 대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당히 추상화한 경우이다.

- 16) むろん、それと引き換えに、冬になればうんざりするほどの雪おろしの日々が待ち構えている。(『迎え火の山』 p.94)
- 17) ところが、そのルー トには思わぬ落とし穴が待ち受けている。

이상 「待つ」를 전향으로 하는 복합타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飲み明かす」와 같이 시간에 따른 부대상황의 경우라든가, 후술하는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동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대상황구조의 복합동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타동성이 강한 타동사는 통상 두 동사가 결합하여 ㄱ格名詞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지만,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待つ」와 같이 ㄱ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ㄱ格名詞와의 관계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유의어로 결합하여 동작을 강조하거나 동작에 수반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자동사+자동사]형의 경우를 보자. 18)에서는 전향동사가 부대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群れ遊ぶ」는 「群れをなしていながら」 즉, 때를 지어 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18) プラハでは街中の公園で、子供たちが群れ遊ぶ同じ場所で、リスたちも一緒に群れ遊んでいたのを憶い出した。 (= 2)

19)에서도 가格名詞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전향동사가 「住む」행위에 따른 부대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隠れ住む」는 [변화+동작]구조이다.

- 19) 「なんでも、奥さんを殺して、ここへ逃げてきたっていう噂もあるらしいよ。だからわざわざ、あんな小さな島に隠れ住んでるんだって」

(『ホテル□アイリス』 p.51)

무의지적인 동작의 경우도 있다. 20)의 후향동사 「伏す」는 「泣く」동작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양태가 아니라, 가格名詞의 「泣く」행위가 계속되



는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한 상태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즉, 「伏す」는 동작과 동시에 자세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태 구조 「すす<sup>り</sup>泣く」의 전향 「すする」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泣き伏す」는 [동작+변화]구조라 할 수 있다.

- 20) 電力所も一室で、泣き伏す和志の両親と対面し、三人して雪の中をどこかの病院に連れて行かれた。(『ホワイトアウト』 p.63)

복합자동사의 경우도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행위에 따른 부대상황을 나타내는데, 어느 경우나 「～していながら」 또는 「～の状態で」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2.3 이동에 따른 부대상황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는 동시적이라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양태로 볼 것인가, 부대상황으로 볼 것인가는 의미면 뿐 아니라, [4.2.1.1]에서 분석한 개념구조의 확충 방식으로 양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보기 위해 특히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만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부대상황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을 말하자면,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이동시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名詞格의 의지성이 관여하고 있다. 즉, 양태구조는 이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부대상황구조는 이동의 목적 또는 이동주체의 상태에 초점을 두는 어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 5.2.3.1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제 4장]에서 언급했듯이, 양태구조는 이동의 목적을 부사구 즉, 문 중의 부차성분이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부대상황구조는 복합동사의 구성요소인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21)은 「由香の所在」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이동하는 경우로, 21)와 같이 「V1するためにV2」라는 의미 관계에 있다. 22)의 전향동사 「嗅く」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라는 이동의 목적을 함의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타동사+자동사]형이지만 전향동사가 대격 「ヲ」를 취하는 복합타동사이다.

21) あとは自分の推測、というより頼りない勘に基づいて由香の所在を探し回るしかないか考えた時、ふと思いだした。(『迎え火の山』 p.335)

21)′ 由香の所在を捜すために回る(あちこちへ行く)。

22) どこから攻めていけばよいやら、今のところはさっぱりだが、焦らずに嗅ぎ回ってみるしかない。(『迎え火の山』 p.58)

전향동사일 때의 「歩く」는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지만, 후향동사로 결합하게 되면 「回る」 즉, 「あちこちへ移動する」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23)의 「訪ね歩く」를 23)의 「訪ね回る」로 교체해도 의미의 차를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23) イクの実家を出たあと、富治は集落内の家を一軒一軒訪ね歩いたが、…。

(『邂逅の森』 p.360)

23) イクの実家を出たあと 富治は集落内の家を一軒一軒訪ね回ったが、…。

24)~26)도 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売 り 歩 く」는 25)에서 알 수 있듯이 본디 [행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팔고자하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 라는 전제 조건하에 생성된 복합동사이지만, 「家」와 같이 소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26)에서 알 수 있다. 「求め 歩 く」 「調べ 歩 く」 「触れ 歩 く」 등도 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대상황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전향동사가 대격 「ク」를 취하는 복합타동사이며, [동작+동작] 구조이다.

24) おふみは永代寺門前仲町から冬木町、亀久町と幾つもの町を回り、小鍋から米、油まで永吉に必要な品を買い歩いた。(『あかね空』 p.31)

25) 「自分で行商はなさらないのですか」  
「そうしてる人でもあるにはあるけど、俺は売り歩いてはねえです」  
(『邂逅の森』 p.33)

26) サトウは住宅会社のセールスマンで、家を売り歩いていた。  
(『完璧な病室』 p.151)

그렇다고 복합동사 「~ 歩 く」가 모두 부대상황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4.2.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용동사 「練 る」를 전향으로 하는 27)의 「練 り 歩 く」는 후향동사 「歩 く」가 이동의 경로 「ク」격을 취하는 복합자동사이며 양태구조이다.

27) その二月には日本軍が海南島を占領したので、ささやかな旗行列がK町を練り歩いた。(『青の時代』 p.38)

이와 같이 양태구조의 「ㄱ」 격은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지만, 부대상황구조의 「ㄱ」 격은 대격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양태구조는 대상과 무관하지만, 부대상황구조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합동사의 자□타동성을 결정짓는 것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향동사라는 것을 21)~26)에서 알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8)은 구성요소의 결합 순서 및 동작의 전후 관계로 보아 「出て迎える」라는 [순차적 병렬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동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9)와 같이 「迎えるために出る」로 해석할 수도 있다. 「出迎える」를 후자의 경우로 간주한다면, 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대상황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28)와 같이 「V2するために V1」이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후향동사가 대격 「ㄱ」를 취하는 [자동사+타동사]형의 복합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8) 入国してスーツケースを受け取って、先生が「疲れてるなら成田に車置きとい  
て電車で帰ってもいいんだぞ」なんて心にもない優しいことを言うのを聞き流しな  
がらゲートを出ると、私達を出迎えた人がいた。(『恋愛中毒』p.198)
- 29) やよが引っ込んで入れ違いに、林作が迎えに出たが、林作の様子に、たしか  
に何か、自分に言わずにしていることがある。(『甘い蜜の部屋』p.251)
- 28) ' 人が私達を迎えるために出ている。

30a)와 같은 의지형이라든가, 30b)와 같이 의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사구 「わざと」를 삽입했을 경우 비문이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出会う」「出くわす」등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무의지적인 사태인데 비해, 31)의 「出迎える」는 가格名詞의 의지적인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 4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出迎える」는 후향동사가 격 성분을 취하는 「副次成分の補充」에 해당하지만 전향동사가 양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30) a. \* 駅前で先生に出会おう/ 出くわそう。  
 b. \* 太郎はわざと駅前で先生に出会った。  
 31) 先生がわざわざ駅前までぼくを出迎えてくれた。

어느 항이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간이동이 아닌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타동사+타동사]형인 다음의 경우를 보자. 32)에서 전향동사 「探す」는 「欲しいものを見つけ出すために所々をまわる」라는 의미이며, 후향동사 「求める」는 「手に入れようとして探す」라는 의미이다. 물론 7格名詞가 구체물이 아닌 事柄名詞라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향과 후향이 공통적으로 이동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32)와 같이 7格名詞를 구체물로 교체했을 때, 이동을 함의하는 것은 전향동사라고 볼 수도 있으나, 32)의 문맥상으로 보아 「探し求める」는 공간이동이 아닌 주체의 심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부대상황 구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 32) 見えるはずがない二人の姿を探し求めて暗い山肌に目を向ける。  
 (『迎え火の山』 p.490)

- 32) 'a. \* わすれものを探すために求める。  
 b. ? わすれものを求めるために探す。  
 c. ? わすれものを探すために求め歩く  
 d. わすれものを求めるために探し回る。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향동사가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에 따라, 복합동사 전체의 자타 구분은 물론, 이동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33a)의 「見回す」는 「あたりをぐるりと見る」라는 의미로 *カ格名詞*가 시선을 이동하는 복합타동사이며, 같은 문맥에서 33b)의 「見回る」는 「見ながらまわり歩く」라는 *カ格名詞*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복합자동사이다. 33 b)에서 알 수 있듯이, 「見回る」는 「V1しながらV2」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태구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태구조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인데 비해, 「見回る」는 [타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이다. 즉, 의미상으로는 양태구조이지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부대상황구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部屋(の中)を見るために移動する」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見回る」는 구조적으로 단언하기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된다.

33) a. 彼女を待つあいだ、部屋を見回した。(『あふれた愛』p.284)

b. 彼女を待つあいだ、部屋を見回った。

33) 'a.? 彼女を待つあいだ、部屋を見ながら回した。

b. 彼女を待つあいだ、部屋を見ながら回った。

「見回す」「眺め回す」가 시선의 이동 즉, 시각에 의한 공간 지각 활동을 나타낸다는 것은 34) 3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중의 부차성분 「改札口を出たところで」「その場で足踏みをくり返しながら」가 공간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4) 男性は、改札口を出たところで、周囲を見回した。(『あふれた愛』p.243)

35) 吉岡がその場で足踏みをくり返しながら、見えもしない周囲の景色を眺め回した。(『ホワイトアウト』 p.17)

이와 같이 부대상황구조는 전향 또는 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복합동사의 자□타동성을 결정짓는 것은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항이며, 이동의 경로가 아닌 대격 「ヲ」를 취하는 복합타동사라는 점에서 양태구조와 구분된다.

#### 5.2.3.2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5.2.3.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향 또는 후향동사는 「探す」「買う」「訪ねる」「迎える」와 같은 타동사이다. 그러나 36)의 전향동사 「持つ」는, 타동사이면서도 이동의 목적이 아니라 이동시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持ち歩く」는, 36)에서 알 수 있듯이 「V1의状態でV2」라는 의미 관계에 있으며, 전향동사가 대격 「ヲ」를 취하는 복합타동사로 [상태+동작] 구조이다. 37)의 「持ち運ぶ」도 마찬가지이다.

36) 僕は朝から官庁まわりをしなきゃならんので、書類をもちあるくのが一寸億劫だ。(『青の時代』 p.186)

36) '書類を持っている状態であちこちへ行く

37) 「女の子が普通バッグに入れて持ち運ぶようなサイズじゃないよな」

(『アフター ダーク』 p.30)

착점을 취하는 두 경우를 비교해 보자. 「たどり着く」는 「苦しみ悩みな



よや<行きつゝ> 라는 의미의 양태구조이다. 복합자동사이기 때문에 38)과 같이 착점만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대상황구조 「持ち帰る」는 39)와 같이 착점을 취하기도 하지만, 복합타동사이기 때문에 대격 「ヲ」도 취할 수가 있다.

38) 雪の海を泳ぎ切り よや<窓の前にたどり着いた。(『ホワイトアウト』 p.118)

39) しかし、射止めたクマがあまりに大きすぎて、村に持ち帰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まほろばの疾風』 p.16)

39'a)와 39'b)는 무엇에 초점을 둔 표현인가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착점에, 후자는 대상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V1の状態でV2」라는 의미 관계에 있어서는, 39'b)에 비해 39'a)가 보다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持ち帰る」는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자하는 부대상황구조인 동시에 대상을 필요로 하는 복합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태+변화] 구조이다.

39)' a. クマを村に持ち帰る。

b. 村にクマを持ち帰る。

39)" a.?? クマを村に持っている状態で帰る。

b.?? 村にクマを持っている状態で帰る。

이와 같이 부대상황구조의 전향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 모두 대격 「ヲ」를 취하는 복합타동사이다.

### 5.2.3.3 양용동사의 경우

한편, 양용동사 「連れる」는 통상 「連れている」「連れて行く」의 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40)의 「連れ立つ」는 [동행하다]는 의미이며, 전향동사 「連れる」가 자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같은 문맥에서 40 a)는 성립하지만 40 b)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후향동사 「立つ」가 접미사화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40) 団體や何人か連れ立って來ることもあるが、一人でひっそりと訪れる人も少なくない。(『蜃氣楼』p.12)

40) 'a. 団體や何人か連れて來ることもあるが、…。

b. \* 団體や何人か立って來ることもあるが、…。

40)과 같이 후향이 접미사화한 경우라든가, 「連れ添ふ」와 같이 「夫婦となつて一緒に生活する」라는 관용화된 어휘를 제외한다면, 복합동사 전향으로서의 「連れる」는, 어떤 후향동사가 결합하든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를 보자.

#### 5.2.3.3.1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

41) 42)는 [수단-결과] 구조인데, 전향동사 「連れる」는 타동사로 사용되어 7格名詞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7格名詞가 人名詞이기 때문에 사역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41)은 사역주체가 피사역자의 의지를 무시한 경우로 [강제]를 의미하며, 42)는 사역주체가 피사역자를 [설득]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 41) 刑事が訪問するのは、だれにしても氣持ちがいいものではない。ことに、外に  
連れだされて何をきかれるかわからないとなると、平氣ではいられないだろう。

(『砂の器』 p.344)

- 42) 松葉杖で歩けるようになった田久保さんは、やっと退院が決まったよ、と嬉しそうな顔でぼくらに教えてくれた。そして、急にその笑顔を崩し、その前にいいことを教えてあげるよ、とぼくらに言った。田久保さんはぼくらを中庭へ連れ出した。

(『奇跡の人』 p.192)

43)은 7格名詞인 「私」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로 문맥상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43 a)의 경우라면 [허락]의 의미를 43 b)의 경우라면 [묵인]<sup>71)</sup>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분석하기 어렵다.

- 43) 四日間私を連れ回したのは創路功二郎だけれど、ついて行ったのは私だ。

何も脅されたわけじゃない。(『恋愛中毒』 p.114)

- 43) 'a. 私がついて行きたいと前からいっていたので、創路功二郎先生は私を連れ回した。

b. 私が先に車に乗 <sup>1</sup>込んだので、創路功二郎先生は私を連れ回した。

분석한 바와 같이 양용동사 「連れる」가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人名詞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결과] 구조인 경우에도 사역이 관여하고 있으며, 구조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強制] [説得] [許諾]에 관해서는 [수단-결과] 구조 [2.2.4.2]에서 언급한 바 있다.

[黙認]: 使役主体には動作性がなく被使役者がすでに始まっている、あるいは始めようとしている行為をそのまま放置しておく場合. 孫 東周 (2005a) 참조.

#### 5.2.3.3.2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

「連れる」는 이동을 함의하는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도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44)의 「連れ歩く」는 부대상황구조로 「栄太郎を連れている状態で豆腐の納めに行っている」라는 습관적인 반복행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44) 豆腐の納めにはかならず栄太郎を連れ歩いた。(『あかね空』 p.163)

「連れ帰る」「連れ去る」의 경우, 착점에 초점을 두면 45)와 같이 「ニ」격을, 대상에 초점을 두면 46) 47)과 같이 「ヲ」격을 취하게 되는 복합타동사이다. 전향동사 「連れる」는 이동에 따른 부대상황 즉,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45) 彼は何も言わずに涙と鼻水でぐちゃぐちゃの私を引きずるようにして、自分のアパートに連れ帰った。(『恋愛中毒』 p.291)

46) 一人の娘を連れ帰ったといふけれど、他の動物に掘り返されずに何日も大丈夫なものだろうか。(『まほろばの疾風』 p.54)

47) 開閉所を占拠した侵入者たちは、吉岡の婚約者を連れ去ったのだ。

(『ホワイトアウト』 p.164)

이와 같이 양용동사가 부대상황구조의 전향으로 결합한 경우는 타동사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상황구조의 복합동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48) 부대상황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A. 시간과의 관계

- (1) 동작과 시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동작동사가 부차성분이 되므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明かす」「暮す」등이 ㄱ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3차원적 공간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의 타동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3) 구성요소가 양용동사인 경우라도 복합동사 전체로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 B. 동작에 수반되는 부대상황

- (1) 동작동사가 주동사인 경우는 부차성분이 되는 전향 또는 후향은 ㄱ格名詞의 자세변화, 심리상태를 나타내므로, 「～していながら」□「～の状態で」를 의미한다.
- (2) 타동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동사의 타동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C.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 (1) 의지적인 이동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동주체는 人名詞에 한정된다.
- (2) 기본적으로는 [타동사+자동사]형의 복합타동사이나, 「出迎える」와 같이 [자동사+타동사]형의 복합타동사도 있다.
- (3) 복합동사의 자□타동성을 결정짓는 것은 이동의 목적 또는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전향동사이다(후향인 경우: 「出迎える」).
- (4) 양용동사가 부대상황구조의 전향으로 결합한 경우는 타동사로만

사용된다.

(5) 내부구조

①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동작+동작] 구조 : 21) 「捜し回る」

②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상태+동작] 구조 : 36) 「持ち歩く」

[상태+변화] 구조 : 39) 「持ち帰る」

(6) 「V1するためにV2」 □ 「V2するためにV1」 혹은 「V1の状態でV2」 라는 의미 관계에 있으며, 대격 「ヲ」 를 취하는 복합타동사이다.





## 제 6장 병렬구조

### 6.1 시간관계에 따른 두 종류의 병렬구조

병렬구조는 구성요소인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순차적 병렬구조, 후자를 비순차적 병렬구조라 칭한다<sup>72)</sup>. 影山 (2002: 32)는 「なだめすかす」「忌み嫌う」「慣れ親しむ」와 같은 병렬구조에 대해서 「V1 と V2 の概念構造が単純に“and”で連結されると考えられる」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내부구조 및 전□후향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복합동사 어 구조 중,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된다. 순차적 병렬구조가 [수단-결과] 구조와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 양태구조 및 부대상황구조와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동작, 변화, 상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 6.2 순차적 병렬구조

#### 6.2.1 순차적 병렬구조란

순차적 병렬구조란 복합동사 구성요소 간의 의미관계가 「V1してV2する」 또는 「V1してV2になる」인 어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태를 복합동사로 나타낸 1)과 「て」형으로 나타낸 2)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시간적 전후관계가 성립하고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72) 石井正彦 (2002)에서는 「繼起的並列構造」「非繼起的並列構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합동사만 분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본의를 가진 대등의 관계이다. 내부구조는 물론, 복합동사 구성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에 공존하는 어 구조이다.

- 1) 鉱山の隣村で生まれ育ったとはいえ、その実態となると、富治は何もわかっていないのと同じだった。(『邂逅の森』 p.147)
- 2) きっと創路功二郎は最初から資産のある家庭に生まれて育ったのだ。  
(『恋愛中毒』 p.142)

## 6.2.2 순차적 병렬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6.2.2.1 카격명사에 영향을 주는 동작인 경우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카격명사(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카격을 제외한)를 취한다는 점에서 자동사와 구분된다. 그러나 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반드시 카격명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카격명사에의 영향의 유무에 따라 타동사 구문에서의 순차적 병렬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은 [밟아 뭉개다]라는 의미로 동작 자체에 초점을 둔 순차적 병렬구조이다. 복합동사 「踏みにじる」는 전향과 후향이 카격명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무대타동사+무대타동사]로 구성된 [동작+동작] 구조이다. 그러나 복합동사 자체가 대상의 변화까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 3) 男が消えない煙草の火を、氣が狂ったように踏みつけはじめた。激し踏みにじ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サンダルが地面にあたる音はまった〈聞こえず、赤い火口にも変化はない。(『迎え火の山』 p.397)

カ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동사가 전항으로 결합한 경우는 어떠할까? 「見とがめる」는 「V1してV2する」의 관계로, 「見て氣づく」 또는 「見て問い責める」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보고 눈치를 채다]를 의미하므로 카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카格名詞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4)는 전자의 예, 5)는 후자의 예인데, 4)의 문맥상으로는 보는 동작과 거의 동시에 상황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 후의 사태에 대한 지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렬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それに氣を取られて、左のバンパーが停めてあった車をかすめてしまった。ガリッという音に私は心臓が止まりそうになった。慌ててあたりを見回したが、見とがめた人はいないようだった。(『恋愛中毒』p.213)
- 5) 昨晚、警官に見とがめられた。

「すめる」는 본디 목을 움츠리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재귀용법을 가진 타동사이다. 그러나 6)에서 복합동사 전체가 「抱いて身動きできないようにする」를 의미하므로, 후항동사 「すめる」는 전항동사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抱きすめる」는 「V1してV2する」 관계가 성립하는 순차적 병렬구조로, 카格名詞에 영향은 주지만 역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동작+동작] 구조라 할 수 있다.

- 6) 何も考えずに、危うく文枝を抱きすめてしまうところだった。  
(『邂逅の森』p.354)

「握る」와 같이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sup>73)</sup>가 전항으로 결합한 경

우는 구성요소간의 시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握りしめる」의 경우, 7)에서는 문중의 부사구 「手にした」가 말해주듯이, 자료 묶음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힘을 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握ってしめる」라고 하는 시간적 전후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다.

7) 奥田は壁の地図を見つめながら、手にした資料の束を握りしめた。

(『ホワイトアウト』 p.209)

8) 9)의 경우, 단순히 「力を入れて握る」로 해석한다면 의미 중심이 전향동사에 두어지므로 대등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力格名詞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しっかり持って手離さない」 즉, 「握ってしめる」라는 전후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8) 子供が電車の切符を握りしめる。

9) 太郎が彼女の手を握りしめる。

대등의 관계로 볼 것인가,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가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力格名詞의 종류와도 관련되며, 나아가서는 복합동사 어 구조로 연결되어 진다. 10)의 「踏みしめる」는 「力を入れて踏む」를 의미하므로, 후향동사 「しめる」가 전향 동작을 강조하는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후 시간관계에 따른 분석이 어렵고<sup>74)</sup>, 병렬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73) 仁田義雄(2000)는 「動詞」를 [주체운동□주체변화]라는 의미소성과 [지속성의 유무]라는 의미소성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있는데, 아스펙트와 관련해서는 제 7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74) 影山太郎(2004)는 「ドアを押し開ける」에 대한 「\*開け押す」의 부적격성에 대해 복

カ格名詞가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11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 10) 中学のころ、周囲から虫として扱われ続けた男子がいた。…誰かがそいつの  
名前を呼んで床を踏みしめると、そいつは殺されるようなうめき聲をださなけれ  
ばならなかった。(『空港にて』 p.17)

- 11) a. 坂道を踏みしめて登る。  
b.? 坂道を踏んでしめる。

그러나 12a)의 「踏みしめる」은 「踏んで固くする」을 의미하므로,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전후 시간관계가 분명해진다. 또한 12c)에서 알 수 있듯이, 전향동사 「踏みしめる」은 카格名詞 「土地」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踏み固める」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수단-결과]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 12) a. 土地を踏みしめる.  
b.? 土地を踏んでしめる.  
c. 土地を踏んで固める.

이와 같이 전후 시간관계에 따른 분석의 가부는 관여하는 명사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복합동사 어 구조와도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작+동작] 구조의 순차적 병렬구조는 카格名詞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화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변화를 나타

---

합동사의 형태 즉, 결합 순서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여 [의미와 형태의 「類像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押し開ける」과 같은 [수단-결과] 구조와는 달리, 일부 병렬구조에 있어서는 전후 시간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는 순차적 병렬구조는 없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이 [수단-결과]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로 하자.

13a)의 「分け與える」는 [나누어 주다]를 의미하는데, 13b)와 같이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각각「Aが Bヲ Cニ」의 패턴을 취할 수가 있다. 즉,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취하는 「教える」와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차적 병렬구조「分けて與える」에 있어서는, 전향동사가 취하는 대상과 후향동사가 취하는 대상이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향「分ける」는 (문중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복용 금지된) 약물을 몇 등분으로 나누는 동작을, 후향「與える」는 나누어진 약물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13c)와 같은 의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전향동사는 직접목적어만을, 후향동사는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a. 千里山に渡していたとばかり思ってましたが、柔道選手にも分け與えていたのですね。(『栄光一途』p.391)
- b. Aが Bを Cに 分ける。 / Aが Bを Cに 與える。
- c. Aが Bを (分けて) 、Aが (分けられた) Bを Cに 與えた。

결과적으로는 소유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分け與える」는 전향동사의 동작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작+변화]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단-결과] 구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3 a)는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13 b)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전향동사 「分ける」가 소유이동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分け與える」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병렬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a. 與えるために分けた。

b.? 分けることによって與えた。

이와 같은 경우는 순차적 병렬구조에서만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결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결합조건이 다소 느슨하다는데 있다. [수단-결과] 구조는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결합조건이 따르지만, 순차적 병렬구조는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sup>75)</sup>.

둘째, 순차적 병렬구조는 시간적 전후관계가 성립하고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본의를 가지기만 한다면, 둘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 사태를 하나의 복합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다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론 무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 병렬구조란 단순히 「て」를 생략한 두 동사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6.2.2.2 カ格名詞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작인 경우

병렬구조와 [수단-결과] 구조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를 비교해 보자. 14a)는 [수단-결과] 구조이다. 전향동사 「書く」는, 자살 이유를 남기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14b) 14c)가 성립하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이에 비해 순차적 병렬구조 「書きつらねる」의 경우, 15a)에서 「～てある」형이 의지적인 동작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는 있지만, 카격명사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書く」 동작의 결과물로 「美しい文字」가 열거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75) 石井正彦(2002)에서도 복합동사의 구조적 제한에 따른 생성과 소멸의 경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양태구조 및 병렬구조의 생성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14a)와 15a)는 변화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양자 모두 [무대타동사+유대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書きつらねる」의 경우, 15b)는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15c)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전향동사의 동작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수단-결과] 구조와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 14) a. 「しかし部長、動機も分からなければ、遺書もないのですよ。あれだけ責任のある地位にいた人間ですからね、自殺するならするで、それなりの理由があるはずだし、何か書き残しておきそうなものじゃないですか」  
(『伊香保殺人事件』 p.128)

b.書くことによつて残す。

c. (自殺の理由を) 残すために書く。 / (自殺の理由を) 残そうとして書く

- 15) a. 美しい文字が書き連ねてある。(『あふれた愛』 p.117)

b.書くことによつて連ねた。

c.? (文字を) 連ねるために書く。 / ? (文字を) 連ねようとして書く

또한 「書きつらねる」는 구조적으로는 [동작+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並べたてて書く」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체수식 성분인 16)과 같이 단순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6) 私はノートいっぱい書きつらねたメモから眼をあげた。

(『30年の物語』 p.226)

이와 같이 순차적 병렬구조는 변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향동사의 동작 또는 행위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人名詞의 언어 행위 또는 사고□지적 판단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어 행위는 ㄱ格名詞가 人名詞인 경우에 한하여 내면적인 사고, 감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7)에서는 ㄱ格名詞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言い添える」는 「言葉の不足を補って言う」를 의미하는 「V2してV1する」 관계이므로 순차적 병렬구조로 보기 어렵다.

- 17) 武史は、なんとか帰るよと答え、もちろん莎織となつみも一緒だと言い添えた。  
(『あふれた愛』 p.58)

반면 18a)는 전후 관계가 분명한 순차적 병렬구조이다. 그런데 18b)에서 알 수 있듯이, 전향동사가 취하는 ㄱ格名詞와 후향동사가 취하는 ㄱ格名詞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ㄱ格名詞는 사고의 대상이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ㄱ格名詞의 지적 판단의 변화이다.

- 18) a. そして彼はペダルを目一杯回して、ものすごいスピードで遠ざかっていった。ぼくは慌てて声をかけようとしたが、彼の耳の悪さを考え諦めた。  
(『いま 会いにゆきます』 p.55)

- b. ぼくは彼の耳の悪さを考えて、声をかけようとしたことを諦めた。

마찬가지로 19)의 「聞き分ける」도 듣고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V1してV2する」 관계라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지적 판단이 관여하고는 있지만 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0)의 「選り分ける」는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지,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것과 구분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V2してV1する」의 관계가 된다. 더구나 전

항동사 「選る」는 ㄱ격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동작이라는 점에서 「聞き分ける」와는 다르다.

19) 歴史が刻んだ苦樂の声を聞き分けるように、娘のイマジネーションは拡がっていったにちがいない。(『30年の物語』 p.145)

20) マスターキーをエプロンのポケットから取り出し、鍵を選り分け、穴へ差し込んだ。(『ホテル□アイリス』 p.212)

21a)도 「V2してV1する」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21b)와 같이 해당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언어와 구별한다는 의미보다는, 21c)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使い分ける」는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둔 것이지 언어 구별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항동사 「使う」가 ㄱ격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聞き分ける」와 동일하다. 石井(2002)는 「使い分ける」의 후항동사를 가능의 의미로 해석하여, 문법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보문구조]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분석의 여지가 있다.

21) a. 幼児が、二カ国語、あるいはそれ以上の言語を使い分けるとしたら、それは、場所や風景、また話す相手、つまりは環境に即応する能力によるもので、…(『30年の物語』 p.123)

b.? 幼児が、二カ国語、あるいはそれ以上の言語を使って分けるとしたら、

c. 幼児が、二カ国語、あるいはそれ以上の言語を分けて使うとしたら、

분석한 바와 같이 언어 행위 또는 사고, 지적 판단과 관련되는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순차적 병렬구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후 관계

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 ㄱ格名詞에의 영향의 유무에 따라 타동사 구문에서의 순차적 병렬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동작]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자동사 구문에서의 순차적 병렬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 6.2.2.3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 및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자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ㄱ格名詞와 무관하므로 주로 이동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22)의 「移<sub>リ</sub>住<sub>む</sub>」는 전후 시간관계가 분명한 [변화+동작] 구조이며, 「ニ格」은 착점인 동시에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즉, 「島に移<sub>っ</sub>て、そこで生活する」를 의미하는 대등의 관계로,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 이후에 행하여지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それにしてもこの暑さはいつまで続<sub>く</sub>のでしょうか。島に移<sub>リ</sub>住<sub>ん</sub>で以<sub>レ</sub>来<sub>ノ</sub>の猛暑です。(『ホテル□アイリス』p.155)

같은 [변화+동작] 구조라 하더라도 23)은 위치 변화와 동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ニ格」명사 「島」는 이동의 착점이 아니라 ㄱ格名詞가 숨어 지내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제5장]에서 언급했듯이 전향동사 「隠<sub>れる</sub>」는 「身を隠<sub>して</sub>見えなくなる」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향동사 「住<sub>む</sub>」에 따르는 부대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23) 「なんでも、奥<sub>さん</sub>を殺<sub>して</sub>、ここへ逃<sub>げて</sub>きたってい<sub>う</sub>噂<sub>も</sub>あるらしいよ。だから

わざわざ、あんな小さな島に隠れ住んでるんだって」

(『ホテル□アイリス』 p.51)

변화에는 타동사가 나타내는  $\text{カ格名詞}$ 의 변화 뿐 아니라 자동사가 나타내는  $\text{ガ格名詞}$ 의 변화도 있다. 이동의 경우,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변화는  $\text{ガ格名詞}$ 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移<sup>リ</sup>住<sup>む</sup>」와 같은 [변화+동작] 구조는 순차적 병렬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장] 및 [제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의 이동은 기점, 경로, 착점 중,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순차적 병렬구조에서는 전후 시간관계만 성립한다면 기점과 이동의 방향을 하나의 복합동사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보기로 하자.

「出向<sup>く</sup>」는 「出<sup>て</sup>その方<sup>へ</sup>おもむ<sup>く</sup>」를 의미하는 [변화+동작] 구조이다. 24)는 목적지 「病院」을 향하여 이동하는 경우인데, 기점 (「カラ/ヲ」)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전향동사는  $\text{ガ格名詞}$ 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5a)에서는 「～カラ～ニ(へ)」라는 이동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25b)와 같이 기점 「富山」로부터 「全国」이라는 불특정다수의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차적 병렬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대등의 관계이므로, 양태구조 26)과 같은 [수식□피수식]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24) 仕事が休みの日、病院へ出向き、院内の中庭で茂樹と会った。

(『あふれた愛』 p.238)

25) a. 富山から直接全国に出向く売薬さんは、最盛期には二万人近かったのが、  
現在はおよそ五千人程度でしょうか。(『蜃気楼』 p.41)

b. 富山から出で、全国に向く



26) 林が途切れ、小さな沢へと続 緩い斜面を駆け下っていた時、下生えに足が絡まり、前のめりに転倒してしまった。(『まほろばの疾風』 p.19)

27)의 「出歩く」는 외출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의미인데, 내부구조는 「出向く」와 같은 [변화+동작] 구조이다. 그러나 후향동사 「歩く」가 경로 「ヲ」를, 「向く」가 방향 「ニ/ヘ」를 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순차적 병렬구조는 양태구조와 마찬가지로 이동의 목적을 부사구 「商売に」가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향동사가 이동의 목적 혹은 이동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28) 29)의 부대상황구조와도 구분된다.

27) そうい遠隔の地で、七十歳を越えた老人が独り、アパート暮らしをしながら 商売に出歩くのは、他人の目には怪し映りそうだが、当人にとってはそんなことはなかったらしい。(『蜃気楼』 p.62)

28) 保冷ボックスを抱えた少年が、パラソルの間を縫ってジュースを売り歩いていた。(『ホテル□アイリス』 p.181)

29) 使っていない青い傘のほうを、酒に酔った様子の男が、まさに持ち去っていくところだった。(『あふれた愛』 p.246)

「出はづれる」는 현관을 나와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로 전□후향 모두 기점을 취하는 변화동사이다. 「出向く」「出歩く」가 [변화+동작] 구조인데 비해, 30)은 [변화+변화] 구조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30) 三人は玄關を出はづれるまで、口を閉ざした。(『伊香保殺人事件』 p.126)

31)의 「降り立つ」는 전향동사가 위치변화동사, 후향동사가 자세변화동

사로 구성되어 있다. 「(乗物から)降りて(地面に)立つ」와 같이 해석할 경우 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향동사 「立つ」가 위치 변화에 동반되는 자세이므로, 위치 변화와 자세 변화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乗物から出る」 즉, 위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sup>76)</sup>.

- 31) 車を停めて車外に降り立ち、十段あまりの階段を駆け登ると、飲み干した缶をゴミ箱に放り込んでから及川が言った。(『迎え火の山』 p.108)

한편 「とまらずに通って先へ行く」를 의미하는 32)는 전향과 후향이 이동의 경로 「ヲ」를 취하는 [동작+동작] 구조이다.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태구조의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4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通り越す」는 단순히 「V1してV2する」 관계인 순차적 병렬구조이다.

- 32) 私は自分の机がある深町先生の研究室を通り越して、三つ隣の串田教授の研究室に向かった。(『栄光一途』 p.32)

가격명사의 이동을 나타내는 순차적 병렬구조는 [변화+동작] [변화+변화] [동작+동작] 등 내부구조가 다양하며 어느 경우나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이다. 특히 [변화+동작]구조에는 「移り住む」와 같이 이동 동사와 동작 동사로 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出向く」「出歩く」와 같이 이동 동사만으로 결합하여 이동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대등의

76) 姫野昌子(1999)에서는, 후향동사 「立つ」에 대해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降り立つ」의 의미 특징을 「出現」이라 하여, 「状態性ではなく、人が別の場所からやって来て、その場に姿を現すことを示す」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이므로 [수식□피수식] 관계인 양태구조와 구분되고, 이동의 목적을 부사구가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부대상황구조와도 구분된다. 내부구조가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위치 변화와 상태 변화, 또는 기점과 착점을 하나의 복합동사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6.2.2.4 カ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자동사가 나타내는 カ格名詞의 변화에는 위치 변화 뿐 아니라 상태 변화도 있다. 상태 변화에는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의 변화도 있지만 원인에 의한 경우, 자연 발생적인 경우도 있는데, 심리상태의 변화, 감정의 변화, 자세 변화, 신체상의 변화 등을 나타내고 있다.

33)은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カ格名詞가 영향을 받은 결과 자세 변화한 경우이다. 「倒れて横たわる」를 의미하는 「V1してV2になる」의 관계이며 [변화+변화] 구조이다.

- 33) 頭を下げたアオシシの、目と鼻面の間に狙いを定めて、振りかぶっていた小長柄をひと息に打ち下ろした。鼻梁が叩き割られる鈍い音とともに、じんっという痺が柄を通して伝わってきた。目を見開いたままのアオシシが、あっけな雪の中に倒れ伏す。(『邂逅の森』 p.13)

「解き放つ」는 [유대타동사+무대타동사]로 구성된 [수단-결과] 구조이다. 후향동사「放つ」는 문어적인 표현으로 유대타동사「放す」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부구조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그런데 「解き放つ」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34)는,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의 カ格名詞의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정신이 멍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마치 악몽에서 깨

어난 것 같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33)의 「倒れ伏す」와는 다른 자연적인 상태 변화이다.

- 34) 志織は果然と 戦意を喪失したように、あるいは夢魔から解き放たれたように、ただ真っ二つになった帽子を見ている。(『栄光一途』 p.475)

カ格名詞의 변화가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어떤지는 형태상으로 알 수가 있다. 35)는 カ格名詞의 신체 일부분인 「触角」가 구부러진 변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문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자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뿐이며, 수동태가 아닌 [자동사+자동사]형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동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는 [변화+변화] 구조이다.

- 35) ピンが外れ、カミキリ虫の標本が一つだけ箱の底へ落ちていた。後ろ足がちぎれ、触角が折れ曲がっていた。(『ホテル□アイリス』 p.104)

カ格名詞의 심리 상태 변화는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6)의 전향동사 「喜ぶ」<sup>77)</sup>는 36 a)와 같이 감정의 대상 「ニ格」과 「ヲ格」을 취할 수 있는 자동사이다<sup>78)</sup>. 「喜び勇む」는 36 b)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 향상이 원인이 되어 カ格名詞에 「喜ぶ」라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운이 용솟음침을 나타내고 있다.

- 36) 一学期に成績の落ちた科目が、すべて上がった。喜び勇んで学校から帰

77)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喜ぶ」「驚く」「悲しむ」등은 人名詞의 내적 사상을 나타내는 「動詞」이다.

78) 影山太郎(2001)는 35 a)를 「経験者主語タイプ」, 35 b)를 「経験者目的語タイプ」중, 「原因主語」로 분류하고 있다.

、相~~変~~わらず<3>が平均の妹や弟の通知表を見て、…。

(『あふれた愛』 p.191)

36) 'a. 私は成績の向上に喜んだ。 / 私は成績の向上を喜んだ。

b. 成績の向上が私を喜ばせた。

「驚き嘆く」의 경우도, 사태 발생에 따른 놀라움, 경악이 선행하고 이어 비탄에 빠지게 된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37)에서는, 거품 경제의 붕괴가 원인이 되고 있다. 감정, 심리동사의 경우는 순차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으나, 36) 37) 은 전후 시간관계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37) 摩訶不思議なバブルに踊り、その崩壊に驚き嘆き、日替わりで起こる金融不祥事に国民はただあきれ、責任者、あるいは責任を押しつけられた当事者が首を吊って涙を誘っても、度重なれば白けるばかり。(『30年の物語』 p.173)

[변화+변화] 구조인 38)의 「凝り固まる」는 복수심에 웅어리진 가<sub>1</sub>격名詞의 심리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二格」명사구 「大和への復讐」는 심리 변화의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38) いつまでも 大和への復讐に凝り固まっても 仕方がないのではないか。

(『おまろばの疾風』 p.134)

생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39) 40) 역시 「V1してV2になる」의 관계에 있다. 39)는 살이 빠져서 여위어진 상태를, 40)은 살이 빠져서 쇠약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변화+변화] 구조이다. 즉, 「痩せ

る」라는 [변화] 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의 어느 한 시점에서 본 변화 결과가 「細る」, 「衰える」인 셈이다.

39) ウゲを持った母グマは痩せ細って空腹に耐えているため、春になるといちはやく食物を求めて出てくるのだ。(『邂逅の森』 p.110)

40) やせ衰えた手足をマッサージするのが辛い。(『奇跡の人』 p.289)

41)에서는 항상 접하게 되어 친숙해진 자연 변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慣れ親しむ」 역시 「V1してV2になる」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된 [변화+변화] 구조이다.

41) そしてまた、地中の世界には、ずっと慣れ親しんできた生き物の匂いがない。  
(『邂逅の森』 p.163)

유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42) 43)의 「生き延びる」와 「生き残る」는 「死んでしまうところを死なずにすむ」 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다] 라는 공통적인 의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전자는 「生きることが延びる」라는 문법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후자는 「生きて残る」라는 병렬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공통적인 의미 특징을 가지며 내부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 구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복합동사 어 구조 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42) 無事なら無事でほっとして、寝る前に稼いだ金を数え、危険な目に遭えば遭っ



たで、知恵を働かせて生き延びる。(『グロテスク』p.133)

43) 雪崩に吞まれて生き残った負傷者は、重軽傷合わせて二十名。

(『邂逅の森』p.241)

한편 44)의 「生き長らえる」는 단순히 생존의 의미만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長らえる」는 「生きて永くこの世に居る」를 의미하므로, 후향동사가 전향동사 「生きる」를 함의하는 유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순차적 병렬구조이면서도 유의어가 결합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44) 単に、生き長らえる可能性が高い方を選んだにすぎないのではないのか。

(『まほろばの疾風』p.184)

분석한 바와 같이 가격명사의 변화에는 자세변화, 심리상태의 변화, 신체상의 변화, 자연변화 등 다양하다. 자세변화가 직접 영향을 받은 결과인데 비해, 심리상태의 변화는 대부분 원인에 의한 것으로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인 의미 특징을 가지며 내부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 구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45)의 「隠し持つ」는 [유대타동사+무대타동사]로 구성된 [동작+동작] 구조인데, 화자가 추정하는 소년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45) 一グラムの余分な脂肪もついていないしなやかな手足を持ち、二重まぶたの目元には、子供らしい快活さと大人ぶった憂鬱の両方を隠し持っている少年だ。

(『余白の愛』p.55)

46)의 「勝ち誇る」 역시 「長蔵の顔」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승리에 기세등등해진, 즉 「勝って意気があがる」를 의미하므로, カ格名詞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V1してV2になる」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46) ひとりならば、長蔵に飛びかか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だが、今の富治には、  
勝ち誇った長蔵の顔から目をそむける以外に、できることはなかった。

(『邂逅の森』 p.127)

이와 같이 순차적 병렬구조의 복합동사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生き残る」와 같은 [동작+변화] 구조도 있지만, 내부구조는 기본적으로 [변화+변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유적 표현을 제외한다면 어느 경우나 [자동사+자동사]형의 복합동사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없을까?

47)의 「着膨れる」는 [타동사+자동사]형으로 옷을 입은 결과 변화한 모습, 다시 말하면 크게 부풀어진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향동사 「着る」가 재귀동사이기 때문에, カ格名詞에 영향을 준 동작의 결과가 동작주 자신의 외형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귀 구문 즉, 재귀구조로 분류할 수가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6.2.3]에서 논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着る」가 의지적인 동작이기는 하지만 상태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V1してV2になる」의 관계인 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볼 경우 カ格名詞의 상태 변화는 행위의 결과인 [동작+변화] 구조이다.

47) 海沿いにある鄙びた地方都市の、頬を真っ赤にして着ぶくれた子らが、ちらほ

らとまだらに遊ぶ姿を追ったりしながら、その人気がない公園のベンチに私は座っているのだった。(『30年の物語』 p.62)

이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8) 순차적 병렬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1) ㄱ格名詞에 대한 동작의 경우

① [동작+동작] 구조 : ㄱ格名詞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변화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

② [동작+변화] 구조 : 변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향동사의 동작이 ㄱ格名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

(2) 언어 행위 또는 사고, 지적 판단과 관련되는 경우는 ㄱ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순차적 병렬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결합조건이 다소 느슨하기 때문에 「て」를 생략한 두 동사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

##### (4)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①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변화는 ㄱ格名詞의 위치 변화이다.

② 기점, 경로, 착점 중,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물론, 기점과 이동의 방향 즉, 이동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치변화와 상태변화, 혹은 기점과 착점을 하나의 복합동사로 나타낼 수는 없다.

③ 양태구조와 같은 [수식□피수식]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동의 목적은 부사구가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대상황구조와도 구분된다.

(5) ㄱㄴ名詞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① 자세 변화, 심리 상태의 변화, 신체상의 변화, 자연 변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② 자세 변화가 직접 영향을 받은 결과인데 비해, 심리 상태의 변화는 대부분 원인에 의한 것으로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자동사+자동사]형의 [변화+변화] 구조를 전형으로 하고 있다.

(6) 동작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동작□변화의 관점에서 본 순차적 병렬구조 〉

| 관점     | 구문                    | 카<br>격<br>에<br>의<br>영<br>향 | 변<br>화           |            | 내<br>부<br>구<br>조 | 의<br>미<br>관<br>계 | 복<br>합<br>동<br>사 |
|--------|-----------------------|----------------------------|------------------|------------|------------------|------------------|------------------|
| 동<br>작 | 타<br>동<br>사<br>구<br>문 | ○                          | ×                |            | 동작+동작            | V1して<br>V2する     | 踏みにじる            |
|        |                       | ○                          | 소유이동             |            | 동작+동작            |                  | 分け與える            |
|        |                       | ×                          | 결과물              |            | 동작+변화            |                  | 書き連ねる            |
|        |                       | ×                          | 사고판단             |            | 동작+변화            |                  | 考え諦める            |
|        | 자<br>동<br>사<br>구<br>문 | 무<br>관                     | 위<br>치<br>변<br>화 | 착점(ニ)      |                  | V1して<br>V2する     | 移り住む             |
|        |                       |                            |                  | 이동범위(カラ〜へ) |                  |                  | 出向く              |
|        |                       |                            |                  | 기점(カラ)     |                  |                  | 出外れる             |
|        |                       |                            | ×                | 경로(ヲ)      |                  |                  | 通り越す             |
| 변<br>화 | 자<br>동<br>사<br>구<br>문 | 무<br>관                     | 심리상태             |            | V1して<br>V2になる    | 凝り固まる            |                  |
|        |                       |                            | 생리현상             |            |                  | やせ衰える            |                  |
|        |                       |                            | 영향을 받은 결과        |            |                  | 倒れ伏す             |                  |
|        |                       |                            | 자연변화             |            |                  | 慣れ親しむ            |                  |
|        |                       |                            | 행위의 결과(재귀)       |            |                  | 着膨れる             |                  |

### 6.2.3 재귀구조에 대하여

[6.2.2.4]에서 언급한 [재귀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49)의 전향동사 「着る」는 「かぶる」「履く」「浴びる」등과 함께 재귀동사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귀용법]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재귀구조]를 하나의 어 구조 형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재귀동사 및 재귀용법의 구문이 각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仁田 (1982a) <sup>79)</sup>는 재귀동사는 재귀적으로만 사용되는 동사이지만 재귀적인 용법을 갖는 것은 재귀동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여, 전형적인 타동사가 재귀적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귀동사가 의복, 신발, 물, 햇살, 등 외부적인 物名詞를 카격으로 취하는데 비해, 재귀용법의 타동사는 동작 주체의 신체의 일부를 카격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재귀동사의 경우를 보자. 49)는 카격名詞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着る」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향동사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결과] 구조가 된다. 물론 결과는 카격名詞 자신의 외형적인 변화이다.

49) 本当はリボンを飾りたかったけれど、例の老婆に会うのに、どうしてそんなに着飾らなきゃならないのかと問い詰められそうで、言い出せなかった。

(『ホテル□アイリス』 p.55)

반면 50a)의 「履きつぶす」는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전향의 동작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50b)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履いて

---

79) 재귀동사는 전형적인 타동사와 자동사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여, 재귀동사와 보이스와의 관계, 재귀용법, 아스펙트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つぶした」라는 전후 시간관계 만이 성립하는 병렬구조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개 51)과 같이 연체 수식 성분으로 결합하여 단순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50) a. 花子はおばさんから買ってもらったくつを履きつぶした。

b. 花子はおばさんから買ってもらったくつを長い間、毎日のように履いたからつぶしてしまった。

51) 母は娘の履きつぶしたくつをゴミ箱に入れておいた。

재귀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동작주 자신이 귀착점이 되든(「履く」의 경우) 시발점이 되든(「脱く」의 경우), 결과는 동작주 자신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履きつぶす」와 같이 복합동사의 전향으로 결합하게 되면, 동작주 자신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7格名詞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5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2) a. 太郎は玄関に靴を脱ぎ捨てたまま部屋に入って行った。

b. 母は脱ぎ捨てられた太郎の靴を片付けようとした。

다시 말하면 「着飾る」「着膨れる」의 경우는 단순동사 「着る」와 마찬가지로 동작주 자신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지만, 「履きつぶす」「脱ぎ捨てる」의 경우는 단순동사 「履く」「脱く」와 달리 대상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즉, 사태의 초점이 6格名詞로부터 7格名詞로 이행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재귀동사는 뚜렷한 의미 특징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성요소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어 구조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번에는 타동사의 재귀용법과 복합동사 어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단순동사와 마찬가지로 복합동사에 있어서도 재귀용법을 가진 타동사는 가格名詞의 신체 일부분이 궤格을 취하고 있다. 53)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재귀적 동작인데, 후향동사가 하 방향을 나타내는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하고 있으며, 변화 결과도 나타내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53) 微笑みながら答えるモレの顔を見て、アテルイは胸を撫で下ろした。

(『おぼろばの疾風』 p.54)

그러나 54)는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후향동사가 궤格名詞 「髪<sub>の</sub>毛」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궤格名詞가 신체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53)의 「胸」과 54)의 「髪<sub>の</sub>毛」에 대한 행위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わたしはシーツから顔を上げ、額に掛かった髪<sub>の</sub>毛をかき上げた。

(『密やかな結晶』 p.231)

또한 55)도 자신의 「目頭」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揉む」라는 동작을 한 것이므로, 변화 결과가 가格名詞에 나타나는 재귀용법인 동사에 [수단-결과]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재귀용법이라고 하더라도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이라든가, 궤格名詞의 종류에 따른 후향동사의 의미 역할에 따라 복합동사 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活字を追うのに疲れた目頭を揉みほぐしながら、工藤は心の中で呟いた。

(『迎え火の山』 p.449)

재귀용법은 사태 성립의 과정과도 관련된다. 56a)는 *カ格名詞*의 자세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문이므로 재귀용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腰を」 혹은 「足を」와 같은 *カ格名詞*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56a)는 56b)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腰や足を曲げて」)을 생략하고 변화 결과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80)</sup>.

56) a. 私は哲生の前にかがみ込んで、彼をのぞきこんだ。

(『哀しい予感』 p.111)

b. 私は哲生の前に(腰や足を曲げて)かがみ込んで、…。

또한 재귀용법은 직접 수동의 가부라든가 자동사문과의 관계 등, 구문론의 문제 뿐 아니라, 문맥적 상황과도 관련된다. 57a)는 자신의 몸을 마치 *物名詞*와 같이 내던진 경우로, 재귀용법의 타동사문이다. 같은 문맥에서 57b)와 같은 자동사문으로 표현할 경우, *カ格名詞*의 의지적인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57b)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覚悟を決め」라는 사태의 심각성과 「足元の急斜面」이라는 장면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신체 일부분 또는 전체를 *カ格*으로 취하는 재귀용법은 사태 성립의 과정 및 문맥적 상황이 관여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57) a. 富樫は覚悟を決め、足元の急斜面へ体を投げ出した。

---

80) ウェスリ- □M□ヤコブセン(1989)은, 타동사구 전체가 단독의 자동사구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体を屈める」와 「屈む」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타동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기는 어렵다.

(『ホワイトアウト』 p.109)

b.? 富樫は覚悟を決め、足元の急斜面へ飛び出した。

한편 신체의 일부분이란 이목구비, 손, 발과 같은 구체물에 한정된 것일까? 58)의 ㄱ格名詞 「視線」은 동작주의 신체 일부분인 눈으로 지각하는 시각적 능력으로 구체물은 아니다. 동작주 자신의 시선의 이동을 재귀용법으로 간주한다면, 59)와 같이 청각에 의한 ㄱ格名詞의 지적 판단의 변화도 재귀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58) 彼はわたしの両肩をつかみ、二人の間にわずかなすきまを作ると、そこへ視線を滑り込ませた。(『密やかな結晶』 p.233)

59) 先生は学生から欠席の事由を聞き取った。

시각, 청각 뿐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각, 후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한 능력까지도 인간이 지닌 신체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재귀용법에 대한 견해는 달라질 수 있다.

[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ㄱ格名詞가 事柄名詞인 경우도 재귀용법이 관여하고 있다. 60)은 부주의에 의한 결과로 ㄱ格名詞 자신의 신체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sup>81)</sup>. 「腹膜炎を引き起こす」라는 구 전체를 하나의 어휘로 볼 경우, [언어론]의 입장에서 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60) 盲腸炎が悪化し、腹膜炎を引き起こしたらしい。(『あふれた愛』 p.204)

81) 孫 東周(2005a)는 「太郎はお腹を壊した。」와 같은 재귀용법에 대해, 「ㄱ格名詞가 影響を与える時点では2つの参加者として文の中で働くが、影響が終ると結局はㄱ格名詞とㄱ格名詞が一体化するので典型的な他動詞構文とは異なり、意味的には自動詞用法に近い表現にな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석한 바와 같이, 재귀동사가 복합동사의 구성요소로 결합할 경우, 사태의 초점이 カ格名詞로부터 7格名詞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着飾る」「着膨れる」 등은 동작주 자신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지만, 「履きつぶす」「脱ぎ捨てる」의 경우는 대상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복합동사 구성요소로서의 재귀동사는 뚜렷한 의미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귀용법은 직접 수동의 가부라든가 자동사문과의 관계 등, 구문론의 문제 뿐 아니라, 문맥적 상황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귀용법의 한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석의 관점은 다양해질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재귀용법이 각 어 구조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재귀 구조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으므로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sup>82)</sup>.

82) 天野みどり(1987b)는 [재귀성]이라는 구문론적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행하고 있다. 仁田義雄(1982a□1982b), 工藤真由美(1982) 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シテイル」형식의 의미와 재귀성과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재귀성을 가진 타동사문이 자동사문에 근접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재귀성]이라는 개념을 특히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6.3 비순차적 병렬구조

### 6.3.1 비순차적 병렬구조란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V1すること すなわちV2」 혹은 「V1し かつV2する」 「V1した/V2したりする」 라는 의미 관계에 있으며, 구성요소가 유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어로 결합된 두 동사는 동작, 변화, 상태 중,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된다.

### 6.3.2 비순차적 병렬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 6.3.2.1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유의어인 경우

##### 6.3.2.1.1 동작에 초점을 두는 경우

양팔로 껴안는 동작을 의미하는 61)의 「抱きかかえる」는 「V1すること すなわちV2」 관계이므로, 전향의 의미로도 후향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だく」「かかえる」「かかえこむ」「いだく」는, 공통적으로 [껴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동사+타동사]형으로 대상에 영향을 주는 동작이지만, 대상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동작+동작] 구조이다.

61) 富治と包帯の男が同時に手を伸ばし、崩れようとする梅蔵の体を抱きかかえた。(『邂逅の森』 p.146)

62)의 전향동사 「書く」는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후향동사 「記す」는 「書きつける」 즉, 「記録する」를 의미한다. 「書いた結果、すなわち記

す」 즉, 쓰는 동작과 동시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동작+동작] 구조의 동시적 유의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62) 辞書をめくり、ルーペで単語を探し、狂いのない字でキャビアについて書き記しているのだろうか。(『ホテル□アイリス』 p.198)

또한 「貫き通す」는 전향과 후향이 [통과시키다]를 의미하는 유의어로 결합된 경우로 63)에서는 카격名詞가 事柄名詞이기 때문에 [관찰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타동사+타동사]형이지만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격名詞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의사 관철에 의한 주변적 상황에 변화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63) 「おぬしたちは、自分の意思を貫き通しただけだ。責め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ほろばの疾風』 p.527)

사고, 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64)는 추측, 추량을 의미하는 [동작+동작] 구조인데, 가령 전향과 후향이 역으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정도로 특별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시간적 전후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64) 陽子は眞意を推し量るように、煙草を吸うのも忘れて私を見つめた。  
(『恋愛中毒』 p.222)

- 65) 66)은 事柄名詞 「狩りをする事」 「修復工事」에 대한 카격名詞의 감



정 혹은 심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의어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싫어하거나, 각별히 좋아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로 상반된 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두 경우 모두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대상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7格名詞가 감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65) 大和の柵戸はもちろん、田夷となった俘囚たちさえ、弓を持ち、森に踏み入って狩りをするのを忌み嫌っていた。(『まほろばの疾風』 p.149)

66) けれど、誰が好きこのんで、自分の家とは関係のない場所で起こっている煙事件の修復工事になどお金を出すだろうか。(『30年の物語』 p.202)

「解きほぐす」 역시 [타동사+타동사]로 구성된 [동작+동작] 구조이다. 의미상으로는 「解いてほぐす」 즉,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 병렬구조로 볼 수도 있고, 실은 유의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비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수도 있다. 67)은 자금상의 제한을 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7格名詞 「糸目」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67) 殊にちかごろ多くなった小口金融の金が返らないのは、小市民生活の逼迫の諸条件のそれぞれの退引ならない組み合わせから来ているもので、このこんぐらかった糸目を解きほぐすことは誰にも出来ない。(『青の時代』 p.193)

그런데 유의어의 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V1すること すなわちV2」의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撫でさする」는 통상 「撫でたりさすったり」로 해석된다. 68)의 전향동사 「撫でる」는 「手のひらでやさしくさする」 즉, 「さする」를 함의하고 있는데 비해, 후향동사 「さする」는 「軽くこする」 즉, 가볍게 문지

른다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유의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미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전향동사가 후향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는 주체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전향동사라고 볼 수 있다. [동작+동작] 구조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ㄱ格으로 취하는 재귀동작이다.

- 68) 嬉しそうに目を細めた志摩子は、無意識なのか、大きくせり出した腹を静かに撫でさすり、「よかった」とつぶやいた。(『ひるの幻よるの夢』 p.15)

한편, 「誉め称える」는 「さかんに誉める」를 의미하고 있다. 즉, 유의어이면서도 복합동사 후향요소로서의 의미는 전향동사를 강조하는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誉めそやす」 「誉めはやす」 「誉めちぎる」 등과 같이 후향동사를 교체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전향동사가 주동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V1した/V2したりする」를 의미하는 68)의 「撫でさする」와 같이, 유의어가 결합하여 대등의 관계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69)의 「誉め讃える」와 같이 유의어이면서도 어느 한쪽의 동사가 접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주동사를 강조하는 의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9) テレビに出て来る北朝鮮の人たちが、一齊に「偉大なる領袖さまのおかげで、こんな生活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と貧乏生活を褒め讃える茶番を見るのはけっこうおもしろい、という人が、私の周囲に少なからずいる。  
(『魂の自由人』 p.198)

70)의 「くぐり抜ける」는 [자동사+자동사]형으로 통과를 의미하는 유의어

의 결합이지만,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에는 미묘한 의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향동사 「くぐる」에 몸을 구부리듯이 하여 빠져나간다는 동작의 양태가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향동사가 보다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70) 最近始まったとおぼしき新造ダムの建設現場を左手に見おろしながら、短いトンネルを三つくぐり抜けたところで、オートバイを停めた。

(『迎え火の山』 p.15)

이와 같이 유의어가 결합하여 동작을 나타내는 비순차적 병렬구조에는 [타동사+타동사]형과 [자동사+자동사]형이 있는데, [동작+동작] 구조가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 「抱きかかえる」와 같이 7格名詞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타동사+타동사]형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나 감정 혹은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7格名詞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6.3.2.1.2 변화 및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경우

[변화+변화] 구조인 71)의 후향동사 「添う」는 「近く寄る」라는 의미로 전향동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寄り添う」역시 유의어의 결합으로 [맞닿을 정도로, 바짝]과 같이 대상에 접근하는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

71) 吉岡がその場で足踏みをくり返しながら、見えもしない周囲の景色を眺め回した。寄り添うようにして立っているというのに、その声が一瞬、風音にかき消されそうになる。(『ホワイトアウト』 p.17)

カ格名詞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72)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변화+변화] 구조이다. [동작+동작] 구조인 「好き好む」가 대상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데 비해, 「揺れ動く」는 화자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72) なぜこれほどまでに、文枝に対する氣持が二轉三轉と大きく揺れ動くのか、  
自分でも不可解だった。(『邂逅の森』 p.66)

73)도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カ格名詞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解きほぐす」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充ちて足りる」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의어로 구성된 비 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것인지 애매모호한 경우이다. 「揺れ動く」가 심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充ち足りる」는 단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73) 顔を起こすと、彼女は窓の外に目をやり、ふっくらした唇を半開きにして、そこにはいない誰かを想ってだろう、充ち足りた様子でほほえんでいた。  
(『あふれた愛』 p.129)

단순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변화] 구조도 있다. 74)는 고불고불 구부러진 자연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후향동사 「くねる」는 타동사로 사용될 경우, 「ひがむようにする」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사로 결합하고 있다.

74) 取りつく島もなくゴツゴツと無愛想に揺がる荒野。灰褐色の岩石の割れ目深く、水のない涸河が曲がりくねってひと筋、地獄を裂く大蛇のようにのたうって

た。(『30年の物語』 p.68)

변화 및 상태를 나타내는 비순차적 병렬구조는 [자동사+자동사]형의 [변화+변화] 구조를 전형으로 하고 있다. カ格名詞의 위치 변화, 심리 상태의 변화, 그리고 단순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어의 결합이므로 변화 혹은 상태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6.3.2.2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유의어가 아닌 경우

유의어의 결합이 아닌 비순차적 병렬구조는 「V1したW2した」를 관계 또는 「V1し、かつV2する」의 관계이다. 즉 대등의 관계 혹은 동시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75a)는 [타동사+타동사]형의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수단-결과] 구조와 같은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향과 후향이 「V1したW2した」라는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적이라는 조건 하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간에 [수식□피수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태구조와 구분된다. 구문상으로는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각기 다른 カ格名詞를 취한다는 것을 75b)에서 알 수 있다.

75) a. 掌に残った、肉と骨を裂き碎<感触。 (『まほろばの疾風』 p.182)

b. 肉を裂き、骨を碎<感触。

[자동사+자동사]형인 76)은 [동작+동작] 구조이다. 「泣き叫ぶ」는 소리를 동반하여 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 통상은 76 a)로 해석되나, 76)의 문맥상으로는 76 b)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76) 恥ずかしさに泣き叫ぶ僕に女教師は、あなたがしたことはこういうことなのよ、と  
妙に静かな声で告げた。(『恋愛中毒』 p.27)

- 76) ' a. 泣いたり叫んだりする  
b. 大声で泣く  
c. 泣き声で叫ぶ  
d. 泣きながら叫ぶ

「遊び騒ぐ」도 놀며 떠드는지 떠들며 노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77)에서는 연체수식성분이기 때문에, 「声」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후  
행동사 「騒ぐ」라는 것을 77 b)에서 알 수 있다.

77) ピシャッ、とかなり大きな音で飛びはねる池の真鯉や、野鴨が群れをなして遊  
び騒ぐ声。(『30年の物語』 p.117)

- 77) ' a.? 野鴨が群れをなして遊ぶ声.  
b. 野鴨が群れをなして騒ぐ声.

그런데 「遊び騒ぐ」가 78a)와 같이 다른 문맥에서 사용될 경우, 구성요  
소간의 의미관계는 불분명할 수도 있다. 즉, 78b)와 같이 해석할 경우는 전  
행동사가 후항을 수식하는 양태구조로, 78c)와 같이 해석할 경우는 동시적  
병렬관계인 비순차적 병렬구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항, 후항  
이라는 형태적인 결합 순으로 보면, 놀며 떠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만, 동시적이라는 의미 특징을 고려한다면 떠들며 논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은 아니다.

78) a. 砂場で子供たちが楽し遊び騒いでいた。



- b. 砂場で子供たちが楽し遊びながら騒いでいた。
- c. 砂場で子供たちが楽し遊んだり騒いだりしていた。

이와 같이 양태구조와 비순차적 병렬구조 간에는 동시적이라는 의미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유의어인 경우는, 구성요소 간의 수식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비순차적 병렬구조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유의어가 아닌 동시적 관계일 경우는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79a)의 「思い描く」는 「心に思い浮かべる」를 의미하는데, [타동사+타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人名詞의 내면적인 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79b)와 같이 7格名詞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79c)와 같이 동시적인 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자체가 「思い描く」이므로, 「描く」의 의미를 따로 분리하여 의미관계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79) a. もがき苦しむマリ の姿を、私は詳細に思い描くことができます。  
 (『ホテル□アイリス』 p.157 )
- b.? もがき苦しむマリ の姿を思って描く
  - c. もがき苦しむマリ の姿を思いながら描く

지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감정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관계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80)의 「思い悩む」는 [타동사+자동사]형이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경우, 생각하며 고민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사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思い悩む」이므로, 구성요소 간 의미 관계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80) a. あれこれ思い悩んでいるうちに私はベランダでうとうとしてしまった。

(『恋愛中毒』 p.318)

b. あれこれ思いながら悩んでいる。

c.? あれこれ思って悩んでいる。

d.? あれこれ思ったり悩んだりしている。

유의어가 아닌 두 동사가 결합한 비순차적 병렬구조에는 [타동사+타동사]형, [자동사+자동사]형, [타동사+자동사]형이 있는데, 전향과 후향이 동시적 관계이면서도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동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양태구조와 같은 [수식□피수식]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사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의미 관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1) 비순차적 병렬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

(1) 유의어인 경우

①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a. [타동사+타동사]형 및 [자동사+자동사]형의 [동작+동작] 구조이다.

b. [타동사+타동사]형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지적 판단을 나타내거나 감정□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格名詞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변화 및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a. [자동사+자동사]형의 [변화+변화] 구조이다.
- b. 格名詞의 위치 변화, 심리 상태의 변화, 그리고 단순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2) 유의어가 아닌 경우
- a. [타동사+타동사]형, [자동사+자동사]형, [타동사+자동사]형이 있으며, [동작+변화] 구조와 [동작+동작] 구조가 있다.
- b. 전향과 후향이 동시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이다.
- (3) 동작, 변화, 상태 중,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초점에 따른 비순차적 병렬구조 〉

| 분류         | 초점            | 구성요소    | 내부구조  | 의미관계                       | 복합동사   |
|------------|---------------|---------|-------|----------------------------|--------|
| 유의어        | 동작            | 타동사+타동사 | 동작+동작 | V1すること<br>すなわちV2           | 抱きかかえる |
|            |               | 자동사+자동사 |       |                            | 書き記す   |
|            | 변화<br>□<br>상태 | 자동사+자동사 | 변화+변화 |                            | 忌み嫌う   |
|            |               |         |       |                            | くぐり抜ける |
|            |               |         |       |                            | 寄り添う   |
|            |               |         |       |                            | 揺れ動く   |
| 유의어가 아닌 경우 | 동작            | 타동사+타동사 | 동작+변화 | V1したりV2したりする<br>V1し、かつV2する | 裂き破く   |
|            |               | 자동사+자동사 |       |                            | 동작+동작  |

## 제 7장 보문구조

[동사+동사]형의 일본어 복합동사는 어휘적 복합동사와 통어적 복합동사로 나눌 수 있다<sup>83)</sup>. 이는 생성문법의 입장에서 복합동사 파생 과정의 차이에 주목한 影山 (1993)가, 우선 어휘 부문에서 어휘적 복합동사가 생성되고, 그 후에 통어 부문에서 통어적 복합동사가 생성된다고 하여 분류한 것이다. 보문관계는 통어적 복합동사와 어휘적 복합동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기도 하지만, 어휘적 복합동사도 전향과 후향이 보문관계로 결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간의 의미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굳이 파생과정의 차이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적, 통어적이라는 구분은 어디까지나 어형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보문구조]는 어 구조적 측면에서 분류한 것으로,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보문 관계로 결합된 복합동사를 하나의 어 구조형으로 범주화(패턴화)한 것이다.

### 7.1 보문구조란

보문구조란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V1することがV2」 혹은 「V1することをV2」 / 「V1することにV2」와 같이 주술□보족의 관계로 결합된 어 구조를 말한다. 보문구조의 후향동사는 수많은 복합동사를 생산해낸다는 점을 특

83) 影山太郎 (1993)는, 寺村秀夫 (1984) 姫野昌子 (1975) 石井正彦 (1983a□1983b) 森田良行 (1990) 長嶋善郎 (1976) 山本清隆 (1984) 斎藤倫明 (1992) 등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これらの日本語學研究においては、生成文法におけるような文法組織の体系化がないので、本書で主張する語彙部門と統語部門の區別といふ問題設定は全くなされていない」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어에서는 어휘부문과 마찬가지로 통어부문에서도 복합동사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으로 들 수 있다. 후향동사의 대부분은 본의를 가지지만 1b)와 같이 의미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복합동사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a. 職員が三階まで書類箱を運び上げた。(상승)

b. 彼女はおいしいパンを焼き上げた。(완료)

1) 'a. 運んで上げた / \* 運ぶことを上げた

b. 焼くことを上げた / ? 焼いて上げた

## 7.2 보문구조의 하위분류

影山 (1993)에서는 보문구조의 복합동사를 후향동사의 의미특징에 따라 「始動」「継続」「完了」「未遂」「過剰」「再試行」「習慣」「相互」「可能」으로 하위분류하여 27語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姫野 (1999)는 「～かかる」(始動), 「～損ねる」(未遂), 「～果てる」(完了)의 3語를 첨가하여 30語를, 石井 (2002)는 「文法=派生的な複合動詞をつくる接尾辞的要素」라 하여 71語를 제시하고 있는데<sup>84)</sup>, 모두 影山の 분류기준에 따르고 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4) 石井正彦 (2002)는 43語를 제시하였으나, 影山가 「未遂」로 분류한 「～ぞびれる」「～あぐる」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총 71語가 된다. 지면 관계상 제시된 전향동사는 생략함.

| 意味特徴 | 影山 ( 1993 )                                                       | 姫野 ( 1999 ) | 石井 ( 2002 )                                                                                |
|------|-------------------------------------------------------------------|-------------|--------------------------------------------------------------------------------------------|
| 始動   | ～かける, ～だす, ～始める                                                   | ～かかる        | ～起こす                                                                                       |
| 継続   | ～まくる, ～続ける                                                        |             | ～居る, ～置く, ～来たる,<br>～進める, ～続く, ～行く                                                          |
| 完了   | ～終える, ～終る, ～尽くす,<br>～きる, ～通す, ～抜く                                 | ～損ねる        | ～上がる, ～上げる, ～去る,<br>～足りる, ～尽きる, ～遂げる,<br>～果たす, ～止む, ～やめる                                   |
| 未遂   | ～そこなう, ～損じる,<br>～そびれる, ～かねる,<br>～遅れる, ～忘れる,<br>～残す, ～誤る,<br>～あくねる | ～果てる        | ～余す, ～怠る, ～惜しむ,<br>～落とす, ～渋る, ～違える,<br>～悩む, ～のがす, ～はぐれる,<br>～外す, ～間違う, ～間違える,<br>～迷う, ～漏らす |
| 過剰   | ～過ぎる                                                              |             | ～過ぎす                                                                                       |
| 再試行  | ～直す                                                               |             | ～改める, ～返す, ～替える                                                                            |
| 習慣   | ～つける, ～慣れる,<br>～飽きる                                               |             | ～くたびれる, ～疲れる,<br>～習う, ～習わす                                                                 |
| 相互   | ～合う                                                               |             | ～合わせる, ～交わす                                                                                |
| 可能   | ～得る                                                               |             | ～能う, ～こなす, ～分ける                                                                            |

影山 및 姫野에서 제시한 후향동사는 통어 부문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다양한 전향동사와 결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石井에서의 후향동사는 대부분 어휘 부문에서 생성된 것으로 생산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 부문에서 형성된 보문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의미관계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후향동사가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문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은 형태의 복합동사가 보문구조 외의 다른 어 구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아스펙트와 관련되는 「始動」 「繼續」 「完了」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그리고 「未遂」, 「再試行」, 「習慣」을 나타내는 후향동사를 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 7.3 「始動」 □ 「繼續」 □ 「完了」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본 절에서는 寺村(1984)<sup>85)</sup> 및 仁田(1982b □ 1997 □ 2000)<sup>86)</sup>의 분류를 참고로, 동적 사상을 나타내는 동사(「動詞」)의 시간적인 국면을 나타내는 표현 형식 즉, 「始動」 「繼續」 「完了」를 나타내는 보문구조의 후향동사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 7.3.1 「始動」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시동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체동작동사는 시간적인 폭 즉, 지속성을 전제로 하며, 전개 과정 중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暮す」 「洗う」 「踊る」 「動く」 「書く」 「走る」 「泣く」 「降る」 등, 대부분의 주체동작동

85) 寺村秀夫(1984)에서 三次的アスペクト 즉, 「時間的相」 「空間的相」 「程度□密度□強度□完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후향동사는, 대부분 [보문구조]의 후향동사이거나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어휘적 복합동사의 후향동사이다.

86) 仁田義雄(1982b □ 1997)는 동적 사상을 나타내는 주체 동작 동사 및 주체 변화 동사를 「持續性」 「過程性」(「漸次性」) 「完結性」의 유무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있으며, 仁田義雄(2000)에서는 「(シ)ハジメル」 「(シ)ツヅケル」 「(シ)オウル」와 같이 「動き」의 전개의 국면을 나타내는 형식을 [2차적 아스펙트 형식]이라 하여, 「スルーシテル」의 대립과 구분하고 있다.

사는 「～始める」「～出す」와 같은 시동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 2) 祖父は、わたしが大學生になると同時に、ミツル母親と暮らし始めたからなので  
す。(『グロテスク』 p.136)
- 3) また雨が降り出した。

반면 지속성이 없는 주체동작동사는 전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4) 5)와 같이 단일 사상으로서는 시동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즉,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 4) \* 私は日本語の本をなくしはじめた。
- 5) \* 夜道でつまづき始めた。

그런데 시동상의 가부는 사태에 관여하는 명사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6)과 같이 7)에서는 화상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간적 전개 과정을 가지게 되므로 시작점을 분리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 자동사문 8)과 지적 의미는 같다고 볼 수도 있다.

- 6) \* テーブルの上のナイフを取り始める。
- 7) 画像がかたちを取り始める。(『アフター ダーク』 p.44)
- 8) やがて画面に何かが映り始める。(『アフター ダーク』 p.44)

지속성은 있으나 전개 과정이 없는 「持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

와 같이 꽃다발을 손에 쥐는 경우에는 동작의 전개 과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상을 나타내기가 곤란하지만, 10)과 같이 事柄名詞「憧れ」를 취함으로써 시동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憧れを持ち始める」는 [동경을 품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カ格名詞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9) \* 良子が右手で花束を持ち始めた。

10) 彼女たちは常吉が、モイラに憧れを持ち始めた頃から、逸早くそれを嗅ぎつけていて、… (『甘い蜜の部屋』 p.252)

「つかむ」「握る」 등의 동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11) 12)가 그 예이다. 11)은 사태의 본질이나 원리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12)는 실권을 장악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1) やっと文章の大意をつかみ始めた。(理解し始めた)

12) 副会長が実権を握り始めた。

「取る」「持つ」「つかむ」「握る」 등의 동사는, 지속성은 있지만 物名詞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9)와 같이 「~ている」형이나 「~つづける」로 나타내었을 때, 동작 후의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 동사가 事柄名詞를 취함으로써, カ格名詞의 감정, 사고, 지적 판단 등이 관여하는 변화동사로서의 전개 과정을 갖게 되고, 전개 과정 중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a. 良子が花束を持っている。

b. 良子が花束を持ちつづけている。

이번에는 주체변화동사의 시동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주체동작동사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전제로 하며 전개 과정 중,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는 주체변화동사 「腐る」「狂う」「傾く」「衰える」「曇る」「積もる」「増える」 등은 시동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 13) 帰りの道すがら、道程もほぼ半ばにさしかかった辺りで、ぼくの調子が狂い始めた。(『いま、会いにゆきます』p.51)
- 14) 日が傾きはじめていた。
- 15) 車の数と反比例して、放出される化学物質が増えはじめる。

반면 지속성이 없는 「死ぬ」「着く」「生まれる」「決まる」「刺さる」와 같은 변화동사는 시동상을 나타낼 수 없다.

- 16) \* 祖父が死に出した。
- 17) \* 出発の日が明日に決まり始めた。

또한 지속성은 있지만 전개 과정을 갖지 않는 동사도 시동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순간적인 위치 혹은 자세 변화를 나타내는 「乗る」「立つ」「座る」 등은, 지속성은 있지만 전개 과정을 갖지 않으므로 18b)와 같이 단일 사상으로 시동을 나타내기에는 곤란하다. 18c)가 가능한 것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18) a. 人々が次々と電車に乗り出した。

b.\* 花子が電車に乗り出した。

c. 子供が自転車に乗り出した。

한편 시동상을 나타내는 보문구조의 후향동사로는 「～始める」「～出す」 외에도 「～かかる」「～かける」를 들 수 있는데, 姫野(1978)가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姫野는 「かける」가 계속동사와 결합한 19)를 「始動態」, 순간동사와 결합한 20)을 「將現態」로 의미 분류하고 있다<sup>87)</sup>. 20)의 「死にかける」는 「死にそうになる」를 의미한다.

19) 香苗には、初婚□再婚の別を記す欄が**つらかった**。だがそれ以上に、妻と書かれている字が胸に重く、名前を書きかけたところで、手を止めた。

(『あふれた愛』 p.231)

20) 看護婦は死にかけている患者を見て慌てて**医者**を呼びかけた。

이와 같이 시동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아스펙트성)에 따르고 있는데,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동작 혹은 변화의 전개 과정에서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만이 시동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物名詞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七格名詞를 취하느냐에 따라 시동상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87) 「始動態」: 「動作が途中まで行われたことを表す」

「動作が半ばで中止した意を表す」

「將現態」: 「動作が行われる寸前の状態に達したことを表す」 姫野昌子(1999) 참조.

### 7.3.2 「継続」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지속성이 있는 동작동사는 21) 22)와 같이 계속상을 나타낼 수 있다. 시동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계속상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23) 24)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1) 我々は65人のぞうさんが、蜘蛛の巣に引っかかるまで歌い続けた。

(『いま 会いにゆきます』 p.59)

22) ぼくは弟の無事を祈り続けた。

23) 一度吹き始めると、強風は最低三日は続く。朝から晩まで、風は一刻の休みもな吹き続ける。(『遠い太鼓』 p.160)

24) 志摩子があまりに長い間、手を振り続けていたので、やっと車が動き始め、降りしきる雪の中、スピードを落としたままゆっくりと角を曲がって見えなくなった後も、春恵の目には、志摩子の白い手がいつまでもひらひらと動き続けている幻影が焼きついてしまったように思われた。(『ひるの幻 よるの夢』 p.47)

지속성이 있는 동작동사는 단일 사상일 경우 뿐 아니라, 25) 26)과 같이 일정 기간 행하여지는 반복 행위에 대한 시동상 및 계속상도 나타낼 수 있다.

25) この病氣に比較的良効薬を飲み始めたとき、一時的にかなり遠くまで行けるようになったんだけど、いまは半徑100kmぐらいが限界だ。

(『いま 会いにゆきます』 p.188)

26) 3年間、ぼくは校内ではずっとそのシューズを履きつづけた。

(『いま 会いにゆきます』 p.150)



그러나 지속성이 없는 동작동사는, 27a)와 같이 복수의 대상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27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나, 대상이 단수인 경우에는 28b)와 같이 계속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27) a. 弟がはえたたきで蠅を(たたき)殺した。

b. 蠅をころしつづけた。

28) a. 殺人犯が市長を殺した。

b. \* 市長を殺しつづけた。

채귀동사의 「ている」 형은, 동작에 초점을 둘 경우 [동작의 지속]을, 상태에 초점을 둘 경우 [변화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게 되는데, 29)는 후자의 경우이다.

29) 体つきからすると、椅子に腰掛けているのはおそらく男だ。その人物はわずかに前屈みになっている。顔を前方に向け、深く考えごと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暗い色の衣服を着て、革靴を履いている。(『アフター ダーク』 p.45)

한편 주체변화동사의 경우, 「凍る」「腐る」「温まる」「太る」와 같이 지속성이 있는 동사는 30)과 같이 계속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取れる」「定まる」「眠る」「着く」「はじける」「死ぬ」등과 같이 지속성이 없는 변화동사는 31)과 같이 계속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와 32)와 같이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0) 池の水が凍り続ける。

31) 眠っている女は、そのような室内の異変に気づいていないようだ。テレビの発す

る無遠慮な光や音にも、まるで反応を示さない。設定された完結性の中で、  
ただひっそりと眠り続けている。（『アフター ダーク』 p.44）

32) \* 男が死に続けている。

전술한 바와 같이 단일 사상으로, 지속성이 없는 동작동사는 계속상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비해, 지속성이 없는 변화동사는 31)과 같이 「~続ける」 형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계속상을 나타내고 있는 30)과 31)은 같은 것일까? 주체 변화 동사의 경우, 30) 31)와 같은 「ている」 형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어느 경우나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0) ' 池の水が凍っている。

31) ' 女が眠っている。

30)과 31)은 「ていく」「てくる」와 같은 점진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지속성이 있는 변화동사 「凍る」는 30)와 같이 변화가 점차적으로 확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데 비해, 지속성이 없는 변화동사 「眠る」는 변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31)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31)의 「眠り続ける」는 「眠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로, 단순히 [변화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池の水が凍りつづけていく。

31)" \* 女が眠りつづけていく。

「眠る」와 같은 상태변화동사 뿐 아니라, 순간적인 위치 혹은 자세 변화

를 나타내는 「乗る」「立つ」「座る」 등도 33)과 같이 「～つづける」 형을 취할 경우는 「ている」와 마찬가지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게 된다.

33) 母は父のそばに立ちつづけていた。

지속성이 없는 변화동사 「死ぬ」의 경우, 34)의 문이 성립하는 것은 「死ぬ」라는 변화가 성립된 이후의 사태가 아니라, 변화 성립 이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死ぬ」라는 변화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4) 癌の患者が徐々に死んでいく。

그렇다면 「眠<sup>1</sup>続ける」와 「\*死に続ける」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眠る」와 「死ぬ」는 지속성이 없는 순간적인 변화라는 점에서는 같다. 즉, 「眠っている」「死んでいる」는 변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가 「眠<sup>1</sup>続ける」이후의 또 다른 변화 「覚める」를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해, 후자는 「死ぬ」라는 변화 결과로 사태가 종료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死に続ける」와 같은 계속상을 나타낼 필요성이 없거나 나타내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변화동사에 대한 계속상의 가부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의 유무와 관련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사의 의미와도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후향동사 「まくる」도 계속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5)의 「泳ぎま

く」와 같이 동작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그 동작을 마구 해댄다는 의미를, 36)의 「しびれまくる」와 같이 변화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변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게 된다.

35) 子供たちがプー ルで泳ぎまくる。

36) …まあいいや、とにかくそのカー ティス□フラ- にしびれまくって、それがきっかけでトロンボ- ン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アフター ダ- ク』 p.33)

### 7.3.3 「完了」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동작동사는,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弾く」은 37)과 같이 시동상은 물론 완료상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나 시동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라고 해서 모두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결성을 가진 동사는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37) a. 私がうん、とうなずくと おばは譜面を見ずに静かな曲を弾き始めた。  
(『哀しい予感』 p.14)
- b. おばは曲を弾き終えた。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동적 사상의 완성점, 즉, 완결성을 가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食べる」 「読む」 「履く」 「書く」 「ぬう」 「建てる」 「会議する」 「公演する」 등은 미리 예정된 일정 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므로 38) 39)와 같이 완료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 38) そして今回は何も言わず、チキンサラダに意識を集中し、最後まで食べ終える。(『アフター ダーク』 p.30)
- 39) 寝台で、片脚を高く、胸の辺りまで上げて、上靴を履いていたピーターは、ちらとセルゲイを見た切りで眼を落とし、履き終ると立ち上がって、書棚から厚い書物を引抜いて又、寝台に腰かけ、何か挟んである所を開けた。
- (『甘い蜜の部屋』 p.261)

그러나 「走る」 「遊ぶ」 등의 동작동사는 완결성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遊び終る」와 같이 나타내기는 부자연스럽고, [양적인 한정]이라는 조건하에 완료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즉, 「足りる」 「尽く」 등의 후향동사가 그것인데, 40)은 「遊ぶ」 행위가 부족함을, 41)은 충분함을 나타내고 있다.

- 40) 目の前の歩道を、まだ遊び足りなさそうな若者たちや、家路につこうとするサラリーマンたちが行き交っている。(『片想い』 p.7)
- 41) 遊び尽くした、といいいい林作の、多くの刻、微笑いを含んでいる眼が、そんな時、濃い惑溺の影を宿して、水を湛えたように潤うのだ。
- (『甘い蜜の部屋』 p.148)

「尽く」의 경우, 「絞り尽くす」 「埋め尽くす」와 같이 동작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지만, 자세변화동사와 결합한 43)의 「立ち尽くす」는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立ちつづける」 「立っている」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후향동사 「尽く」는 어떤 동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완료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谷を埋め尽くす巨大なコンクリートのスロープ下から、雪を散らし、大量の水が瀑布のように吹き出し始めたのだ。(『ホワイトアウト』 p.188)
- 43) ぼくらは押し黙ったまま、駅前の歩道にふたり並んで立ち尽くしていた。  
(『いま、会いにゆきます』 p.195)

양적인 한정은 변화동사에도 부여할 수가 있는데, 44)의 「乗り切る」는 차에 탄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끝까지 간다는 의미이다.

- 44) サハラの中心部には千四百八十キロだけ水もガソリンもない無人の地域が南北に拡がっていて、私たちはここを乗り切るのにぎりぎりのガソリンしか携行していなかったから、何よりも燃料を減らさないことに心を砕いていたのである。  
(『魂の自由人』 p.54)

仁田(1982b□1997)의 분류를 보면, 변화동사는 지속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완결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속성이 없는 변화동사는 변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45)와 같이 완료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 그 자체가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45) \* 父は何も言わずに死におわった。

「疲れる」「冷える」등은 지속성은 있지만 완결성이 없는 변화동사이기 때문에, 완료상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46) 47)에서 알 수 있다.

- 46) ? 母は辛い仕事で疲れおわった。



47) ? 野菜のクリームスープが冷えおわった。

그러나 지속성이 있는 변화동사에 완결성이 없다고 해서 완료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복합동사의 후향동사가 「終る」「終える」와 같은 의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8) 49)의 「切る」는 「すっかり」라는 의미로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48) ここ数日は睡眠も満足にとれず、からだは疲れ切っている。

(『あふれた愛』 p.34)

49) 「ホテルをようやく見つけだしてチェックインしたとき、ふたりはモルグの死体みたいに 冷え切っていたんだ」(『いま、会いにゆきます』 p.222)

「切る」는 변화동사 뿐 아니라 50)의 「わかる」와 같은 상태성의 동사와도 결합할 수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切る」와 같이 의미 변화한 복합동사의 후향동사가 시간적인 국면에 따른 제약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며, 통어 부문에서 수 많은 복합동사를 생성함으로써, 일본어 복합동사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0) ところが社会から辛いことと抵抗を感じるようなことが一切なくなる状態というのは、永遠に来ないことはわかり切っている。(『魂の自由人』 p.92)

마찬가지로 「崩れ去る」「忘れ去る」등도, 「崩れることが去る」「忘れることが去る」와 같은 주술관계가 아니라, 「すっかり」로 의미 변화한 「去る」가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51) …父親が兄貴に、悪いところを見られて、捉まえられた小娘のようだったことを、まるで忘れ去っているモイラの、…。(『甘い蜜の部屋』 p.259)

한편 동작동사이면서도 결과물을 산출해낸다는 이른바 [생산동사]로 분류되는 「作る」「編む」「築く」「立てる」「こしらえる」 등은 완결성을 가진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변화한 접미사적 요소 「上げる」와 결합하여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52) …**実戦**において次々と成果を挙げ、他の小隊の手本となるまでの**戦法**を築き上げたのは、アテルイだった。(『まほろばの疾風』 p.240)
- 53) 何か架空の理由をつくり上げようとしたが、見事なまでに何も思いつかなかった。(『いま 会いにゆきます』 p.102)

그렇다고 「上げる」가 항상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書く」「読む」는 완결성을 가진 동작동사이다. 54)는 완료를 나타내고 있지만, 55a)의 「読み上げる」는 주문한 내역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의미로, [상승]이라는 본의를 가진 경우이다.

- 54) 若さとひきかえに**悪魔**メフィストフェレスに魂を売ったゲエテの『ファウスト』が、作家生涯をかけての**荘重**な大作であるのに比べると、ひと夏で書き上げたという『影をなくした男＝ペーター シュレミールの不思議な物語』は、…。
- (『30年の物語』 p.172)
- 55) a. ウェイトレスは手にした機械に注文をインプットし、読み上げて確認する。
- (『アフター ダーク』 p.240)

b. 声高読んで確認する。

c.? 読み終えて確認する。

「～止む」의 경우는 주로 「降りやむ」와 같은 자연 현상이거나 56)과 같이 무의지적인 행위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56) 赤ん坊がむずかり始めた。志摩子が代わりに抱き上げ、優しく揺すりながらあやしたのだが、いっこうに泣きやまない。(『ひるの幻 よるの夢』 p.46)

지속성은 있지만 완결성이 없는 동작동사 및 변화동사는 완료상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의미 변화한 「去る」 「上げる」 「切る」 등의 동사가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완료를 나타내거나, [양적인 한정]이라는 조건하에 완료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적 사상을 나타내는 주체동작동사 및 주체변화동사에는 시간적인 분리, 즉 전개 과정의 국면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리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개의 동사에 대한 분석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始動」 「繼續」 「完了」를 나타내는 보문구조의 후향동사는 수많은 복합동사를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전향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결합의 가부가 결정되지만, 관여하는 명사구 및 문맥적 상황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4 「未遂」를 나타내는 후향동사

「未遂」를 나타내는 후향동사는 전향동사의 행위를 수행하지 못한(또는 사태가 수행되지 않은) [미 수행]을 의미한다. [7.2]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未遂」를 나타내는 후향동사는 적지 않다. 그러나 「未遂」로 분류된다

고 하더라도 결합하는 전향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법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문법관계는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복합동사가 나타내는 미 수행에는 의미차도 있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未遂」를 나타내는 보문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결합하는 전향동사와의 의미관계를 통하여 보문구조 성립의 가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57)의 「乗り遅れる」는 「V1することにV2」 즉, 늦어서 타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58)의 「構え遅れる」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문 중의 「意表を突かれ」에서 알 수 있듯이 부주의에 의해 사태가 성립한 경우이다. 후향동사 「遅れる」는 58)와 같이 「損う」로 교체할 수가 있다.

57) 電車に乗り遅れた。

58) 顔を出した男が、体をびくつかせてこちらを振り向いた。その手元に、小銃らしき影。だが、完全に意表を突かれ、構え遅れている。

(『ホワイトアウト』 p.223)

58) 'だが、完全に意表を突かれ、構え損っている。

「損う」를 후향으로 하는 59)는 문중의 「思わず」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의지적으로 「つかむこと」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처지에 놓여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9) 自動小銃を拾い上げた。予想以上の重みに、思わず指先が震え、つかみ損ないそうになる。(『ホワイトアウト』 p.225)

이와 같이 「未遂」를 의미하는 보문구조는 행위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주의 혹은 무의지라는 의미요소가 사태 성립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보문구조가 문법관계로 결합된 복합동사라고 하더라도 의미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未遂」를 의미하는 일부 보문구조는 松本에서 언급한 [배경적 정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松本은 「前項が後項の背景的情報を表すもの」라 하여 60)과 같은 복합동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밑줄 친 복합동사는 [7.2]에서 「未遂」로 분류된 내용과 중복된다<sup>88)</sup>.

- 60) a. 食べ残す、取り残す、摘み残す、拾い残す、積み残す、剃り残す、やり残す、言い残す、書き残す  
 b. 取りこぼす、取り過ごす、取り逃す、取り落とす、釣り落とす、取り漏らす  
 c. 見落とす、見過ごす、見失う、聞き漏らす、聞き逃す、書き落とす、言い落とす

60a)는 「～残す」류, 60b) 60c)는 「～落とす」「～漏らす」「～逃す」류의 복합동사가 배경적 정보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残す」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松本은 「残す」에 대해, 「ある物体を誰かが無くしてしまうことが予想されるという背景の中で、そうしないで存在し続けさせることを表す」라 하여, 전항동사가 후항동사의 배경 즉, 전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61)에서는 전제가 되는 「味わう」「食う」행위를 완수할 것이

88) 松本 曜는 石井正彦과 상반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石井正彦은 보문구조의 후항동사를 「文法=派生的な複合動詞をつくる接尾辞的要素」로 간주하고 있으나, 松本 曜는 57)의 복합동사에 대해 「後項動詞を意味的主要部とし、前項動詞が後項動詞の背景を具体的に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石井正彦은 [보문구조]의 관점에서, 松本 曜는 [배경적 정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처 수행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 수행의 이유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味わい残す」는 「常吉を怖れたために」와 같이 미 수행의 이유가 명확하지만, 「食い残す」의 경우는 「行きたがる」에서 알 수 있듯이 미 수행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으나, 미 수행의 이유는 알 수가 없다.

61) 常吉を怖れたために、味わい残したピータアの蜜を、モイラは食い残した生肉のある場所へ戻って行きたがる獣の仔のような貪婪で、追憶している。

(『甘い蜜の部屋』 p.259)

62)에서도 「泥を拭くべきであること」가 후향동사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 수행의 이유나 원인은 알 수가 없다. 즉, 보문관계인 복합동사가 통어 부문에서 생성되었든 어휘 부문에서 생성되었든, 「未遂」를 의미하는 보문구조는 전항이 나타내는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있으며, 사태 성립의 과정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少し間を置き、拭き残した泥で斑になった少女の顔が、こくりと頷いた。

(『まほろばの疾風』 p.296)

마찬가지로 63)의 「取<sub>レ</sub>逃す」도 「取るはずであったこと」를 결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문중의 「しまった」에서 알 수 있듯이 부주의에 의해 사태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63) 一度など、勢子が追いあげてくるのとはまったく反対、自分の背後に突然クマが現れ、あまりの驚きで引き金を引けないでいるうちに取<sub>レ</sub>逃がしてしまったこともある。(『邂逅の森』 p.115)



「～落とす」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후향동사 「落とす」는 [수단-결과] 구조 64)에서는 「上から下へ物の位置を変える」라는 본의를 가지므로, 「V1することによってV2」관계가 성립한다. 65)의 경우는 「取<sup>り</sup>付けて落下<sup>させ</sup>てしまう」를 의미하는데, 부주의에 의해 사태가 성립한 것으로 「落とす」는 본의를 가지고 있다.

64) 帽子の雪を払い落とした。

65) 銃を取り落としたのか、その後に銃声は続かなかった。

(『ホワイトアウト』 p.224)

그러나 「見る」「言う」「聞く」등과 같이 언어, 지각 활동을 나타내는 전향과 결합했을 때는 의미 변화하여 누락, 간과 등의 의미를 갖게 된다. 66)의 경우, 후향동사 「落とす」는, 본의를 잃고 있기 때문에, 「見ることを落とす」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見落とす」는 [간과하다] 즉, 「見ることを逃す」를 의미하고 있다.

66) 計算の間違いを見落とした。

「聞く」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7a)의 「聞き落とす」는 67b)의 「聞き逃す」 67c) 「聞き漏らす」와 교체 가능하다. 67b)의 「聞き逃す」는 「うっかりして、聞くべきことを聞かないでしまう」를 의미하며, 「聞くことをのがす」라는 보문관계에 있다.

67) a. 約束の場所を聞き落とした。

b. 約束の場所を聞き逃した。

c. 約束の場所を聞き漏らした。

이와 같이 후향동사 「落とす」는, 구체물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전향동사와 결합할 경우는 본의를 가지지만, 언어, 지각 행위를 나타내는 전향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부주의를 함의하는 「～逃す」 「～漏らす」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未遂」를 나타내는 후향동사로서는 「落とす」가 본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문맥에 따라서는 사태 성립에 格名詞의 의도성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68)은 알고도 일부러 눈감아 주는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見逃す」 자체가 의도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 68) 発見した越境操業を見逃す代わりに、裏金を要求してくるケースが多いことは、この海域で操業する船には、すでに常識だった。  
(『ホワイトアウト』 p.50)

「未遂」로 분류되더라도 69)의 「聞き違える」는 67b)의 「聞きのがす」와는 다른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부주의에 의한 결과이지만, 「聞き逃す」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들어야 할 것을 부분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빠뜨리게 된 경우, 즉 듣는 것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데 비해, 「聞き違える」는 들은 사실은 분명하나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적 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는 「聞くべきこと」를 전제로 하지만, 후자는 「正し聞くべきこ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69) 彼女の言葉を、自分が聞き違えた…あるいは彼女が錯覚したか、夢でも見たのに違いない…。(『あふれた愛』 p.24)

그렇다고 후향동사 「違える」가 모두 미 수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70a)의 「刺し違える」는 70 a)와 같이 서로 상대를 찌른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相互」로 분류해야 할 것이나, 70 b)에서 알 수 있듯이 보문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ふん、そう極悪人を見るような目をしなさんな。政治家に金を出した以上、返ってこなかったからといって、泣き言を言うなということじゃよ。それが悔しかったら、刺し違えて死ぬしかあるまい」(『伊香保殺人事件』p.250)

- 70) ' a. 互いに刺しあう.  
b. \* 刺すことを違える.

이와 같이 문법관계로 결합한 보문구조라고 하더라도 성립에 관여하는 의미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배경적 정보]는 「未遂」의 보문구조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うっかりして」「思わず」「しまった」등을 통하여 「未遂」는 부주의 혹은 무의지적 사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石井(2002)는 「出し惜しむ」「出し渋る」등도 「未遂」로 분류하고 있는데, 「出すことを惜しむ」「出すことを渋る」와 같이 문법관계는 성립한다. 그러나 후향동사 「惜しむ」「渋る」는 [꺼리다] [아까워하다] [주저하다] 등과 같이 행위주체의 심리상태 혹은 심적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71) 72)를 보문구조로 간주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학회비를 내지 못하다]와 같이 행위의 완수 여하를 말하는 미 수행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71) 保険料を出し渋る.

72) 学会費を出し惜しむ。

73)에서도 「売べきこと」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복합동사 「売<sup>り</sup>渋る」 자체는 팔까 말까를 망설이는 심리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73) 「ええ、そのはずですよ。あのマンションを建てるんで、不動産屋が土地を買い集めていて、駐車場の持ち主が長いこと売<sup>り</sup>渋っていたような覚えがあるわね」 (『奇跡の人』 p.178)

「~兼ねる」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兼ねる」는 본디 [겸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타동사인데, 보문구조의 후향동사로는 본의가 상당히 희박해져서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決め兼ねる」의 경우는 「決めることを兼ねる」 즉, [결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미 수행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待つ」와 결합한 후향동사 「兼ねる」는 미 수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カ格名詞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74) 75)는 「来るのが遅くて待ち切れなくなる」 즉, 미 수행을 의미한다.

74) 石段を下りきるのを待ちかねたように、高木が不満そうに言った。

(『伊香保殺人事件』 p.126)

75) モイラはその日、林作が帰るのを待ち兼ねて、二階へ蹴いて、上がった。

(『甘い蜜の部屋』 p.268)

그러나 76)의 경우는 76 a) 76 b)와 같이 두 경우로 해석할 수가 있다. 76 a)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뜻이]를 의미하는 미 수행으로 볼 수

가 있고, 76 b)는 [에타게 기다렸다는 듯이]로 해석할 수 있다.

76) 『グレート□デスリフ』を最後まで仕上げてから、スペッツェス島での生活についていくつかスケッチのような文章を書き(ここに収められたものの原形である)、それから待ち兼ねていたように小説にかかった。(『遠い太鼓』 p.161)

76) 'a. 待ち切れなくなっていたように小説にかかった。

b. 今か今かと待っていたように小説にかかった。

분석한 바와 같이,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보문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후향동사의 본의가 희박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문맥에 따라서는 같은 형태의 복합동사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石井(2002: 264)는, 보문구조의 후향동사(접사적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전향동사(여기)의 어휘적인 의미를 변화시키는 일 없이, 전향이 나타내는 동작 또는 변화의 「起り方」를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향동사와 상관없이 전향동사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伸び悩む」는 「伸びることに悩む」라는 문법 관계로 결합된 보문구조이다. 농구선수인 A가 중학교 시절에는 175cm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현재 겨우 177cm 정도이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77)의 경우가 될 것이다. 반대로 B라는 일반 여중생의 키가 현재 175cm인데 매년 5~6cm 씩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78)의 경우가 될 것이다. 즉, A는 키가 크지 않아 걱정이고, B는 키가 너무 커서 걱정이므로 같은 형태의 「伸び悩む」로 표현하더라도 정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77) a. 高校生のAは伸び悩んでいる。

b. ( 背が伸びないことに ) 悩んでいる。

78) a. 中学生のBは伸び悩んでいる。

b. ( 背が伸びすぎることに ) 悩んでいる。

또한 79)의 「伸びる」는 [성장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출전 결과 성적 등이 향상됨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는 「伸びないことに悩む」라는 의미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9) 肥満 というほどではないが、首の周りに少し肉がついてきている。現役時代は鉛筆のように瘦せた選手だった。箱根駅伝で注目を集めたが、実業団入りしてから伸び悩んだ。故障の多い選手だったのだ。(『片思い』 p.70)

77)은 키가 더 클 것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78)은 더 이상 크지 않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예상 기대치에 어긋나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문법 관계는 성립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미 수행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置き忘れる」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80)은 두고 와야 될 물건을 깜박 잊고 가지고 온 경우이므로 「置くことを忘れる」라는 문법관계가 성립하는 보문구조이다. 81a)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ヨーグルト」를 잊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이므로 81b)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80) ( 家に置くべきものを ) 置き忘れて会社に持って来てしまった。

81) a. 冷蔵庫にしまい忘れたヨーグルトが、一晩で腐ってしまった。

(『ホテル□アイリス』 p.142)

b. 冷蔵庫にしまうことを忘れた。 / 冷蔵庫に入れて置くことを忘れた。



반대로 82)는 두고 와서는 안 되는, 본인이 소지하여야 할 물건을 잊고 그대로 둔 경우이다. 이 경우는 「置くことを忘れ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忘れて置いた」 즉, 「V2してV1する」의 관계로, 「忘れたこ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83)의 경우, 복합동사 자체만으로는 82)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나, 전체 문맥상으로는 カ格名詞의 의도성이 관여하는지가 문제이다.

82) 電車の中に傘を置き忘れた。

83) ただ…理解できないのは、彼女の、たぶん手製の、詩集のことです。置き忘れたのか、わたしに渡すつもりだったのか、それはわかりませんが、彼女が持っていた詩を書きつづっているノートのようなものを、いまだ預かっているんです。…  
(『あふれた愛』 p.103)

한편 84)의 「置き忘れる」는 「置いた場所を忘れる」 즉, 어디다 두었는지만 장소를 잊어버린 경우이다. 이와 같이 「置き忘れる」는 보문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4) 携帯電話を置き忘れて探し回る。

분석한 바와 같이, 「未遂」를 의미하는 보문구조는 문법관계로만 보기에 그 의미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문구조가 통어 부문에서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어휘 부문에서도 생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7.5 「再試行」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7.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再試行」을 나타내는 후향동사에는 「～返す」「～直す」「～替える」 등이 있는데, 이들 동사에 대해서는 斎藤 (1992) □ 姫野 (1999) □ 由本 (1997) 의 상세한 분석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sup>89)</sup>.

우선 「～返す」의 경우를 보자. 85)의 「見返す」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내포된 반복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訊き返す」는 단순 반복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見返す」와 「訊き返す」의 공통적인 의미특징은 재 시행이지만, 전자가 동일한 동작주체의 반복 행위인데 비해, 후자는 상대의 물음에 되묻는 것으로, 언어 행위의 주체가 별개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86)의 「投げ返す」도 「訊き返す」와 같은 경우이다<sup>90)</sup>.

85) 写真を何度も見返したのち、

「どうしたの、これ」

かすれた声で言った。喉がひりつき、確かな声が出ない様子だった。

「なんですか」と訊き返す。(『あふれた愛』p.329)

86) 女の声とともに、濡れ雑巾が飛んできた。…「この女っ、兄貴に向かって何し

やがんでえ！」小太郎が投げ返した雑巾を、女は身軽にかわして笑い転げ

た。(『邂逅の森』p.269)

89) 「～返す」에 대해서는 斎藤倫明 (1992), 「～直す」에 대해서는 姫野昌子 (1999) 및 由本陽子 (1997) 의 분석이 있다. 특히 由本陽子에서는 영어의 접두사 “re-” 와 대조 분석하고 있다.

90) 斎藤倫明 (1992) 는 「逆方向への移動」으로 의미 분류하고 있다.

특히 「見返す」의 경우는 85)와 같은 반복 행위, 86)과 같은 방향성의 재 시행 외에도 「後ろを振り向いて見る」와 같이 단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人から見られたのに対し、こちらからも見る」라고 하는 심적 상태를 동반한 재 시행의 경우도 있다.

재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直す」의 경우는 반복 행위에 수정 의식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복 행위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87)은 단순한 반복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문중의 「再び」가 재시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 87) 無言のまま再び銃を構え直した男に、運転長があえぐように息をついだ。  
(『ホワイトアウト』 p.127)

그러나 88a)는 반복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계에 의해 한번 행하여졌던 작업을 수작업으로 다시 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정 이전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88b)에서 알 수 있다. 由本(1997)에도 「副詞的修飾部」에 대한 언급이 있다.

- 88) a. 機械の不具合で、接着しきれずに返品された箱を、手作業で貼り直すこともある。(『あふれた愛』 p.200)  
b. 機械で貼った箱を手作業で貼り直した。

人名詞의 사고, 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89) 90)은 문중에서 반복 행위 후의 수정 결과, 즉 89)에서는 전화 카드를 한 장 더 샀다는 사실을, 90)에서는 직접 전해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姫野(1999: 204)는 「特に「思いなおす、見なおす、考えなおす」等、思考に関する語の場合

は、必ず良い結果を生み出す意味で使われる」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89) 90)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 결과는 명확하지만 그러한 의미에 부합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 89) ぼくはもう一度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へ足を運び、テレホンカードをもう一枚買い足した。考え直し、さらにもう一枚買った。(『奇跡の人』 p.339)
- 90) 彼女のマフラーを、従業員にたくそうとした。直接渡したいと思い直し、いったん店の外へ出た。(『あふれた愛』 p.278)

「打ち直す」의 경우를 보자. 91)은 「打つことを直す」 즉, 수정을 함의한 재시행의 보문구조이다. 7格名詞 「薙手刀や鋏を」는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御飯を炊く」와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潰した鉄」를 녹이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薙手刀や鋏」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92)이다.

- 91) 密貿易で手に入れた農具で開墾を進め、潰した鉄で薙手刀や鋏を打ち直す。(『まほろばの疾風』 p.254)
- 92) そのまま我々の農耕に使うこともできよう、溶かして打ち直せば、剣や鋏にもなる。(『まほろばの疾風』 p.245)

이번에는 「～替える□～換える」의 경우를 보자. 姫野(1999: 205)에서는, [「～かえる」は、必ず別の状態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설명하면서 「持ちかえる」 「乗<sup>リ</sup>換える」 「住みかえる」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즉, 전술한 「直す」 「返す」와 「替える□換える」의 의미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93)에서는 재시행 이전에 「籠」를 왼팔에 소지하고 있었고,

94)에서는 재 시행 이전에 다른 차를 이용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3) 94)는 각각 「持つことをかえる」 「乗ることをかえる」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93) ぼくはその表紙の女がどんな色のマニキュアをしているか興味があったが、老人が籠を右腕に持ち替えたので確認できなかった。(『空港にて』 p.12)

94) だからそういう金持ちはオンボロのセコハンの車を何台も買って毎日違った時間に違った車に乗り換えて外出する。(『魂の自由人』 p.174)

95)에서도 단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재 시행 이전의 것과 다른 상태의 결과물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5) きのうカーテンを作り替えた。

마찬가지로 96)의 「買い換える」도 이전의 것과 다른 물건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는 재 시행 이전과 다른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96) 哲朗がパソコンを買い換えた時に理沙子からいわれた台詞を思い出した。

(『片思い』 p.78)

그런데 후향동사 「替える」 혹은 「換える」가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보문구조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97)의 「取<sub>1</sub>替える」는, 「取<sub>1</sub>て替える」를 의미하는 병렬구조로, 보문 관계 「\*(フィルムを)取<sub>1</sub>ることを替える」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필름을 교체하기 위하여 끄집어낸 것인

데, 그렇다고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는 없다. 97 b)는 성립하지만 97 c)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97) その状態で何枚か撮った後、理沙子はカメラの蓋を開けてフィルムを取り替えた。(『片思い』 p.76)

- 97) 'a. フィルムを取って(別のフィルムに / 新しいフィルムに)替える。  
b. フィルムを替えるために取る。  
c. ? フィルムを取ることで替える。

또한 98)도 「(汚れたタオルを)取って(新しいものに)替える」를 의미하는 병렬구조이다. 97)은 전향동사가 「カ格」명사구를, 98)은 후향동사가 「ニ格」명사구를 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98) 汚れたシーツをベッドから引きはがし、バスルームのタオルを新しいものに取り替える。(『アフターダーク』 p.58)

이와 같이 「替える」「換える」를 후향으로 하는 재 시행의 보문구조는, 단순한 반복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カ格名詞의 위치 변화 혹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보문구조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6 「習慣」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습관을 나타내는 후향동사 「慣れる」는 전향동사가 나타내는 반복 행위 또는 어떤 사태에 익숙해져 있음을 의미하고, 「飽きる」는 싫증이 나게 됨



을 의미한다. 99)의 「見慣れる」는 「見ることに慣れる」와 같은 문법관계가 성립하는 보문구조이며, 만날 때마다 밝게 웃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00)에서도, 「副署長」이라는 직책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못하여 아직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9) 莎織が、笑顔で彼を迎えた。数日前までと変わらない、見慣れたいつもの笑顔だった。(『あふれた愛』 p.34)

100) 奥田勲は、まだ座り慣れない副署長席の椅子から立ち上がると、びっしりと露をつけ曇りガラスとなった窓の前に歩み寄った。(『ホワイトアウト』 p.147)

후향동사가 본래 습관을 함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01)의 「つける」는 의미 변화하여 결합한 접미사적 요소로 간주된다. 「やりつける」는 늘 해버릇하여 익숙하다는 의미이다.

101) 鋤焼はいつもやりつけた料理だから楽だ。

그런데, 石井(2002)에서는 「待ちくたびれる」「泣き疲れる」등을 「やりつける」와 같은 습관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복합동사는 본 연구의 [제 3장]에서 [원인-결과] 구조로 분류한바 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102) 103)와 같이 보문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02) ヒロがまた呼んだ。これ以上長く、ここにとどまることはできそうもなかった。二人は待ちくたびれているし、いつまた雪が降りだすかもしれないし、閉館時間

がきて扉が閉ざされるかもしれなかった。(『余白の愛』 p.156)

103) どのくらい時間がたっただろう。泣き疲れて眠ってしまっていた私は、何かいい  
匂いに目を覚ました。(『恋愛中毒』 p.291)

102) 'a. 待つことにくたびれる

103) 'b. 泣くことに疲れる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자. 우선 「待ちくたびれる」「泣き疲れる」는 104)와 같이 가격名詞의 상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복합동사이다. 반면, 습관을 나타내는 보문구조 「見慣れる」「飲み飽きる」등은, 105)와 같이 왜 낮익게 된 것일까, 왜 싫증이 난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익숙해지거나 싫증이 나는 것은 횟수의 반복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104) なぜくたびれているだろうか。 / なぜ疲れているだろうか。

105)? なぜ慣れているだろうか。 / ? なぜ飽きているだろうか。

또 다른 이유는 전자가 시간의 과잉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횟수의 반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7) 108)의 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거나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복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은 109)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106)? 5度泣いたから疲れた。

107) この景色も見飽きた。(何度も見て、見るのがいやになった。)

108) 一晩中聞いたから飽きてしまった。(何度も聞いて、聞くのがいやになった。)

109)? ただ一回飲んでも慣れた。

단지 「V1することにV2」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習慣」을 나타내는 보문구조의 후향동사는 횃수의 반복을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문구조는 기본적으로 통어 부문에서 생성된 복합동사이기 때문에, 가령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일본어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7.2]에서 제시한 후향동사들을 파악해 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어휘 부문에서도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문법관계로 결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개의 복합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떤 전향동사와 결합하는지, 어떤 문맥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후향동사가 갖는 의미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후향동사의 형태만으로 보문구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10) 보문구조의 성립조건 및 의미특징

##### A. 「始動」「繼續」「完了」를 나타내는 경우

###### (1) 「始動」

- ①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동작 혹은 변화의 전개 과정 중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만이 시동 표현이 가능하다.
- ② 物名詞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事柄名詞를 취함으로써, 方格名詞의 감정, 사고, 지적 판단 등이 관여하는 변화동사로서의 전개 과정을 갖게 되고, 전개 과정 중, 시작점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 (2) 「繼續」

- ① 시동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계속상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② 변화동사에 대한 계속상의 가부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의 유무와 관련되지만, 동사의 의미와도 관련된다.
- (3) 「完了」
  - ① 지속성은 있지만 완결성이 없는 동작동사 및 변화동사는 완료상을 나타내기가 어려우나, [양적인 한정]이라는 조건하에 완료를 나타낼 수가 있다.
  - ② 「去る」「上げる」「切る」 등의 동사는 접미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 (4) 시동상, 계속상, 완료상에 대한 결합의 가부는 대부분 전향동사의 어휘적 의미(아스펙트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관여하는 명사구 및 문맥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B. 「未遂」를 나타내는 경우

- (1) 「うっかりして」「思わず」「しまった」와 같이 부주의 또는 무의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문법관계로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배경적 정보]라는 관점에서 의미 분석할 수 있다.
- (3) 전향동사의 종류 및 문맥적 상황이 문법관계 성립의 가부에 관여하고 있다.

C. 「再試行」을 나타내는 경우

- (1) 「～返す」는 주로 반복의 의미로, 「～直す」수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2) 「考え直す」「思い直す」등은 사고나 지적 판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러스 이미지를 갖는 변화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 (3) 「替える」「換える」를 후향으로 하는 경우는,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カ格名詞의 위치변화 혹은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D. 「習慣」을 나타내는 경우

- (1) 「待ちくたびれる」「泣き疲れる」등은 문법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본디 습관을 함의하지 않은 후향동사 「つける」는 의미 변화하여 결합한 접미사적 요소로 간주된다.
- (3)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는 횟수의 반복이 성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8장 결론

일본어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전향요소(V1)와 후향요소(V2)의 의미관계에 따라 [수단-결과] 구조, [원인-결과] 구조, 양태구조, 부대상황구조, 병렬구조, 보문구조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라고는 하지만, 형태, 의미, 통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한 각 유형의 [의미□구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구조적] 특징이란, 의지성, 자□타동성, 아스펙트, 보이스와의 관련 등에 따른 본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복합동사 내부에서 어떤 의미 역할을 하며, 문맥적 상황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두 동사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순서로 결합하여,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어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본 논문은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렬 구조를 순차적 병렬 구조와 비순차적 병렬 구조로 구분하였고, [원인-결과] 구조를 직접 복합에 의한 경우와 파생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내용면에서는 8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셈이다. 분석의 결과, 전형적인 복합동사의 어 구조형을 제시하였고, 각 어 구조의 [의미□구조적] 특징은 명확히 구분되었다. 또한 복합동사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전향 혹은 후향동사가 접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구조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타동사가 대상의 변화까지를 나타내느냐에 관한 문제는 대응하는 자동사의 유무 및 타동사의 타동성과 관련이 있다.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는, 구성요소인 동사가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작+변화] 구조이지만,



カ格名詞의 종류에 따라 변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태성립의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 지각 행위에 관여하는 동사가 전향일 경우는, [동작+변화] 구조라고 하더라도 カ格名詞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가 力格名詞 자신의 지적 판단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동작+동작] 구조이지만 [수단-결과] 구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합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수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カ格名詞의 변화가 力格名詞의 의지에 의한 경우만이 [수단-결과]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동작□대상에의 영향□변화] 라는 세 요소를 분석의 관점으로 한 것은 전형적인 [수단-결과] 구조의 성립 조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향동사의 타동성이 복합동사의 어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후향동사의 자□타동성에 따라서도 어 구조는 달라진다. [원인-결과] 구조의 특징은 시간관계나 의지성의 유무만으로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원인-결과]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간 또는 활동량의 과잉]이라는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성립되며,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 [마이너스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직접 복합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는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이 人名詞(또는 人名詞의 신체 일부분)에 한정되지만, 파생에 의한 [원인-결과] 구조는 변화에 관여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파생에 의한 복합자동사의 대부분은 [원인-결과] 관계로 보기 어렵다.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의 비교 〉

| 어 구조    |    | 구성요소    | 내부구조  | 복합동사    | 관련구문 |
|---------|----|---------|-------|---------|------|
| [수단-결과] |    | 타동사+타동사 | 동작+변화 | 切り落とす   | 타동사문 |
| [원인-결과] | 직접 | 타동사+자동사 | 동작+변화 | 待ちくたびれる | 자동사문 |
|         |    | 자동사+타동사 | 동작+변화 | 泣きはらす   |      |
|         |    | 자동사+자동사 | 동작+변화 | 喋り疲れる   |      |
|         |    |         | 변화+변화 | 焼け死ぬ    |      |
|         | 파생 | 자동사+자동사 | 동작+변화 | 擦り切れる   |      |

[수단-결과] 구조는 ㄱ格名詞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원인-결과] 구조는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 어 구조의 공통적인 내부구조는 [동작+변화] 구조이며, 그 차이는 복합동사 구성요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단-결과] 구조는 ㄱ格名詞의 동작과 ㄱ格名詞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변화] 구조인 반면, [원인-결과] 구조는 ㄱ格名詞의 동작과 ㄱ格名詞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변화] 구조이다. [원인-결과] 구조의 [동작+변화] 구조는 전항이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ㄱ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항이 자동사인 경우에는 의지성의 유무가 관여하지만 결과는 ㄱ格名詞의 상태 변화이다.

양태구조는 양태를 나타내는 항이 오로지 주동사의 동작만을 직접 수식하는 [수식□피수식] 관계로 결합된 어 구조이다. 자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는 이동과 같이 人名詞의 의지적인 동작이 있는가 하면, 내적 감정이라든가 자연현상 등에서의 동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무의지적인 동작이 있다.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결합특성의 하나로 의지성의 유무를 들 수 있지

만, 이동 이외의 경우는 그러한 결합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비유적으로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사 문에만 존재하는 양태구조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타동사문과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부대상황구조는 동작이 어떤 상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복합동사의 구성요소가 나타내고 있다. 타동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대상황구조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타동성이 강한 타동사는 통상 두 동사가 결합하여 ㄱ格名詞와의 관계 즉, ㄱ格名詞에의 영향 및 ㄱ格名詞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만, ㄱ格名詞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타동사는 ㄱ格名詞와의 관계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유의어로 결합하여 동작을 강조한다든가, 동작에 수반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의 경우를 비교 분석한 아래 표를 통하여,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의 뚜렷한 차이를 알 수가 있다.

<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의 차이점 >

| 구조   | 양태구조                     | 부대상황구조                          |
|------|--------------------------|---------------------------------|
| 이동주체 | 제한없음                     | 人名詞                             |
| 구성요소 | [자동사+자동사]<br>(복합자동사)     | [타동사+자동사][자동사+타동사]<br>(복합타동사)   |
| 내부구조 | [동작+동작]<br>[동작+변화]       | [동작+동작]<br>[상태+동작][상태+변화]       |
| 의미관계 | V1しながらV2<br>V1のようにしながらV2 | V1するためにV2□V2するためにV1<br>V1の状態でV2 |
| ㄱ格   | 이동의 경로                   | 대격                              |
| 전향동사 | 이동의 양태                   | 이동목적(「出迎える」: 후향)<br>이동주체의 상태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의미 관계 뿐 아니라, 이동주체의 의지성의 유무, 복합동사의 구성요소, 그리고 내부구조에 있어서도 구분될 수 있다. 양태구조는 대상과 무관하지만 부대상황구조는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의 차이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순차적 병렬구조에 있어서는, [수단-결과] 구조 및 [원인-결과] 구조의 전향동사가 각각 수단 및 원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동작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고 구성요소가 본의를 가진다는 조건 외에 결합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합동사 생성 가능성이 크다는 잇점이 있다. 타동사문에서의 순차적 병렬구조가 [수단-결과] 구조와 구분되는 점은, ㄱ格名詞에 변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향동사의 동작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ㄱ格名詞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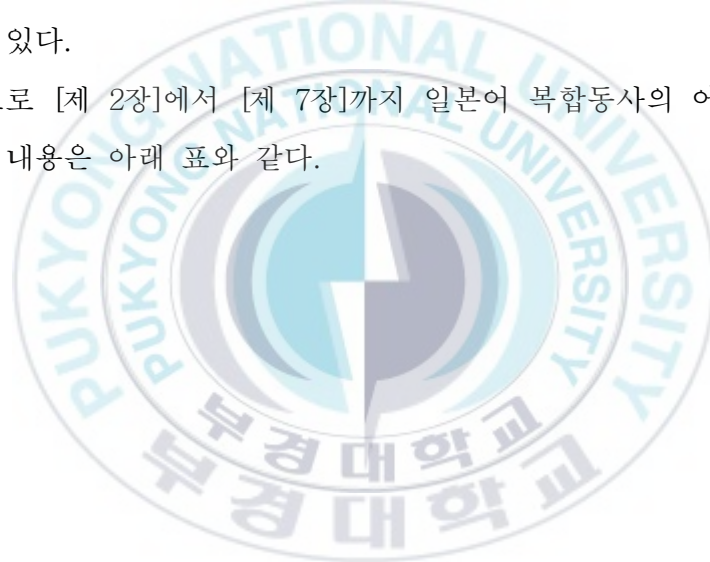
비순차적 병렬구조는 동작, 변화 혹은 상태 중,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의어가 결합하여 대등의 관계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의어이면서도 어느 한쪽의 동사가 접사적 요소로 결합하여 주동사를 강조하는 의미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유의어가 아닌 두 동사가 결합한 비순차적 병렬구조는 전향과 후향이 동시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이므로, [수식□피수식] 관계인 양태구조와 구분된다.

보문구조의 성립조건은 구성요소가 문법관계로 결합되어 있는가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법관계인 어 구조로만 인식하기에는 구성요소간의 의미관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동상, 계속상, 완료상에 대한 결합의 가부는 대부분 전향동사의 어휘적 의미(아스펙트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관여하는 명사구 및 문맥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切る」 「上がる」

る」와 같이 의미 변화한 후향동사는 시간적인 국면에 따른 제약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며 일본어 복합동사의 발달을 돕고 있다.

「未遂」를 나타내는 경우는 부주의 혹은 무의지라는 의미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배경적 정보]는 분석의 유효한 관점이 되고 있다. 문법관계는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복합동사가 나타내는 「未遂」에는 의미차가 있으며, 「再試行」을 나타내는 「～返す」「～直す」「～替える□～換える」도 의미차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피하다. 「～慣れる」「～飽きる」와 같이 「習慣」을 나타내는 경우는 횟수의 반복을 성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 2장]에서 [제 7장]까지 일본어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관해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복합동사 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따라 분류한 어 구조〉

| 시간<br>관계 | 어 구조        | 의미관계 |              | 전형적인 예 |         |       | 생성<br>부분 | 관련<br>구문     |
|----------|-------------|------|--------------|--------|---------|-------|----------|--------------|
|          |             |      |              | 전 + 후  | 내부구조    | 복합동사  |          |              |
| 전후       | 수단-결과       | 인과   | V1することによってV2 | 타 + 타  | 동작 + 변화 | 切り落とす |          | 타동           |
|          | 원인-결과       |      | V1の結果, V2    | 자 + 자  | 동작 + 변화 | 泣き疲れる |          | 자동           |
|          | 병렬<br>(순차)  | 대등   | V1してV2する     | 타 + 타  | 동작 + 동작 | 分け與える |          | 타동           |
|          |             |      | V1してV2になる    | 자 + 자  | 변화 + 변화 | やせ細る  |          | 자동           |
| 동시       | 양태          | 수식   | V1しながらV2     | 자 + 자  | 동작 + 변화 | 這い出る  | 어휘       | 자동           |
|          |             |      | V1するかのようにV2  | 타 + 타  | 동작 + 동작 | 盗み見る  |          | 타동           |
|          | 부대<br>상황    | 대등   | V1するためにV2    | 타 + 자  | 동작 + 동작 | 探し回る  |          | 타동           |
|          |             |      | V1の状態でV2     | 타 + 자  | 상태 + 동작 | 持ち歩く  |          | 타동           |
|          | 병렬<br>(비순차) |      | V1すること 即ちV2  | 타 + 타  | 동작 + 동작 | 書き記す  |          | 타동           |
|          |             |      | V1したりV2したりする | 자 + 자  | 동작 + 동작 | 泣き叫ぶ  |          | 자동           |
|          | 보문          | 문법   | V1することがV2    |        |         | 食べ過ぎる |          | 어휘<br><br>통어 |
|          |             |      | V1することをV2    |        |         | 貼り直す  | 타동       |              |
|          |             |      | V1することにV2    |        |         | 見飽きる  | 자동       |              |

복합동사 어 구조 형은 시간과의 관계에 따라 전후 관계와 동시적 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 복합동사 중, 특히 인과관계로 결합된 것이 [수단-결과] 구조와 [원인-결과] 구조이며 변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렬구조는 전후 시간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동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대부분 유의어로 결합되어 있다. 병렬구조



는 전후 관계이든 동시적이든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또한 동시적 관계인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는 동작을 직접 수식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구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단-결과] 구조는 타동사문에, [원인-결과] 구조는 자동사문에 존재하는 복합동사로 명확히 구분되지만, 그 외의 어 구조는 자□타동사문에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합동사에 [타동성 조화의 원칙]과 [우측 주요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문법관계로 결합된 보문구조는 제외하고라도, [원인-결과] 구조 및 부대상황구조의 일부는 [타동성 조화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후행동사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거나 접사적 요소로 결합한 경우는 [우측 주요부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동사의 어 구조에 관한 분석 결과, 각 어 구조의 특징은 물론 어 구조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명확해졌다. 분석에 있어서 「ヴォイス」와 관련해서는 다소 미비한 감이 들지만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 문헌

- 天野みどり 1987a 「状態変化主体の他動詞文」 『国語學』 151
- \_\_\_\_\_ 1987b 「日本語文における〈再帰性〉について」 『日本語と日本文学』 7 筑波大学国語国文学会
- 池上嘉彦 1988 『「する」と「なる」の言語學』 大修館書店
- \_\_\_\_\_ 1993 『意味論』 大修館書店
- 石井正彦 1983a 「現代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における一観点」 『日本語學』 2-8 明治書院
- \_\_\_\_\_ 1983b 「現代語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 『国語學研究』 23 東北大学国語學
- \_\_\_\_\_ 1984 「複合動詞の成立－V＋Vタイプの複合名詞との比較を通じて－」 『国語語彙史研究の研究』 5 和泉書院
- \_\_\_\_\_ 1988a 「辞書に載る複合動詞□載らない複合動詞」 『日本語學』 7-5 明治書院
- \_\_\_\_\_ 1988b 「接辞化の一類型－複合動詞後項の補助動詞化－」 『方言研究年報』 30 和泉書院
- \_\_\_\_\_ 1992 「動詞の結果性と複合動詞」 『国語學研究』 31 東北大学文学部
- \_\_\_\_\_ 2002 「『既製』の複合動詞と『即席』の複合動詞－小説にみる現代作家の語形成－」 『国語論究10 現代日本語の文法研究』 明治書院
- 井上和子 1985 「『変形文法と日本語（下）』より」（『動詞の自他』 1995 ひつじ書房 所収） ひつじ書房

- ウェスリー □M□ヤコブセン 1989 「他動性とプロトタイプ論」  
 (『動詞の自他』1995 ひつじ書房 所収)
- 奥田靖雄 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 金田一的段階-」『宮城教育  
 大学国語国文』8(『日本語研究の方法』むぎ書房 所収)  
 \_\_\_\_\_ 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 奥律敬一郎 1967 「自動化□他動化および両極化転形」(『動詞の自他』  
 1995 ひつじ書房 所収)
- 影山太郎 1993 『文法と語構成』 ひつじ書房  
 \_\_\_\_\_ 1996 『動詞意味論』 くろしお出版  
 \_\_\_\_\_ 2001 『動詞の意味と構文』 大修館書店  
 \_\_\_\_\_ 2002 「概念構造の拡充パターンと有界性」『日本語文法』2巻 2号  
 \_\_\_\_\_ 2004 『形態論と意味』 くろしお出版
- 影山太郎□由本陽子 1997 『語構成と概念構造』 研究社
- 北原保雄 1989 『日本語文法の焦点』 教育出版  
 \_\_\_\_\_ 1992 『日本語逆引き辞典』 大修館書店
- 金田一春彦 1950 「国語動詞の一分類」『言語研究』15 むぎ書房(『日本語  
 動詞のアスペクト』1976 所収)
- 工藤真由美 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人文学会雑誌』13-4  
 \_\_\_\_\_ 1997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 ひつじ書房  
 \_\_\_\_\_ 2001 「述語の意味類型とアスペクト□テンス□ムード」『言語』  
 30-13 大修館書店
- 小泉 保 2000 『基本動詞用法辞典』 大修館書店
- 斎藤倫明 1984 「複合動詞構成要素の意味- 単独用法との比較を通して-」  
 『国語語彙史研究の研究』5 和泉書院  
 \_\_\_\_\_ 1985 「複合動詞後項の接辞化」『国語学』140

- \_\_\_\_\_ 1992 『現代日本語の語構成論的研究』 ひつじ書房
- \_\_\_\_\_ 2002 「語構成論から見た語「追う」の意味形成」 『国語學』  
第53巻 1号
- 斎藤倫明□石井正彦 1997 『語構成』 ひつじ書房
- 佐藤恭子 1986 「うちー ぶちー ぶっー ぶんー」 『日本語學』 5-3  
明治書店
- 佐藤琢三 2005 『自動詞文と他動詞文の意味論』 笠間書院
- 阪倉篤義 1986 「接辞 とは」 『日本語學』 5-3 明治書店
- 愼 賢淑 2004 「자□타 대응의 유무에 따른 복합동사의 語 구조 분석」  
『日本語文学』 第27輯 日本語文学会
- \_\_\_\_\_ 2007a 「어휘적 복합동사 [원인-결과] 구조의 분석- 동사의 파  
생과 관련하여-」 『동북아 문화연구』 제12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 \_\_\_\_\_ 2007b 「어휘적 복합동사 [수단-결과] 구조의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제13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 \_\_\_\_\_ 2007c 「[양태구조]와 [부대상황구조]의 분석- 이동을 나타내는  
어휘적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第39輯  
日本語文学会
- 全 成燁 1992 「「うなぎ文」の成立について」 『国語學研究』 31 東北大学  
文学部
- 須賀一好 1971 「自他違い」 『馬淵和夫博士退官記念国語學論集』 大修館  
書店 (『動詞の自他』 1995 ひつじ書房 所収)
- 孫 東周 1995 「타동성과 Voice와의 상관관계」 『일어일문학』  
일본어문학회
- \_\_\_\_\_ 1999a 「有對他動詞とVoice」 『日本語文学』 第7輯

日本語文学会

- \_\_\_\_\_ 1999b 「有対自動詞とヴォイス」 『日語日文学』 第11集

大韓日語日文学会

- \_\_\_\_\_ 2001 「動詞による動作主と対象との関係ー 有対自動詞を中心にー」  
『日本語文学』 第16輯 日本語文学会

- \_\_\_\_\_ 2002 「動詞에 따른 動作主와 対象과의 関係 — 無對他動詞를  
中心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2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 \_\_\_\_\_ 2005a 『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 J&C

- \_\_\_\_\_ 2005b 「자동성과 프로트타이프론」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 \_\_\_\_\_ 2006 「自□他動詞と使役□受身との関わり」 『동북아 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 高橋圭介 2002 「類義語「思う」と「考える」の意味分析ー 類義関係にある語  
の多義記述試論ー」 『日本語文法』 2巻 1号

- 武部良明 1953 「複合動詞における補助動詞的要素について」 『金田一博士  
古稀記念 言語□民族論叢』 三省堂

- 辻 幸夫 2003 『認知言語学への招待』 大修館書店

- 角田太作 1992 『世界の言語と日本語』 くろしお出版

- 寺村秀夫 1969 「活用語尾□助動詞□補助動詞とアスペクトー その一ー」  
『日本語□日本文化』 1 大坂外国語大学研究留学生別科

- \_\_\_\_\_ 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 \_\_\_\_\_ 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 長嶋善郎 1976 「複合動詞の構造」 『日本語講座 4 日本語の語彙と表現』  
大修館書店

- 西尾寅弥 1954 「動詞の派生について」 『国語學』 17 国語学会
- \_\_\_\_\_ 1978 「自動詞と他動詞における意味用法の対応について」 『国語と国文學』 55-5
- \_\_\_\_\_ 1982 「自動詞と他動詞」 『日本語教育』 47号
- 仁田義雄 1982a 「再帰動詞, 再帰用法—Lexico-Syntaxの姿勢から—」 『日本語教育』 47号
- \_\_\_\_\_ 1982b 「動詞の意味と構文—テンス□アспектをめぐる—」 『日本語學』 1-1 明治書院
- \_\_\_\_\_ 1991 『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くろしお出版
- \_\_\_\_\_ 1997 『日本語文法研究序説』 くろしお出版
- \_\_\_\_\_ 2000 『文の骨格』 岩波書店
- \_\_\_\_\_ 2004 『副詞的表現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早津恵美子 1989 「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 『言語研究』 95 言語学会
- \_\_\_\_\_ 2005 「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をどのように捉えるか」 『日本語文法』 第5巻 2号
- 姫野昌子 1975 「複合動詞『～つく』と『～つける』」 『日本語学校論集』 2 東京外国語大学
- \_\_\_\_\_ 1978 「複合動詞『～かかる』と『～かける』」 『日本語学校論集』 6 東京外国語大学
- \_\_\_\_\_ 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 ひつじ書房
- \_\_\_\_\_ 2001 「複合動詞の性質」 『日本語學』 20-8 明治書院
- 益岡隆志 1995 『命題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松本 曜 1998 「日本語の語彙的複合動詞における動詞の組み合わせ」 『言語研究』 114



- 三上 章 1983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 宮内 あゆみ 1989 「複合動詞の結合パターン」 『東京女子大学日本文学』 72
- 三宅知宏 1996 「日本語の移動動詞の対格標示について」 『言語研究』 110
- 森田良行 1978 「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 『講座日本語教育』 14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 \_\_\_\_\_ 1984 『基礎日本語Ⅰ』 角川書店
- \_\_\_\_\_ 1990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 凡人社
- \_\_\_\_\_ 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 \_\_\_\_\_ 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 \_\_\_\_\_ 1996 『意味分析の方法』 ひつじ書房
- \_\_\_\_\_ 2002 『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 山梨正明 1995 『認知文法論』 ひつじ書房
- 山本清隆 1984 「複合動詞の格支配」 『都大論究』 21 東京都立大学国語  
国文学会
- 由本陽子 1996 「語形成と語彙概念構造」 『言語と文化の諸相』 英宝社
- \_\_\_\_\_ 1997 「複合動詞を作る『～直す』の意味と構造－英語の接頭辞  
re-との相違を参考に－」 『言語と文化の対話』 英宝社
- \_\_\_\_\_ 2005 「「V＋かえる」と「V＋直す」の意味と統語」  
『日本語文法』 5巻 2号
- 日本大辞典刊行会 1981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 国立国語研究所 1985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 秀英出版

## 예문 출전

- 市川拓司 2004 『いま 会いにゆきます』 小学館
- 内田康夫 2003 『伊香保殺人事件』 講談社
- \_\_\_\_\_ 2005 『蜃気楼』 講談社
- 江国香織 2004 『流しのしたの骨』 新潮社
- 小川洋子 2004 『ホテル□アイリス』 幻冬舎文庫
- \_\_\_\_\_ 2004 『密やかな結晶』 講談社
- \_\_\_\_\_ 2005 『完璧な病室』 中央公論新社
- \_\_\_\_\_ 2005 『余白の愛』 中央公論新社
- 金城一紀 2000 『GO』 講談社
- 岸 恵子 2003 『30年の物語』 講談社
- 桐野夏生 2006 『グロテスク』（下） 文芸春秋
- 熊谷達也 2004 『まほろばの疾風』 集英社文庫
- \_\_\_\_\_ 2004 『邂逅の森』 文芸春秋
- \_\_\_\_\_ 2005 『迎え火の山』 講談社
- 小池真理子 2004 『ひるの幻よるの夢』 文芸春秋
- 佐野良二 1996 『闇の力』 構想社
- 栗井脩介 2005 『栄光一途』 幻冬舎文庫
- 真保裕一 2000 『ホワイトアウト』 新潮社
- \_\_\_\_\_ 2001 『奇跡の人』 新潮社
- 曾野綾子 2003 『魂の自由人』 光文社
- 天童荒太 2005 『あふれた愛』 集英社文庫
- 二谷友里恵 1990 『愛される理由』 朝日新聞社

- 野島伸司 1992 『101回目のプロポーズ』 角川書店
- 東野圭吾 2001 『片想い』 文芸春秋
- \_\_\_\_\_ 2002 『秘密』 文芸春秋
- 『諸君』(第33巻 第7号) 2001 文芸春秋
- 星 新一 1986 「殺し屋ですよ」 『短編小説』 東京外国語大学日本語学科
- 松本清張 2004 『砂の器』(上) 新潮社
- 三島由紀夫 2004 『青の時代』 新潮社
- 村上春樹 2003 『遠い太鼓』 講談社
- \_\_\_\_\_ 2006 『アフター ダーク』 講談社
- 村上 龍 2006 『空港にて』 文芸春秋
- 森 茉莉 2005 『甘い蜜の部屋』 筑摩書房
- 山村美紗 1992 『京都茶道家元殺人事件』 光文社
- 山本一力 2002 『あかね空』 文芸春秋
- 山本文緒 2004 『恋愛中毒』 角川書店
- 吉本ばなな 1998 『哀しい予感』 角川文庫

제 2장에서 분석한 [수단-결과] 구조는 『동북아 문화연구』 제13집에 게재된 愼 賢淑(2007b)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이며, 제 3장에서 분석한 [원인-결과] 구조는 『동북아 문화연구』 제12집에 게재된 愼 賢淑(2007a)을 참고로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또한 제 4장의 [양태구조] 및 제 5장의 [부대상황구조]는 『日本語文学』 第39輯에 게재된 愼 賢淑(2007c)의 일부를 참고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 감사의 글

소논문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끼며 나름대로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또한 커다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도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논문을 지도해 주신 손동주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해주셨고 또 연구자로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언어 현상을 바라보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상언 교수님, 논문의 구성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도 자상하게 조언해주신 최건식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일어 일문과 박영숙 교수님, 김상규 교수님, 최연희 교수님, 신종대 교수님, 윤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관련 자료들을 안내해주시고 연구의 방향에도 도움을 주신 신라대학교 권기수 교수님과 인제대학교 전성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용기를 주셨던 국문과의 채영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대학원에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얻은 이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보다 새로운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자합니다.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어머니와 친지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남편께 감사하며, 아들 용희에게 이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6월

신 현 숙